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남의 흠을 애써 찾아서
약점과 단점을 들추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29일)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만해 스님 일대기 영화 만든다

만해선양지방정부協 정기총회서 제안·논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내년 3.1독립운동 100년을 맞아 근대 선지식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 일대기의 영화화가 추진된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월 6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컨퍼런스홀에서 2018년 정기총회와 좌담회를 열고 협의회 회계보고와 향후 지자체별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홍성군은 주요추진사업 계획 발표에서 만해 스님 일대기 영화화와 협의회 소속 지자체 공동 제작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홍성군이 시네마서울과 함께 추진하는 만해 스님 일대기 영화는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을 제목으로 한 명구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주요 출연진으로는 영화배우 전광열과 양동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영화 촬영 기간은 1년으로, 홍성의 만해 스님 생가지부터 출가지 백담사, 첫 안거지 건봉사, 열반지 심우장 등 만해 스님 관련 유적지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4월 제작 발표를 시작해 3.1독립운동 100년을 맞는 3월 이전에 개봉한다는 게 홍성군의 계획이다.

제작 금액은 10억 원이 소요되며, 지자체 부담액은 3억 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성군은 협의회 소속 6개 지자체에서 5000만 원을 공동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3.1운동 100년 기념 영화 제작으로 만해 스님을 선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서 "협의회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지자체 유대 강화 등 모범 선례 구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연예 · 영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 실무진과의 논의를 거쳐 2월 중 영화 제작 시점과 방식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자체별 다양한 만해 스님 선양사업 계획들이 공개됐다. 만해 스님 일대기를 영화화하는 홍성군에서는 만해 스님 생가지 일대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 테마파크에는 호수데크와 체험공간 등이 구비된 야외박물관이 들어서며, 현재 토지 매입과 기본계획들은 수립됐다. 홍성군은 오는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월 중 실무진 논의해 결정
전광열 · 양동근 등 출연 예정
3.1운동 100주년 맞아 개봉

지자체 만해 선양사업 '활발'
성북구, 심우장 사적 지정부터
국내 · 외 만해로드 장정 진행도

만해 스님 열반처인 심우장이 있는 성북구의 선양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성북구는 현재 서울시지정문화재인 심우장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하는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현재 성북구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에 착수했으며, 연구를 바탕으로 5월까지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심우장 일대를 만해 스님 기념관과 독립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진행한다. 기념관은 심우장 일대 10필지인 1759㎡의 부지를 매입해 연면적 354㎡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된다. 기념관에는 문학관과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가 주최하고 동국대 만해연구소와 성북문화원이 주관하는 '3.1 독립운동 99주년 만해로드 대장정' 계획도 발표됐다. 오는 2월 25~2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에서 열리는 만해로드 장정은 극동 지역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들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꾸며진다. 귀국일인 2월 28일에는 심우장에서 3.1독립운동 99주년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8월 12~14일에는 광복 73주년을 맞아 충남 홍성군과 강원도 속초시 · 인제군 · 고성군, 서울 성북구 · 서대문 등서 국내 '만해로드 장정'도 진행된다.

주관 단체인 동국대 만해연구소는 향후 중국과 일본에서의 만해 스님의 행적을 탐방하는 국외 만해로드와 만해 스님과 관련해 남북불교문화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탐방 코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재석 동국대 만해연구소장은 "만해 스님은 자신과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일주를 기획하고 실천에 옮겼던 국제인이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안목과 에너지를 불교 정신으로 융합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다"며 "이번에 열리는 3.1독립운동 99주년 기념 만해로드 대장정은 내년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는 서울 성북구청과 서대문구청, 충남 홍성군청, 강원도 인제군청과 고성군청, 속초시, 각 지자체 교육청과 동국대 만해연구소로 구성돼 있다.



"세배 받으세요!"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운희)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 설날맞이 행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개최했다. 7일 열린 '명절문화체험'에서는 회현어린이집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유아들이 참여해 우리의 설 명절 문화를 체험했다. 곱게 설빔을 차려입고, 세배를 배우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한편, 중림사회복지관은 행사 기간동안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어르신 전통놀이 한마당, 떡국 나눔, 떡 썰기 대회 등을 진행했다. 사진= 박재완 기자

세계 각국 정상, 월정사로 향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맞아 만찬 및 사찰문화 체험

평창올림픽을 맞아 내한한 세계 정상들이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 체험을 위해 평창 월정사를 방문한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2월 18일 오후 1시 평창 월정사 대법륜전서 정부 여권 인사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앤드류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을 비롯한 IPC 위원들도 3월 7일 월정사서 역시 만찬과 문화체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 정상들은 다도와 명상 등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정사 행정실장 두엄 스님은 "각국 정상들이 선수단 격려 등 공식 활동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초청 내빈들에게 사찰음식과 함께 전통 국악 공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2월 10일에는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이 월정사를 찾아 사찰음식 만찬을 즐겼다. 또한 9일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조정래 소설가, 은반여왕 카타리나 비트 등이 월정사서 성화 봉송을 진행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사진 왼쪽)와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멸빈자 사면안' 다룰 중앙종회 3월 20일 개원

의안 접수 3월 13일까지

1년간 이월된 '멸빈자 사면안'을 다시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20일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13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0차 임시중앙종회 개원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10회 임시회는 3월 20일부터 5일간 이어진다. 의안 접수는 3월 13일까지.

연석회의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서는 지난 회기서 이월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영축총림 및 조계총림 방장 추대의 건, 초심호계원장 원종 스님 후임 선출의 건, 재심호계위원 진우 스님 후임 선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승가학원 이사 및 감사 추천의 건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특히 멸빈자 사면안은 지난해 3월 208회 중앙종회부터 이월된 안건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대탕평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와 관련, 설정 스님은 이례적으로 연석회의에 참석해 의장단을 비롯한 중앙종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스님은 "총무원장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중앙종회인 것 같다. 언제든 진솔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종회에 앞서 영축총림 통도사와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각각 3월 9일과 16일 열린다. 윤호섭 기자

불교와 설 특집 B섹션 8면 발행 | 연휴 관계로 다음주 휴간합니다.

福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독자님들의 성원에 두손모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불자님들 가정에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되시길 발원합니다.
풍성한 기운이 충만한 설 명절 되세요.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설정 스님(가운데)을 비롯해 대만 세계불교비구니회 임원진과 조계종 총무원 소임자 스님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비구니스님들과 정진하고파”

대만 세계불교비구니회,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예방

대만 세계불교비구니회 스님들이 조계종을 예방해 함께 정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대만불교총회장 홍안 스님, 대만세계불교비구니회장 보휘 스님 등 대만불교 방문단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번 예방은 대만불교계가 오는 4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서 개최하는 제1회 세계불교비구니평화대회 대회에 설정 스님을 법사로 초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만불교총회 비서장 견인 스님은 “세계불교비구니평화대회 기간에 설정 스님이 직접 오셔서 전 세계 12개국이 참석하는 비구니 스님들에게 법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법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 수행자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다. 견성성불을 이룰 때까지 함께 정진하자”고 화답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부처님 법을 중생에게 전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없이 수도하는 것은 수도하는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성취가 늦어진다. 우리가 똑같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부처님 제자로서 여법하게 함께 살아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만세계불교비구니회장 보휘 스님은 “한국은 비구니회가 잘 갖춰진 것 같다. 조계종의 도움을 받아 한국 비구니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며 불제자로서 힘을 합쳐 나아가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명상’ 최초 민간자격증 도입

조계종 포교원 1월 29일 과정 등록, 4월 14일 고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이 종단 인증 민간자격증 발급에 나섰다. 다양해지는 자격증 시장에서 ‘불교’ 관련 자격증 발급으로 포교 효과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월 29일 ‘불교명상지도사’ 민간자격에 대한 주무부처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완료했다.

명상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구글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명상 검색 빈도는 불교 검색 빈도를 앞섰다. 명상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그동안 ‘불교명상’에 대한 정체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포교원의 ‘불교명상지도사’ 민간자격은 ‘불교명상’의 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이란 의미도 지닌다.

불교명상지도사 과정은 불교의 대표적 명상법인 위빠사나, 사마타, 간화선 등 이론과 수행법을 익히고, 주요 현대 심리상담 이론과 기법도 함께 교육한다. 현재 진행 중인 타 명상교육과의 큰 차이점이다.

불교명상지도사 과정은 현재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급 과정은 총 17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는 불교명상지도사 1급 과정도 운영 예정에 있다.

불교명상지도사는 전문가, 1급, 2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1회 불교명상지도사 자격고시는 4월 14일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로 불교상담개발원 이메일(jabi7378@naver.com)이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불교상담개발원장)은 “소통과 치유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포교현장에서 심

명상 관심에 인증과정 도입
불교민간자격증 확대 일로
동기부여 효과, 활용처 모색

리치유적 명상을 통해 불자들의 실제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포교의 전문화와 명상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계종 포교원의 불교명상 민간자격증 발급과 함께 다양한 불교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전체 민간자격증의 경우 등록된 자격증 수가 2만8000여 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불교 관련 민간자격증은 2013년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상담심리사’를 등록한데 이어 2014년 불교상담아카데미의 ‘불교심리상담사’, 2015년 아카사의 ‘찬불가 지도사’, 한국불교상담학회의 ‘불교상담사’, 경기불교문화원의 ‘불교음악지도사’와 ‘불교문화지도사’, 2016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서 ‘불교심리상담사’, 2018년 포교원의 ‘불교상담심리사’ ‘불교명상지도사’, 조계종 삼보문화회의 ‘불교문화포교사’ 등이 있다.

또 명상과 관련해서는 자비명상(대표 마가)이 ‘방과후학교명상지도사’ ‘자비명상지도자’ ‘차명상지도사’를,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이 ‘명상심리상담사’, 풍경소리가 ‘명상심리상담사’, 불교상담아카데미가 ‘지명명상지도사’, 나마스테코리아가 ‘청소년 마음명상지도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청소년 명상힐링지도사’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2013년부터 민간자격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인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수강생들에게 동기부여에서 자격과정 도입의 효과가 크다”며 “불교 민간자격증 획득 시 이를 활용하는 부분도 불교계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신설된 불교상담심리사는 조계종 불교상담대학 또는 불교상담대학원 과정을 졸업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불교상담대학과 불교상담대학원은 3월 개강 예정으로 현재 신입생 모집 중이다. (02)737-7378


조계종이 인증하는 불교명상 최초 민간자격증이 도입됐다. 사진은 불교상담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제3기 불교명상지도사 2급 과정 명상교육.

전국비구니회 50년, 기념사업 추진

오는 9월 중 세미나 · 콘서트 · 시상식 등 예정

올해로 창립 50년을 맞은 전국비구니회가 세미나와 토크콘서트, 시상식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2월 6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서 제2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 결산보고와 2018년 예산 승인, 전국비구니회 50년 기념행사 심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운영위원회는 창립 5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미나와 토크콘서트, 시상식, 전시회 등의 사업을 준비하기로 결의했다. 기념식은 오는 9월 중 3일간 법룡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사업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와 함께 3월 열리는 전국비구니회 제11차 정기총회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외에 올해 교육사업으로 9월 7일부터 2박3일간 ‘불교에서 바라본 호스피스 교육’ 심화과정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과 복지, 포교 등 각 분야서 활동 중인 비구니 스님들을 활용하기 위한 비구니 인력 활용방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실시한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의 복지 증진을 돕고자 백천문화재단과 진행 중인 의료비 지원사업 규모는 현행 월 200만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1968년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전법도생을 목적으로 ‘비구니 우담바라회’로 발족했다. 1980년 전국비구니회로 재창립, 현재까지 전국에 지회를 두고 불법홍포와 자비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윤호섭 기자

총무원장선출, 입후보 없는 제3안 검토

제도개선특위 간담회서 추선(추대선출)제 논의

원로의원 등 총 130명 위원회
합숙 형태 대중공사로 선출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추대와 선출의 개념을 혼합한 제3의 안도 도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 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만당 스님이 제안한 가칭 ‘추선제’를 검토했다. 회의는 성원이 되지 않아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들 간의 의견만 주고받았다.

이날 만당 스님은 추대와 선출이 혼합된 방식인 ‘추선제’를 소개했다. 이 방식은 총무원장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군 명부를 총무부와 호법부가 작성, 중앙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자격심사 해 확정한다. 이후 중앙선관위가 추선위원회를 소집해 차기 총무원을 이끌 후임 총무원장을 선출해 추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선위원회는 원로의원 25인, 교구본사주지 24인, 중앙종회의원 81인을 합한 130명으로 구성되며, 합숙회의 장소에 들어간 뒤부터 외부 접촉이 금지되고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총무원장 후보군에 들어간 스님들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만당 스님에 따르면 총무원장 입후보 방식을 없애 상대후보가 대립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만당 스님은 “추선제와 함께 총무원장 임기를 4년 중임제에서 6년 단임제로 바꾸면 소신 있는 종무집행도 가능해진다”며 “추선제는 선거제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선제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았다. 추선위원회가 정해져 있어 기득권이라는 오명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 추선위원회가 총의를 모으지 못했을 때 결국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은 부정적 의견으로 제기됐다.

이에 특위는 현행제도의 교구본사 선거인단 구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추선제를 다듬어 2가지 안을 함께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외부의 다양한 선출제도 안을 접수해 차기회의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차기회의는 2월 26일 열린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교육위원장 종호 스님 선출

2월 6일 1차 회의서



조계종 교육위원회 제12기 위원장에 동국대 불교대학장 종호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교육위원회는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종호 스님을 선출했다.

제12기 교육위원으로는 종호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범해 스님, 조계종 前 교육부장 정도 스님, 해인율학승가대학원장 서봉 스님, 김천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등이 위촉됐다. 임기는 오는 2019년 12월 14일까지다.

신성민 기자

불교시문학(佛敎詩文學)
上 中 下 강의

활안스님의 『불교시문학 상 · 중 · 하』 출판을 계기로 불교시문학 강의를 계획하였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상권 : 십만송에 달하는 80권 화엄경 속 게송
■ 중권 : 경 · 율 · 론 · 밀교 편으로 불교 3장에 담겨있는 게송
■ 하권 :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불교에 전해오는 많은 불전(佛典) 가운데서 특히 오도송, 전법게, 임종게, 그리고 조사어록 등이 실려 있습니다.

강의내용 및 시간
■ 상권 (월 1회) : 매월 4째 토요일 오후 2시 ~ 4시 (3월 24일 개강) / 화엄경 게송 강의
■ 중권 (주 1회)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 (3월 5일 개강) / 아함경 ~
– 강사 : 활안 한정섭 스님
※ 불교시문학은 (사) 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각권 정가 5만원)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 문의 02)969-2410. 969-4981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8년 1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8년 3월 7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신중작법, 상단불공의식
◇원서교부 : 2018년 1월 15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군부대 앞 천막법당의 애끓는 사연

김포 연운사, 군부대 반대로 증축 난항…국민 청원 불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6년 화재로 법당 소실 후 한파 속 천막에서 신행활동을 이어오는 불자들의 애끓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사연의 주인공은 김포 연운사 불자들. 김포 연운사는 2013년 장성 백양사가 김포지역에 세운 도심포교당이다. 연운사에는 1600세대 4000여 신도들이 신심으로 자비실천을 펼치고 있다. 이들 연운사 불자들은 2016년 원인불명의 화재로 법당이 전소된 이후 천막법당에 다니며 독거어르신 밑반찬 봉사, 지역 복지관 자비의쌀 전달, 연탄 전달 등 자비실천에 앞장서 왔다.

신행의 중심이 사찰이기에 이들 불자들은 십시일반 정재를 모아 사찰을 재건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연운사가 위치한 지역이 육군 17사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던 것. 연운사는 당초 지상 1층의 법당을 세우기로 하고 군부대와 협의를 했지만 군부대는 증축시 전방에 유입되는 적에 대한 관측 및 사계에 제한이 간다며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연운사는 2017년 12월 지하 1층으로 된 반지하 법당 건축계획을 다시 군부대에 제출했지만 군부대는 역시 동의하지 않았다.



연운사가 제공한 사찰주변 현황 사진.

2016년 화재로 기존법당 전소
증축 계획 냈지만 군부대 반대
부대 측 "증축 넓어 시야 방해"
연운사 "지하 강요, 국민청원"


원명 스님이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연운사 주지 원명 스님은 "기존 법당과 높이가 같을뿐더러 지표에서 1m밖에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시계에 가린다는 논리로 군부대가 법당 건립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군부대는 법당에서 떨어진 주차장 기준으로 지표고도를 측정, 법당의 실제 고도가 5m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다면 산사의 경우 일주문에서 고도를 잰단 말인가"라며 군부대가 소위 '갑질'을 하고 있음을 성토했다.

특히 연운사 인근에는 지상에서 1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 있어 사찰에 대한 편향적인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사단 측은 "관측과 화력운영 제한으로 부동의 입장을 낼 수 밖에 없다. 주변 높은 건물은 30평 이내 건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근 창고건물의 경우 30평으로 여러 동을 지은 뒤 이를 합해 운영해 군부대의 답변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원명 스님은 "그렇다면 법당도 30평 규모로 여러채를 지으면 된다는 것인가"라며 "군부대에서는 반지하법당도 허가하지 않고 사실상 지하 벙커법당을 지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운사 경내에는 군부대 측이 사찰 입주 당시 벙커와 진지 또한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재 연운사는 청와대 국민청원(me2.do/x4tcezsu)을 진행 중이다. 원명 스님은 "종교활동 보장 및 군사보호 제한 완화, 그리고 법당 건립 승인 및 연운사 내 벙커 폐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미남불,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 8일 회의서 지정예고키로 결의

청와대 미남불로 잘 알려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사진〉'이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월 8일 열린 제1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청와대 경내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보물로 지정예고키로 결의했다.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부처의 머리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조각의 중요 사례로 관심을 받아왔다.

9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은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됐지만 다른 부분은 큰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 편단우견(偏袒右肩)을 걸친 항마촉지인의 모습으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이며,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적 특징과 조각적인 양감이 풍부해 통일신라 불상 조각의 위상을 한층 높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불상은 1913년 경 경주에서 반출되어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倭城臺)에 있는 총독 관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정검토를 하며 시행한 과학조사에서도 석조여래좌상의 석재가 남산과 경주 이거사지(移車寺地) 등에 분포한 경주 지역 암질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됐다"면서 "다만, 조사결과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복원과 원위치 확인을 위한 더 심도 있는 조사연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에 대해 30일간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민추본, 남북불교 교류 재개 나선다

2018년 1차 정기이사회서 북한 불교문화재 보존 협의

조계종 대북교류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대북 교류 재개에 나섰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8년 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2018년 주요사업으로 △남북불교문화재 교류협력사업 △대북지원협력사업 △남북불교 공동행사 △통일교육 및 기획사업 △본부운영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설정 스님과 사무총장 진효 스님, 이사 혜자 · 진각 · 종훈 · 원명 · 금곡 · 계호 스님, 고유환 교수와 감사 심재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특히 민추본은 올해 남북불교문화재 교류협력사업에 힘을 기울인다. 그 일환으로 금강산 신계사 건축물 진단조사 및 보수공사와 개성지역 사지 발굴 및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남북불교문화유산 공동보존 관리에 관한 정책협의도 계획 중이다.

지난해 무산됐던 신계사 복원 11주년 남북불교도 합동(동시)법회도 재추진된다. 이와 함께 민추본은 남북불교 공동행사로 부처님오신날 기념 남북불교대표단 서울-평양 상호교차방문, 8.15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서산대사 남북합동다례재,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 등을 진행한다.

설정 스님은 "2018년은 남북관계에 있어 희망적인 해라는 기대가 있다.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남북간 평화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돼 민추본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남북관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는 올해 3월 이사 임기 만료 예정이던 지홍 · 혜자 · 금곡 · 계호 스님과 고유환 교수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2월로 감사 임기 만료 예정이던 심재환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도 연임이 확정됐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동국대 본관서 개신교 예배라니…

최근 동국대는 청소노동자 감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동국대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8명의 충원 대신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청소노동자들이 발끈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소노동자들은 1월 29일부터 동국대 본관을 점거하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동국대는 청소노동자 감축은 "최저임금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강변한다. 10년 동안 등록금은 동결되고 입학금도 폐지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의 책임을 하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청소노동자들의 주장과 비판도 일견 타당하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화로 협의 ·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화'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존중을 위해서는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하지만, 현재 동국대 본관서 시위 중인 청소노동자들은 그 선을 넘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은 2월 4일 오전 11시 본관 3층에서 인권활동가로 잘 알려진 A목사를 초청해 주일 예배를 진행했다.

A목사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배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A목사는 "청소노동자 중 개신교인들의 주일 예배 요청이 있었고 이를 응했다"고 밝혔다. '불교종립대학 본관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요청이 있으면 개신교 종립대학에서도 스님이 법회나 강연을 진행하지 않는가. 어려운 사람들의 요청에 응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교 등 다른 종교들은 존중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라며 "이번 예배로 불교를 폄훼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목사의 해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개신교 종립대학에서 스님을 초청해서 법회 · 강연을 여는 경우도 많지 않거니와 어디까지나 해당 학교의 동의를 얻고 이뤄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종교 사학에서 중심 건물인 본관을 다른 종교의 예배나 법회를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줬다는 소식은 들어본 바도 없다.

청소노동자들의 동국대 본관 예배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이해받지 못했다. 사회노동위 관계자는 "불교도 파업 사업장에서 법회를 열지만, 되도록 건물 밖에서 봉행한다"면서 "일반 사업장은 종교와 크게 상관없음에도 조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학생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국대 재학생은 "지금 시위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관련 문제로 이뤄졌는데 왜 목사를 초청해 예배를 했는지 모르겠다. 공식적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예배 행위는 시위의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며 "불교종립학교에서 목사를 불러 예배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없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내 주장이 존중받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다. 동국대 본관에 목사를 불러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학교를 조롱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임을 학내 구성원인 청소노동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게 상대방을 조롱하고 상처주는 것이 좋은 시위 방법인가. 그렇게라도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ade Buddha
for Universal
PEACE



만다라 불빛을 보여주시는
"SBS 세상에 이런일이" "MBC 월드리포트" "YTN 뉴스" 방영 등

제드붓다 (비취불상) 마지막 친견 기회

비취원석으로 조성된 무게 4톤, 높이 2.7미터 세계 최대 비취 불상
티벳불교 선승인 '라마조파 린포체'께서 조성 '달라이라마' 존자님 증명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23개국 30만 ㎞ 순례후 마지막 순례지 부산 도착

비취부처님 친견으로 새해 소망 꼭 이루세요

장 소 : 부산 기장(동부산) 롯데몰 사거리 특설관 (오시리아 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기 간 : 2018년 3월 4일까지
문 의 : 010-5795-5466 | 위원회 : 032)522-5553

법인 중심 '우뚝' 세운 혜명복지원

법인사무국 독립건물 준공
종합복지타운 진용 갖춰

푸드뱅크 자체 공간 마련
노인요양원 건립 중점 추진
스리랑카복지타운도 10년
전체 사업규모 점차 확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월 2일 열린 혜명복지원 법인사무국 시설 준공식에서 이사장 도서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스님과 내빈들이 기념 테이프 절단을 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 지역복지를 대표하는 혜명복지원이 법인사무국 건물을 준공하며 종합복지타운의 진용을 갖췄다. 혜명복지원은 이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원 건립 추진 등 각종 복지사업 확대에 나선다.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이사장 도서, 도선사 주지)은 2월 2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부지서 법인사무국 시설 준공 및 금천구푸드뱅크마켓 이전식을 거행했다. 1976년 도선사가 자비사상과 중생구제 원력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고자 설립한 혜명복지원은 현재 법인 산하 19개 시설(직원 240명)을 운영하는 대형 복지법인으로 성장했지만 별도의 사무국 건물이 없어 복지관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해왔다.

이에 원활한 법인 업무와 사업 확대를 위해 지상 2층 규모(각층 80평) 건물을 새로 지어 사무국 공간을 배정했다. 특히 1층은 혜명복지원이 수탁 · 운영 중인 금천구푸드뱅크마켓 공간으로 활용, 건물을 임대받아 사업을 이어가는 여타 푸드뱅크보다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준공식서 혜명복지원 이사장 도서 스님은 "혜명복지원 법인이 그동안 힘든 과정을 거쳐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한 만큼 더불어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민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을 받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사무국 시설을 준공한 혜명복지원은 앞으로 전문노인요양원 건립을 통한 노인복지사업 확대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법인 산하에 혜명양로원과 청담노인복지센터, 청담데이케어센터가 있지만 전문적인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원이 없어 노인복지서비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다.

법인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고, 불교계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 운영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선사 신도나 불자들이 불교계 요양원이 생기길 바란다. 이사장스님도 이 같은 대중의 의견을 받아들여 요양원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혜명복지원은 2008년 수탁한 스리랑카복지타운 10년을 맞아 스리랑카 농촌지역 아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구상 중이다. 스리랑카복지타운은 2004년 서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집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조계종이 건립했다. 매월 도선사에서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님과 직원, 불자들의 참여로 아동결연 100%를 달성하기도 했다. 스리랑카 현지서는 사마디고아원과 사마디유치원을 운영하며 학용품 및 생필품, 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에는 前부산 미타선원장 각원 스님이 신임관장으로 임명돼 출국을 앞두고 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③

금번 연재에는 호스피스 봉사자 분의 기고를 싣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 곁을 함께 지키며 보살도를 행하는 감동을 독자분들에게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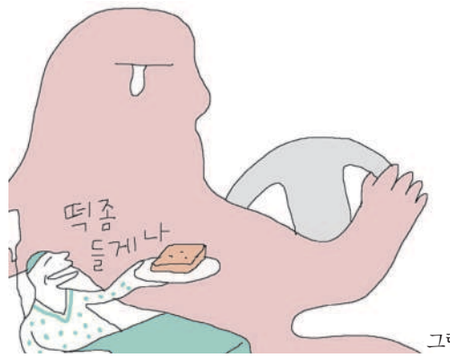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그 분'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법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잠이 쏟아져서 껌도 먹고 노래도 들어 봅니다.

그래도 밤 고속도로 위는 뭔가 꿈길을 달리는 느낌입니다. 생각이 함께 일어나 달립니다. 그 분은 지금 편히 주무실까 합니다. 오늘 저녁엔 너무나 보고 싶은 그 분 소식에 하루 일이 끝나고 쉬고 있을 시간 이란 것도 은근슬쩍 보내버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 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얼굴색이 지난 번 기억보다 더 붉어져 있습니다. 이마위로 수액 주사 줄을 달고 있는 오른손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왼손 등에는 거즈가 붙어 있습니다. 주사를 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나 봅니다.

다가가서 가만히 왼손을 잡아 봅니다. 손바닥이 뜨끈뜨끈 합니다. 그 분이 드디어 눈을 뜨십니다. 저와 눈이 마주칩니다. 저는 웃습니다.

"왔나."

그 소리가 심장을 가만히 칩니다. 참 좋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곤 말문이 막힙니다.

이마 위 오른손 수액 줄에 피가 고입니다. 잠시 오른손을 내려드립니다. 이마에 자국이 났습니다. 더욱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이마에 제 손등을 대어봅니다. 손바닥만큼 뜨끈뜨끈 합니다.

저는 껌을 씹으며 노래를 크게 들으며 밤 도로 위를 달려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23층 아파트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제 모습이 보입니다.

문득 제 눈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눈 속에 그분을 꼬옥 안았던 제가 있습니다. 고맙다 말씀하시는 그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그 곳은 그 분이 아파서 계신 곳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분이 겪는 아픔의 먼지알갱이 만큼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분은 어쩐지 자꾸만 고맙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분이 그리워 자꾸만 뵈러 가게 됩니다. 아프신 그 분이 실은 제 아픔을 안아 주시니까요. 정말로 함께 아플 수 없는 저를 다 알아봐 주시니까요.

그 새 새로 한 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자야 합니다. 그 분이 약속하신 대로 열이 내리면 제게 전화를 주시겠지요. 정토마을 자재병원의 하늘엔 그 분의 별이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협회 봉사자 김경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육기간** | 2018년 3월 27일(화) ~ 3월 29일(목)
- **접수마감** | 3월 19일(월) (선착순 30명)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포교사단, 포교회관 건립 추진한다

1월 29일 운영위 연수서 확정

조계종 포교사단이 포교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윤기중)은 1월 28일과 29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차 운영위원 연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포교사단은 먼저 윤기중 사단장을 위원장으로 '2018포교회관 건립추진위원' 84명을 선임했다. 건립추진위 1차 회의와 2차 운영위원 연수는 4월 19일 열리며, 이날 건립 추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포교사단은 포교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포교회관 건립기금 모금을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5회 포교사의 날을 개최하고 9월 8일과 9일 팔재계 수계실천 대법회도 연다. 또 1월 포교사단 본단에 도입한 전자결재시스템의 지역단 시행을 4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월 3일 진행된 제23회 일반포교사 · 국제포교사 고시에는 일반포교사 505명, 국제포교사 28명 등 총 533명이 응시했다. 노덕현 기자

"장기기증 국민인식 개선 나서겠다"

생명나눔실천본부 2월 6일 신년 사업계획 발표해

'생명더하기…' 캠페인
기업 참여 기증 운동 전개
병원 · 복지관서 현장 상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신년계획을 밝히고 있다.

불교계 장기기증 기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나선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2월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 · 인체조직기증과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기업 · 지역본부와 연계한 캠페인 진행 △후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장려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생명나눔은 먼저 2018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5000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 3000명, 조직기증 희망등록자 2500명을 모집을 목표로 '생명더하기, 행복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생명더하기, 행복나누기' 캠페인은 학생 및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교육 및 기증희망등록을 이끄는 캠페인이다.

생명나눔은 2017년 도봉면허시험장과 부산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한 현장캠페인을 연중 캠페인으로 확대하며, 지역의 병원과 복지관 등에서 일대일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부산, 대구, 광주전남, 경남, 제주 지역본부와도 연계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 사찰 등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특히 기업에서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장기기증 희망등록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개 기업과 협약이 추진 중이다.

또 대학 간호학과와 장기기증 홍보 협약을 맺은데 이어 올해에는 전국 25개 대학 간호학과로 협약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생명나눔은 △희망걷기대회(4월 28일) △천도재(6월 6일) △한다솜 희망음악회(6월 8일) △논산훈련소 법회(9월 29일) △산사음악회(10월 6일) △따뜻한 정나누기(12월 5일)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희망등록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장기기증을 누구라도 부담없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장기기증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으로 더욱 많은 불자들이 보살행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꼬마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설빔을 맛봤다. 치마폭에 짧은 저고리가 어색하고 머리 위 족두리는 무겁지만 예쁜 빛깔에 참아본다. 그래도 흥겨운 장구가락에 어느덧 두 손, 두 발이 절로 움직인다.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7일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해 명절을 즐기는 행사를 마련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佛心 가득 자비나눔, 세밑 한파 녹이다

전국 불교계, 설 앞두고 소외계층 위한 기념행사 잇달아

노덕현 · 하성미 · 박진형 기자

이상 기후로 유난히 추운 겨울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불교계의 자비행은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여러 어려운 형편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도 환히 웃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향한 관세음보살의 손길은 세밑 한파에도 굴하지 않고 훈기를 불어넣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이기흥)는 설 연휴를 맞아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대중 동참 프로그램 '뻔(fun)한 나눔, 그리고 기부'를 진행한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수건 및 비누, 칫솔, 치약, 샴푸 등 세면용품과 행사기념티, 단체복 등 입지 않는 의류를 기부 받아 노숙인과 취약계층에 전달한다. 물품전달은 택배 및 방문기부로 이뤄지며 기부물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중앙신도회 이송 사무주임은 "각 가정에서 쓰지 않은 좋은 물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교 정신에 맞다.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면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날을 맞아 불교계 복지관들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자비나눔을 이어갔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은 2월 13일 재가복지사업 대상자 어르신 75명을 초청해 문화공연, 민속놀이를 진행하고 명절선물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5~9일은 지역복지활성화사업 대상 경로당 37개소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나눔 한마당'을 열고, 윷놀이와 비석치기, 세배하기 등 설맞이 명절행사를 실시했다.

서울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공상길)은 2월 9일 명절행사 '떡국 먹고 福도 받는 오늘은 우리 설날'을 개최, 시니어아카데미 풍물반 공연과 신일어린이집 원아 합동세배로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중식으로 떡국이 제공됐으며, 쌀과 라면 등 명절선물이 전달됐다.

서울 중림사회복지관

(관장 이윤희)은 2월 7일부터 3일에 걸쳐 설날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중림복지관은 7일 어린이집 원아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명절문화 배우기, 전통놀이 체험 등을 실시한 데 이어 8일과 9일에는 어르신을 위한 전통놀이 대회, 떡국나눔 행사, 떡 썰기 대회 등을 개최했다. 특히 떡 썰기 대회에 쓰인 가래떡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따뜻한 한 끼를 위해 사용됐다. 또한 중림복지관은 행사기간 동안 전 지역주민 대상 후원금 기부, 한복 나눔, 쌀 기부 등의 캠페인도 병행했다.



영주시노인복지관의 '설날맞이 큰잔치' 모습. 어르신들은 민족 대명절을 맞아 즐겁다.

떡국, 백미, 내복 등
다양한 생필품 나눠
어린아이, 어르신이
하나 돼 즐기기도…



전통놀이를 즐기는 영주시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조석영)은 설을 열흘 앞둔 2월 6일, 저소득 장애인과 지역사회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백미지원 및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추천 대상자 200명에게 백미 총 2000kg을 지원했으며 "설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과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눔으로 훈훈한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영주시노인복지관

(관장 이경희)도 2월 7일 '설날맞이 큰잔치'를 개최하고, 8~14일 내복 등 명절선물을 어르신들에게 나눴다. 특히 4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윷놀이를 즐기고, 함께 만두를 빚으며 민족 대명절에 앞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불도(佛都) 부산 역시 설을 맞아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행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나섰다.

효림원

(원장 성문)은 2월 6~16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입소노인과 산적꼬치 요리, 클레이를 이용한 행복꽃이 만들기, 설날 차례 지내기 등을 함께하며 외로운 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겠다는 취지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민아)은 2월 14일 설 명절동안 결식예방을 위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대체식품을 나눠준다. 몰운대복지관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이미 쌀 4,680kg을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한 바 있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대표이사 지현)이 운영하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1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지역 내 소외계층 50세대에 명절음식을 담은 음식세트를 전달했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은 '2018년 설맞이 아름다운기부 이웃사랑 기부米 기부me' 행사를 2월 8~13일 진행했다. 지역 저소득 207가정에 쌀, 라면 등의 생필품과 간장 등 부식품 세트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부산불교복지협의회장 정여 스님은 "매년 명절을 맞이해 복지기관에서는 저소득 이웃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기관들의 뜨거운 열정이 이웃들에게 제대로 전해져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부산불교복지기관협의회는 이 땅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주고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 각 복지관과 연계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널리 펼치도록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용봉산(석가산 대장로 문도) 신년하례대법회 봉행

문중의 상노스님이신 용(백용성 조사)와 노스님이신 봉(봉암 개사)의 신년다례를 봉행하고 불교역사상 세계 최초로 3차 80권 대방광불화엄경을 사경 중이신 이 시대 마지막 선지식이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산(석가산 대장로)로 부터 은 · 법 · 강 · 율을 전수받은 상좌의 도리를 다하고자 대장로의 원만사경을 발원하는 신년하례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경 중에 부처와 부처가 조사와 조사가 등불을 들어 상전한 전법 게송인 정법안장의 불조원류를 붓글씨로 11m를 석가산대장로께서 寫偈(사게)하셨습니다. 불교사료와 불교역사에 이정표가 되는 불조원류의 법보를 제작하여 문형제가 나누어 각자 보관하고자 하는 경이로운 기회에 문형제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소중한 법연이 되시기를 합장합니다.



장 소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두타산 구생종찰 원융호국사 일 시 무술년 음력 정월 19일 양력 3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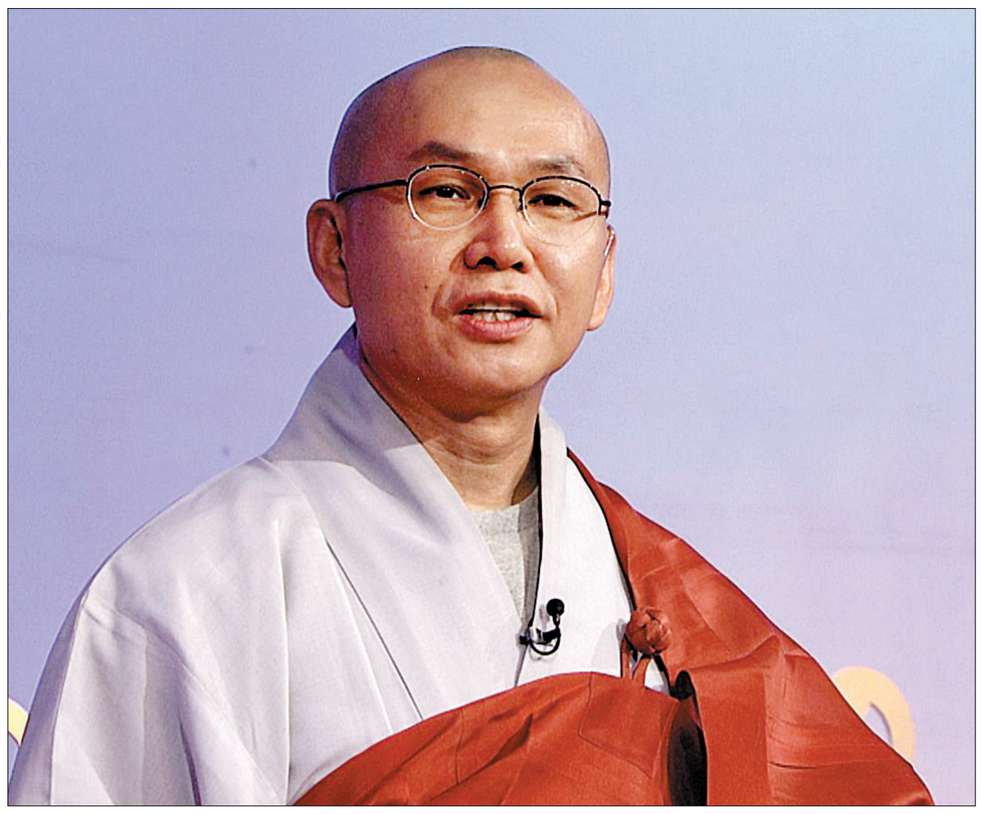
용봉산(석가산대장로) 문도회 화남

조계사 일요법회

“미소 한 번으로 부처님 삶 살아간다”

주제 : 부처님 가르침과 내 삶을 일치시키자

남전 스님 조계사 선림원장



남전 스님은… 1992년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98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용주사 포교국장과 기획국장, 군종특별교구 교무국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포교국장, 총무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조계종 군종교구 부교구장과 조계사 선림원장직을 맡고 있다.

연초에 해가 바뀌고 한파가 왔습니다. 길상사에 계신 법정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중국의 동산 스님이란 분이 제자와 하던 문답이었습니다.

제자가 하루는 “더위가 닥쳐오는데 어떻게 피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동산 스님에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더위가 없는 곳으로 왜 가지 않느냐”고 동산 스님이 물었어요. 제자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딥니까?”라고 하니, 스님이 “가마솥에 들어가면 더위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그 말씀을 빌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위 · 추위를 이기려면 더위 · 추위와 하나가 되면 된다”고. 추위와 하나가 되면 추위를 이기기 쉽습니다. 추위와 하나가 되고 더위와 하나가 되라는 말씀대로 오늘의 법문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적 가치의 중요성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을 일치시키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린왕자라는 책을 읽어보셨지요? 저는 어린왕자라는 책이 출가의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왕자의 질문은 늘 본질에 가까운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밉지는 않지요? 여러분도 저를 좋아해주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추위와 하나가 된다면
추위를 이길 수 있듯이
부처님 가르침과 내 삶을
일치 시키면 기적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이 사람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소원성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재적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삶을 결정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치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결과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때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하고 결과적 가치를 투영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재적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미리 나의 할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부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결정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부처님의 말씀을 투영해보지 않고 지나고 나서 그런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감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감동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 삼일동안 감동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먹고, 살았는데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스런 일을 자꾸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가족 · 집안은 잘 되는 집안입니다. 감동이 그렇게 선순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살림살이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 때 살림이란 말은 절집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인아산(破人我山) 양공덕림(養功德林). 파인아산은 즉 나라는 생각이 산 만큼이나 대단하지만 양공덕림, 너와 내가 다르다는 말을 깨뜨리고 공덕의 숲을 자꾸 기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산을 따오고 뒤의 림을 따와서 산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살림으로 바뀐 것입니다. ‘살림살이 나아졌다’ 고 할 때 살림은 너와 나라는 차별을 버리고 공덕을 쌓을 때 나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라는 생각 때문에 파인아산을 깨뜨리는 것은 아닌지, 공덕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야’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부부간에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야라고 표현하는 것은 파인아산 양공덕림과 다르지 않습니다. 삶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차별의 생각을 버리고 공덕을 쌓는 일을 하면 그 주위의 인연 있는 사람과의 공덕이 나빠질 수 없습니다.

선재적 가치에 입각해 짓는
한 번 미소로 업장 없어져
너와 나 다름을 깨뜨리고
원력의 힘으로 살아가자

부처님과 내 삶을 하나로

파인아산 양공덕림을 왜 못할까 생각해봅시다. 부처님의 삶과 내 삶이 분리가 되어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의 기도가 성취 되는 겁니다. 불자는 당연히 부처님의 공덕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알려주신 것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요.

부처님께서 매번 공양 때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탁발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낮춰야 가능합니다. 부처님이 하루는 아주 유명한 브라만 집에 탁발을 나갔습니다. 아침에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 주인은 신도를 부처님에게 다 뺏겨서 부처님이 미웠습니다. 브라만은 부처님이 탁발을 오자 화가 나서 욕을 했습니다. ‘육신이 멀쩡한데 너는 왜 일을 해서 먹고 살지 않고 동냥을 구하느냐 스스로 먹으라’ 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 순간 브라만을 보고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브라만은 더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혹시 집에 손님이 오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어 ‘그 손님 중에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냐’ 고 묻습니다. 브라만은 당연히 손님이 선물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어찌 됩니까?’ 하고 물으니 브라만이 ‘다시 가지고 돌아간다’ 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그러면 제가 선생님의 욕은 받지 않겠습니다’ 고 답했습니다. 이제 그 욕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 순간 브라만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겠다면서 좋은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브라만이 욕을 할 때 부처님께서 같이 욕을 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전생에 무슨 악연으로 저렇게 싸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양을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행위를 하고 계시니 지나가던 사람이 전생에 무슨 선덕을 지었기에 저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듯 빙그레 미소 짓는 그 하나로 삼생의 업장이 없어집니다. 부처님이 미소 한 번 지어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커다란 법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조용히 미소 한번 지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선택할 때 부처님의 이런 선재적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중생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가 욕할 때 같이 욕하면 삼생의 죄를 짓는 것이지만 한 번 웃어주는 것으로 삼생의 업장이 녹여지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아셔야합니다. 좋은 불자가 되는 방법은 경전을 읽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욕을 할 때 짜증을 낼 때 한 번 빙긋 웃어주는 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가르침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빙그레 미소 지어 줍시다.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미소 짓는 한 번에 미묘한 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불자가 되어 봅시다.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매일이 좋은 삶을 살 것인가. 한 번의 미소를 못해서, 부처님의 선재적 가치를 내 삶에 투영하지 못해서, ‘내가 왜 그때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잘못된 행위를 했을까’ 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안 할 수 있는데 후회를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이 온전히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봅시다. 미소 한 번 지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업장의 힘보다 원력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다음 생보다 금생이 훨씬 좋아야 다음 생을 좋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계사 일요법회

사람이 꽉 찬 지하철, 뾰족한 구두를 신은 발이 내 발을 뭉갰다. 자연스레 ‘에이 씨’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이내 ‘부처님이셨으면 되레 미소를 지으셨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든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을 일치시키면 후회할 일이 없다고 한다.

조계사 선림원장 남전 스님은 1월 21일 조계사 일요법회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을 일치시키자’를 주제로 법문했다. 남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이를 삶과 일치시키는 삶이 기적을 만든다고 말했다. 스님은 “선택의 순간에 부처님의 말씀을 투영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꼭 후회한다. 후회란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8년 불교학과 52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3월 8일(목) 오후 1시 개강]

-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통신반 [CD 배송, 사이버 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 목	①불교의 체계적 이해 (아함경 1) ②불교문화와 포교 ③선불교 ④근본불교(아함경 2) ⑤반야심경 ⑥유식불교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이미령교수 김형준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묘주스님 최종남교수
2년차	과 목	⑦인도불교 ⑧중국 · 한국불교 ⑨법화경 ⑩화엄경 ⑪정토불교 ⑫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차차석교수 박 종교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정엄스님

■ 모집인원 (불교학과) : 100명 (주간반, 저녁반, 통신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년 1월 15일 부터
■ 문 의 : 사무처 02)732-1206 ~ 8 FAX 02)732-1207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한불련)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각과 개강일

- 불교다도학과 (2년과정) 3월 6일(화) 오전 11시
- 불교미술학과 (2년과정) 3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전통범패의식반 (2년과정) 3월 7일(수) 오후 2시
- 한글불교의식반 (2년과정) 3월 10일(토) 오후 2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출강 및 통신 2018학년도 제2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7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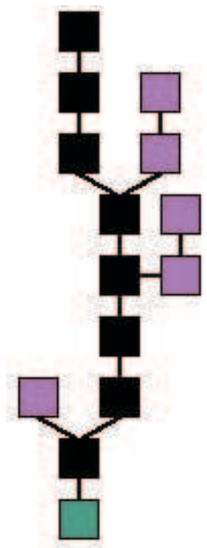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8년 2월 28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4차 산업 기반, 블록체인에 주목

③ 블록체인이 밝히는 미래사회



블록체인 개념도
(https://en.wikipedia.org/wiki/Blockchain#/media/File:Blockchain.svg)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한 구조를 말한다. 생성되는 정보, 예를 들면 거래 내역이 각 블록에 저장되고 각각의 블록이 서로 체인으로 연결되어 블록체인 또는 디지털 거래장부를 구성한다. 한번 생성된 블록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없고, 새 거래내역 또는 블록은 네트워크 참여자의 다수결 동의에 의해 인증되며, 블록체인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이 새 블록이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추가된다. 결국 블록체인 즉 디지털 공공 거래장부는 과거부터 이루어진 모든 인증된 거래 내역을 모두 그리고 어떠한 결함도 없이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예를 가지고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록체인은 분산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지털 공공장부이다. 예를 들어 모든 거래내역을 담은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수만 개 컴퓨터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하나씩 저장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 스프레드시트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즉 새로운 거래(블록)를 기존 디지털 장부(블록체인)에 정기적으로 연결하여 추가하는 것을 가정해보자.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가 한 장소에만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를 통한 보안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사용자에 의한 거래입증이 용이하다. 거래 정보를 하나의 중앙 컴퓨터 서버에서 보관하고 통제하는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투명하다. 또한 해킹이 불가능한 등 보안성이 확보된다. 수만 대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된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위 · 변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블록체인은 중개기관 또는 신탁받은 중앙 당국(국가, 공증기관) 없이, 암호를 사용하여 모든 거래를 인증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거래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용자에게 투명하며 중앙 당국에 의한 부정도 예방할 수 있다. A가 B에게 10만원을 이체하는 통상적인 은행거래를 상상해보자. A가 X은행 계좌를 통해 B의 Y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이체할 것을 요청하면, X은행의 중앙컴퓨터 서버는 우선 A의 계좌를 동결하여 다른 출금을 정지시킨 후 10만원을 인출하여 B의 Y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한다. Y은행 중앙컴퓨터 서버는 이 10만원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C의 계좌에 송금한 후 이 거래를 기록한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X은행은 A의 계좌에 이체 결과를 기록하고 동결된 A의 계좌를 다시 활성화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의 A에서의 B로의 이체는 중앙 매개기관 없이 개인 간(peer to peer: P2P) 직접 거래로 이루어지고, 과반수 이상 제3자에 의한 확인 후 분산저장된 데이터베이스(디지털 장부)를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거래 인증이 완료된다. 네트워크 사용자 모두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공개키(public key)와 개인키(private key)로 구성된 한 쌍의 키를 생성할 수 있다. A는 B로의 10만원 이체를 자신만이 알고 있는 개인키로 서명한 후 B의 공개키 주소로 보내면(이체신청), 이 거래가 네트워크 상에 바로 공개된다. 제3자는 A의 공개키(일종의 일회용 계좌번호)를 이용해 그 서명이 이 공개키의 짝에 해당하는 개인키로 서명한 것인지를 그리고 기존 공공장부 상에 기록된 A의 과거 모든 거래내역의 검토를 통해 인출 잔고가 충분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과반수 이상의 제3자가 A, B간의 거래 사실을 인증하면, 이 승인된 새로운 거래 내용(블록)을 기존 블록체인(디지털 장부)에 연결한 새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며 분산된 수만 개 컴퓨터 모두에서 업데이트 된다. B는 이제 이체된 10만원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정보를 암호화하여 (복사 불가능한 형태로) 분산 저장하는 기술로, 중개인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고 계약서 및 문서의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이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안전한 기술이다. 처음에는 비트코인 기반기술로 고안되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으로 그리고 4차산업 혁명시대 보안과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로 발전할 것이다. 향후 모든 거래 및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면서 인간의 생활 및 제도를 크게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다.

초연결 · 지능, 특수권력에 좌우 위험 있어

탈중앙, 상호신뢰의 기술이 기반돼야

암호 화폐 주기논란에 가려진 효용성 살펴야

블록체인을 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이라 하는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라는 인터넷 네트워킹 기술이 90년대 중반 관련 인프라 구축과 맞물리면서 사람 간의 연결 및 소통에 혁신적인 변화(예를 들면 이메일을 통한 메시지 교환)가 있었다. 그러나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해 정보와 거래 기록이 집중되면서, 신뢰도가 증가하는 한편 이들 기업의 영향력 또한 증가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1기 인터넷이 사람 간의 연결 및 소통 비용을 최소화했다면, 블록체인은 시장에서의 경제적 거래비용을 보다 혁신적으로 낮추면서 시장거래의 개념 및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네크워크 참여자가 함께 정보와 거래기록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탈 중앙 · 분산 구조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소수에 집중하는 문제점 또한 개선할 수 있다.

처음에 비트코인의 기반기술로 이후 각종 암호화폐 등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스마트 계약, 크라우드 펀딩, 사물인터넷(IoT), 투표, 공급사슬 추적(예를 들면 농 · 축산물 유통 이력 추적, 이동 물류의 위치 추적), 공유경제, 지식재산권 보호(디지털 콘텐츠 시장), 전자시민증, 부동산 등기, 공문서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각종 공증, 의료, 행정 및 공공서비스 부문 등 전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인간의 일상생활 전반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일까? 초 연결, 지능화 및 자율성 시스템 운영을 중앙 통제하는 당국, 권력 및 엘리트 집단이 이 엄청난 영향력을 일부 그룹의 이익을 위해, 실수로 또는 고의로 잘못 운영할 가능성을 상상해보라. 따라서 초연결과 자율화가 심화될수록 참여자 또는 행위 주체 간의 신뢰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바로 투명성, 탈 중앙 · 분산 구조의 의사결정 체계와 보안성 확보를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 위협요인을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더욱이 참여자 또는 행위 주체가 상대방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모든 거래 및 기록의 신뢰를 확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대단히 혁신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이 기술이 현실경제와 만나는 암호화폐 거래시장에서의 투기와 해킹 문제에 가려져 본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있어 시스템의 확장성 및 안정성이 아직은 불완전하다,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 구축에 노력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정치, 경제 영역은 물론이고 각종 조직 및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과거에는 모든 정보와 의사결정이 중앙에 집중되는 형태로 시스템 안정성을 이루었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일반인(네트워크 참여자)에 투명하게 분산되는 형태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네트워크 참여자), 특히 이 중에서도 새로운 블록을 인증하고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소위 '채굴자(miner)'가 이 새로운 시스템의 주체로 부상할 것이며 불자들은 이에 주목해야한다.



이창수 교수(경희대 교수)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사찰 성보문화재 조사 중요한 이유는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③ 상주 북장사 · 갑장사 도난 성보

우리나라 불교미술사에서 사찰과 문화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시기는 몽고 침입, 임진왜란,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해이다. 그 전쟁기간 중에 사찰에 봉안된 불교문화재들이 거의 파괴되거나 소실되었다. 몽고와 왜구의 침입에 항거하던 의승군(義僧軍)의 활동 거점지였던 사찰이 왜군들에게는 신앙의 성소가 아닌 저항군이 머무르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파괴되었고, 한국전쟁 중에는 정부를 반대한 세력들이 산에 들어가 저항군으로 활동하면서 은신처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찰을 국군이 직접 소각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전쟁은 몇 백 년의 역사를 한 순간에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당시 호남, 관동, 경기 북부 등에 위치한 많은 사찰이 처절하게 파괴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전쟁이 끝나자 사찰에서는 중창불사를 일으켜 새로운 전각을 짓고, 그 안에 봉안할 불상, 불화, 범종 등을 조성하였다. 경북 상주의 사찰은 임진왜란으로 파괴되어 17세기 중반부터 중건을 시작한다. 1680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웅전 불상 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명산대찰이나 중소도시를 대표하는 사찰의 중건 연대보다 약간 늦은 편이다. 따라서 경북 상주는 사찰 내에 봉안된 석조문화재를 빼고, 대부분 17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불교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다.

상주 지역 문화재들은 한국전쟁 기간에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1960년대 이후 수집가들의 소장품에 대한 수요가 조선후기 불교문화재로 확장되면서 도난과 도굴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특히, 대구에 많은 수집가들이 생기면서 큰 골동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들에게 유물을 훔쳐 제공하는 도굴범들이 활발하게 활동한 무대가 바로 상주 지역 사찰인 것이다.

이 지역에서 도난된 중요한 불교문화재는 갑장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북장사의 극락구품도, 남장사의 고승진영, 신흥사의 영산회상도와 관음도 등이다. 그 가운데 갑장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북장사 극락구품도는 1969년에 정영호 교수가 이 지역의 사찰과 불교문화재를 조사한 〈상주지역 고적조사보고서(단국대 출판부 발행)〉를 통하여 구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알 수 있다.

상주 지천동 연악산(淵岳山, 일명 甲長山)에 위치한 갑장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直指寺)의 말사이다. 상주에 위치한 대표적인 사찰 갑장사, 북장사, 남장사, 승장사를 사장사(四長寺)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갑장사는 가장 으뜸이란 의미에서 사명(寺名)이 되었다고 한다.

갑장사는 1373년에 나옹혜근(懶翁惠勤) 스님이 창건하고, 임진왜란 이후 진묵일옥(震默一玉, 1562~1633) 스님이 중건한 후, 1797년(정조 21)에 연파(蓮坡) 스님이 중수하였다. 그러나 1985년 6월 15일 오후 6시 30분경 온돌 가열로 인하여 산신각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 성보물이 소실되었고, 1988년 5월 8일에 법당을 중건하였다.





〈상주지역 고적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상주 북장사 극락구품도(사진 왼쪽)와 개인 소장 극락구품도. 도난 이후 사립박물관을 거쳐 개인이 소유하게 됐다. 1969년 조사된 보고서를 통해 동일한 화기를 가진 것이 확인됐다.

상주 사찰들, 전란 피했으나
1960대 이후 절도 · 도굴 표적

북장사 구품도 · 갑장사 관음상
대표적 상주 지역 도난 성보
도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조사서 있어 행방 추적 가능

1985년 화재 이전 갑장사에 소장된 성보물을 알 수 있는 재산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1932년 12월에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소장품목록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재산대장에는 금동관음보살상 1구, 미타도와 신중도 등 7점과 고승진영 8점이 적혀 있다. 1932년에 작성된 관보에는 높이가 1척 9촌(현재 57.5㎝)인 관음보살상 1점, 미타도와 고승진영 14점이 적혀 있어 1점의 불화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립박물관 소장본 재산대장에 더 많은 성보물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하여 20세기 전반 갑장사에 봉안되었던 성보물의 현황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사찰에 비하여 많은 성보물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도난 시점을 알 수 없고, 정영호 교수가 간행한 보고서와 최근 조계종에서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에는 관음보살상의 사진이 남아있다. 관음보살좌상은 이목구비가 작고 볼에 살이 오른 얼굴형으로, 미간 사이에 표현된 백호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머리카락은 높게 틀어 올린 보계(寶)와 동심원을 이루며 리본처럼 어깨에서 팔꿈치로 흘러내린 보발은 단정한 편이다. 보관은 양쪽으로 흩날리는 커다란 수식이 달려 있고, 투각된 보관의 중앙에 앉아있는 화불이 있다. 상단 부분이 7개의 산형(山形)으로 처리되었다. 전체적인 신체 비례는 상체가 길고, 하체는 낮고 길게 안정적인 편이다. 가슴에는 다섯 개의 수식이 달린 목걸이를 걸고 있다.

보살상이 입은 변형통견의 대의(大衣)는 목 부분에서 한 번 접혀 양팔을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손목 부분에서 한 번 접히고, 오른쪽 소맷자락은 배 부분의 옷자락 사이에 끼워져 자연스럽게 접혀 있다. 발목 부분에서 부드럽게 중첩된 대의자락은 팔(八)자형으로 무릎을 덮고 무릎 좌우에 영락이 장식되어 있다. 배 부분에는 승각기를 묶은 끈의 리본형으로 매듭지어 있다. 그리고 양 무릎에 소매자락이 흘러내리듯 표현되어 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가슴 앞에 들고 왼손은 복부 앞에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자세를 취하고, 양다리는 길상좌로 오른쪽 발은 왼쪽 다리 위에 올려 자연스럽게 앉아있다. 꺾긴 대의 자락과 함께 노출되어 있다.

갑장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대의자락, 영락의 표현, 보계와 보발, 보관 형태가 거의 유사한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67.5㎝)이 현재 서울에 위치한 사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천주산에 위치한 북장사(北長寺, 일명 北丈寺)도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의 말사이다. 이 사찰은 833년에 진감국사가 창건하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24년에 중건하였다. 1650년에 화재로 전각이 모두 소실되어 서묵 스님과 충운 스님이 중창했다. 그러나 1736년에 다시 화재로 소실되자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장사의 연혁은 남아 있는 〈향승성책(연대 미상)〉과 〈상주 천주산 북장사 사적기(1646)〉에 기록되어 있다. 〈전우영건기〉에는 극락전을 비롯해 화장전 · 명부전 · 대향로전 · 궁현전 · 심검당 · 은현당 · 명월당 · 삼강실 · 원통전 · 육화당 · 명월당 · 적요당 · 백연당 · 향적전 · 황학루 등 그의 20여동의 전각이 세워지고, 법당마다 불상과 불화가 조성되었으며, 여덟 곳의 부속 암자가 있었다고 적혀있어 대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세기 전반 북장사에 소장된 성보물을 알 수 있는 재산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1932년 12월에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유물목록이 있다.

당시 불교조각은 아미타삼존상과 지장보살삼존상, 시왕상 등이 있고, 불화는 미타도, 신중도, 독성도, 산신도가 있다고 적혀 있다. 1932년에 작성된 관보에는 미타회탱은 가로 6척 4촌, 세로 6척 8촌으로 적혀 있어 가로 193.9㎝, 세로 206㎝인 거의 정사각형의 화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불화의 화기는 정영호 교수의 〈상주지역 고적조사보고서〉에 '건륭사십삼년무술(乾隆四十三年戊戌) 원월초오일금릉(元月初五日金陵) 서령황산직지사(西嶺黃山直指寺) 심적암극락세계(深寂庵極樂世界) 구품회정봉안우(九品會幀奉安于)'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극락구품도는 1788년에 경북 금릉 황(악)산 직지사 심적암에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금릉은 현재 김천시이고, 심적암은 대항면 황악산에 있던 직지사의 부속 암자로 현재 남아있지 않고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직지사지(아세아문화사, 1980)〉의 〈금산 직지사 중기(1776)〉, 〈황악산직지사사적〉, 〈금산 황악산 직지사 사적비(1681)〉, 〈금산군 서(西) 황악산 직지사 대법당 중창기(1735)〉에 심적암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불화가 언제 북장사로 이운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화기를 가진 극락구품도가 사립박물관을 걸쳐 개인에게 들어갔다. 기존 불화의 화기를 살펴보면 "乾隆四十三秊戊戌 元月初五日金陵 西嶺黃山直指 深寂菴極樂殿 九品會幀奉安 … 良工 有誠 靜坦 守印 戒 幸活 普仁 若禪 戒仁 …"이라 동일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개인 소장 극락구품도의 규격은 180×192.5㎝이다.

정영호 교수의 보고서에 게재된 사진이 흑백이라서 접근에 한계가 있지만, 개인 소장 극락구품도와 비교해 보면 화면의 형태와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면의 상단 중심에는 아미타불과 그 밑으로 보살상이 배치되고, 결가부좌한 본존과 보살상은 둥근 두광과 신광을 두르고 있다. 그 옆으로 묘사된 전각과 여러 명의 여래와 보살이 무리지어 있고 그 아래 성중들이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극락구품도는 그다지 많이 제작되지 않은 불화로,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유성의 작품이라는 것을 개인 소장 극락구품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화면 구성과 여래와 보살의 배치구도는 1841년에 조성된 대구 동화사 염불암 극락구품도로 계승되었다.

상주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인 갑장사와 북장사에서 도난당한 불상과 불화는 1969년에 정영호 교수가 조사한 자료가 남아있어 도난 이후 행방 추적이 가능하다. 결국 도난 이전의 사진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공개된다면 현재 박물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불상과 불화들이 제작되거나 봉안되었던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사찰을 조사한 연구자들이 촬영한 사진의 수집과 공개가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혜선스님의 목단화

액운을 없애주고 재운을 부르는 길상화

혜선스님은 출가해서 법화경 사경을 수행하는 중 선몽에 선재동자가 나타나 전해주는 목단꽃을 받고 신비스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부처님의 가피로 법화경을 후불로 모시고 목단꽃을 그리면서 법화선원을 개원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목단꽃을 받고 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답니다.
스님께선 매일 축원을 드리면서 열심히 목단꽃을 신도들을 위해 그려주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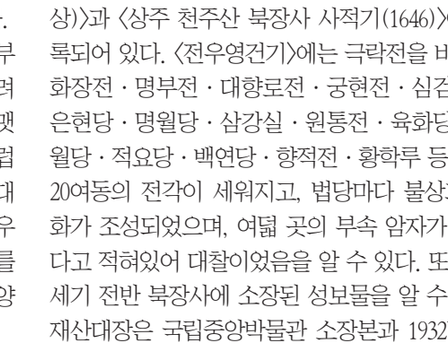
주문하신 불자님께 개인 축원을 드리고 맞춤 목단화를 그려 드립니다

요즘은 전국에서 불자님들이 주문하고 계십니다.
* 판매 수익금은 전액 불사에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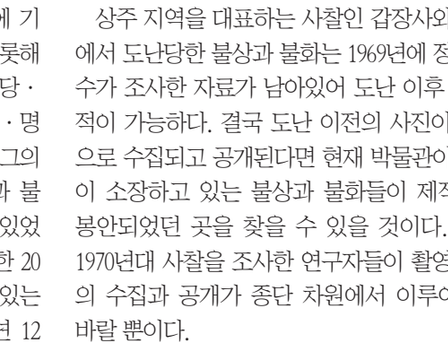
■ 구입처 : 법화선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47-1, 3층)

010-8923-3385. 053)476-3385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8-13-000568-4 (예금주 : 법화선원)
http://blog.naver.com/beophwa3385



▲ 30호



▲ 20호



◀ 40호

시주 무서울수록, 사찰 재정 투명화를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③ 삼보정재(三寶淨財)



사찰의 재물은 정재(淨財)다. 세속의 어떤 재물보다 깨끗하게 모이고 깨끗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찰의 정재는 신도들이 부정하지 않게 정성스럽게 모아서 보시한 재물이다. 그리고 그 정재는 부처님(佛)을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法)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승가(僧)를 위하여 사용되기에 삼보정재(三寶淨財)라고 한다. 불상을 만들거나 불전에 마지(摩旨)를 올리는 것은 부처님을 위해서 정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불서를 출간하고 보급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정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님들의 일상생활과 승려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승가를 위하여 정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재는 신도들이 소중하게 아껴 모은 재물을 보시한 시주물이기에 삼보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사용하더라도 일체의 낭비가 없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 스님들은 '시주물의 무서움'을 가르치셨다.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스님은 사중(寺中)의 물건을 어찌나 아끼는지 구두쇠로 널리 알려질 정도였다. 심지어 공양간에 두고 써야 할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극락암 공양간에서는 구경할 수 없었다. 경봉 스님이 양념 통에 참기름 병까지 당신께서 일일이 간수하시며, "적게 써라", "조금만 넣어라", "한 방울만 쳐라"라고 노래를 부르듯 하신 것이다. 시주물로 들어온 것이니 쌀 한 톨, 고춧가루 하나, 배춧잎 한 장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참된 수행자라는게 경봉 스님의 가르침이었다.

〈무소유〉로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과 그의 스승인 효봉 스님의 일화에서도 시주물에 대한 스님들의 엄중한 경계를 알 수 있다. 어느 날엔가 법정 스님이 설거지를 하는데 밥풀과 시래기를 흘렸다. 그런데 효봉 스님이 그것을 건져먹으며, "자신들이 장사해서 번 것도 아니고 신도들이 정성으로 시주한 것을 버리면 안 된다"고 크게 나무라셨고, 법정 스님은 스스로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밥 한 톨, 시래기 한 조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신도의 정성 자체로 보고 귀히 여긴 것이다.

시주물의 엄중함에 대한 일화는 성철 스님과 그의 상좌인 원택 스님의 일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원택 스님이 백련암에서 공양주를 하던 시절, 신도가 연필이라도 사서 쓰시라고 하면서 시줏돈 500원을 두고 갔다. 그런데 그 순간 원택 스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팁을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팁을 받는 신세가 되었구나"라는 묘한 심정이 들었다. 이에 원주 스님에게 "어떤 보살이 팁 500원을 놓고 갔심더"라고 말하고 전해드렸다. 그리고 얼마 뒤 성철 스님이 원택 스님을 호출하였다.

"이놈아, 팁이란 말이 뭐꼬?"

"세속에서, 음식점 같은 데서 음식을 먹고 나면 감사하다는 뜻으로 음식을 먹고 나면 감사하다는 뜻으로 주는 잔돈을 팁이라고 합니다."

"임마, 그런 게 팁이라는 거 몰라서 묻는 줄 아나, 이 쌍놈아!"

성철 스님의 꾸지람 속 가르침은 계속된다.

"팁 받는 주제에 꼴좋다. 이놈아. 그 돈은 팁이 아니라 시줏돈이다. 시줏돈! 신도가 니 한테 수고했다고 팁 준 것이 아니라, 스님이도 닦는데 쓰라고 시주한 돈이란 말이다. 그걸 팁이라고 똑똑한 체하니 저거 언제 속물이 빠질란고. 허어 참!"

이렇게 시줏돈이 무엇인지를 매섭게 가르치신 후 그 용법을 또한 엄하게 말씀하셨다.

"절에 있으면 더러 신도들이 시주랍시고 너거들한테 돈을 주고 가는 모양인데. 그건 너거 개인 돈이 아니라 절에 들어온 시주물이데이. 그러니 원주에게 줘 공동으로 써야 하는 것인 기라. 그리고 시주물 받기를 독화살 피하듯 하라는 옛 스님의 간곡한 말씀이 있으니 앞으로 명심하고 살아야 한데이. 이놈 오늘 팁 받아서 니 주머니에 넣었다면 당장 내쫓았을 긴데…."

상좌에게 시주물이 무엇인지 시줏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스승의 서릿발 같은 가르침이다.

시주물과 시줏돈, 즉 삼보정재에 얽힌 어른 스님들의 일화 속에서 정재가 신도의 정성이 어린 보시물이며, 그것은 삼보를 위하여 쓰여야 하는 공동의 재화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삼보정재의 성격을 망각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 나아가 망실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음도 부인할 수 없다. 삼보정재를 개인 소유로 하면 어떻게 망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례(實例)를 소개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한다.

성철 스님의 서릿발 가르침
"시주물, 독화살 받듯 피해야"
개인소유시 망실 위험 높아
공동 재화로 공심으로 써야

불교종단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모 스님이 있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입적했을 때 삼보정재가 속가의 지인들에게 상속되면서 망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스님은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사찰의 주지이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었다. 그 사찰과 법인은 은사 스님과 신도들이 원력이 모인 삼보정재였다. 그 스님이 속한 종단은 삼보정재의 망실을 방지하고자, 승려 자신이 사망시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스님은 사찰과 법인 등 삼보정재를 개인의 것으로 간주하고, 소속 종단에 재산 출연 유언장을 제출한 후 다시 '자신의 사망 시 모든 것을 속가의 특정 지인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놓았다. 세속법상 유언장은 나중에 작성한 것이 효력을 발생하므로 종단에 제출한 이전의 유언장은 무효가 되고 삼보정재인 사찰과 법인은 속가 지인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은사 스님과 신도들의 오랜 원력이 담긴 수십억 원의 삼보정재가 한 스님의 욕망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순식간에 망실되어버린 것이다.

눈 밝은 혹자는 사회복지법인은 해산하면 그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므로 개인이 소유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 생각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속가의 특정 지인이 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불교계 이사들은 임기만료와 함께 물러나게 되었고 그 자리는 개신교계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개신교 인사들이 삼보를 위하여 정재를 사용할리는 없지 않는가. 비록 법인의 재산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삼보정재가 망실된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삼보정재를 관리하여야 망실을 방지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사찰 재정의 투명화이다. 사찰 재정의 투명화란 사찰의 재정을 신도 혹은 일반에게 공개하여 그 용처가 삼보를 위하여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재정의 불투명은 소수의 구성원에게만 재정이 공개되고 구성원 다수 또는 외부에는 비공개하는 것으로써 부패를 초래할 여지가 많다. 그 재정이 정재라고 할지라도 그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주지 등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신도 일반에게는 알리지 않는다면 역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찰의 재정 운용이 사중의 스님뿐만 아니라 신도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삼보정재로서의 용처에 맞지 않는 지출은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 사찰의 재정은 신도는 배제한 채 주지 등 소수의 스님들에 의해서만 운용되고 있거나, 혹여 신도가 참여하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신도의 참여는 스님의 자의적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재가신도가 사찰 운영, 특히 재정 운용에 참여하는 것은 승가의 반감을 유발할 여지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재가 승려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삼보를 위하여 여법(如法)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재가신도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한국불교의 주요 종단들은 사찰 재정 투명화를 위하여 〈사찰예산회계법〉, 〈사찰운영위원회법〉 등 종법령의 제 ·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사찰의 재정을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신도들의 사찰 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이와 같은 사찰 재정의 공개와 사찰 운영의 신도 참여 보장은 사찰과 승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 사찰 재정이 확대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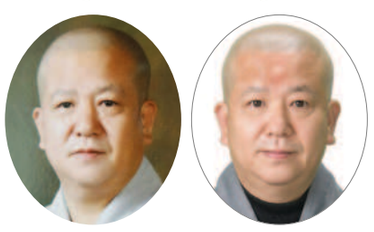
하지만 종헌 · 종법 등의 제도는 아무리 잘 정비하더라도 법적 미비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삼보정재를 대하는 승가의 여법한 가치관 정립이 근본적 과제이자 방안이다. 공양이나 시주물을 독약이나 독화살처럼 생각하여 자신을 살피고 그 과보를 알아 함부로 받아쓰지 말 것을 권하는 옛 스님들의 말씀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故曰 道人 進食如進毒 受施如受箭 幣厚言甘 道人所畏
(고왈 도인 진식여진독 수시여수전 폐후언감 도인소외)

그러므로 말하기를 '도를 닦는 사람은 음식 먹기를 독약 먹듯이 하며, 시주 받기를 화살을 받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한다. 예물이 두텁거나 말이 달콤한 것은 도를 닦는 사람이 두려워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가귀감(禪家龜鑑)〉의 이 구절은 정재의 사용을 무섭게 경계하고 있다. 스님의 자의이든 신도의 권유이든, 비구는 신도의 신심과 원력이 정성스럽게 담긴 정재를 삼보가 아닌 개인의 욕구와 욕심을 위하여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승가 자신을 위해서 쓸지라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아끼고 아껴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재를 쓰는 것은 도과(道果)를 잃는 독약을 먹는 것이며 화살을 받는 것임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을 치세요!
인터넷동영상강좌 평생교육원 대통인.com
온라인 인터넷 동영상강의보기 사이트
수강상담 전화
1661-6551
(24시간 접수 중)
인터넷 동영상 수강 과목
명리학 | 구성학 | 기문둔갑
매화역수 | 구성학 | 수상
육효 | 육임 | 주역
타로 | 물상명리 | 풍수지리
성명학 | 수맥 | 팔체질
꿈해몽 | 생활풍수 | 사자서학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공부해서 좋다.
• 역학의 모든 과목을 실력있는 강사에게 배운다.
• 누구나 저비용으로 반복하며 전 과목을 공부한다.
• 누구나 공부하면 빠른시일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학술원을 치세요!
오프라인강좌수강! 전국공개강의 알리미 사이트 대통인학술원.com
오프라인 인터넷 공개강의보기 사이트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상담 전화
1833-9551
(24시간 접수 중)
현재 오프라인 수강생모집 과목
명리학 | 구성학 | 유니버셜타로실전
자연물상명리 | 수암명리 | 수맥,팔체질건강법
생활풍수와천문지리 | 생활속에사주명리 | 매화역수
명리타로 | 영가견법 | 주역점
•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대통인학술원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공개강의 공지를 자세히 보세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22번지 흥도빌딩 3층 301호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출구 30m)
(자가용 → 영등포구 구의회옆 당산공영주차장 이용)

“단하천연, 드디어 목불 쪼개 불을 피우다”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④ 반권위, 허상 타파 운동 전개



그림 · 강병호

‘임제할’ ‘덕산방‘ 중국천하를 평정하다

임제의현에 이어 두 번 째로 ‘반권위, 허상 타파 운동’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선승은 덕산선감(德山宣鑑, 782~865)이다. 그는 ‘덕산방’으로 유명한 선승으로 ‘임제할’과 함께 기봉(機鋒, 예리한 방법으로 선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의 쌍벽을 이루었다. 임제는 ‘할’로 덕산은 ’방‘으로 중국천하를 평정했다. 그는 상당하여 다음과 같이 법문했다.

“나의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달마는 늙은 누린내 나는 오랑캐고, 십지보살은 똥통을 멘 놈들이고, 등각과 묘각은 파계한 범부고, 보리와 열반은 나귀를 묶는 흔한 말뚝에 불과하고, 12분교(경전)는 귀신들의 이름을 나열한 명부(名簿)이고 고름 닦는 종이이며, 부처란 늙은 오랑캐들의 밑 닦는 막대기(간시궐)이다(一日上堂云. 我這裡, 佛也無, 法也無. 達摩是個老 胡. 十地菩薩, 是擔糞漢. 等妙二覺, 是破戒凡夫, 菩提涅槃, 是繫驢橛. 十二分教, 是點鬼簿, 拭瘡紙. 佛是老胡屎橛).”

선승다운 놀라운 기개이다.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기상이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의 이름을 적은 명부(名簿)에 불과하고, ‘부처’라고 하는 것은 늙은 오랑캐들이 대변(똥)을 닦을 때 사용하는 막대기(간시궐)에 불과하고, ‘보리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나귀를 묶어두는 흔한 말뚝에 불과하다니, 덕산의 법문 수위는 임제의 ‘살불살조’를 무색케 했다. 적어도 임제의현 보다는 ‘두세 수’ 위였다.

이 법문의 핵심은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佛也無, 法也無)’에 있다. ‘부처가 되겠다.’고 집착하는 불박(佛縛)과 ‘불법을 깨닫겠다.’고 집착하는 법박(法縛)에 구속되어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법문의 메시지이다.

‘임제할’과 ‘덕산방’이 맞붙다

임제와 덕산은 세칭 ‘임제할,’ ‘덕산방’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당시 중국 선원총림에서는 기봉(機鋒, 예리한 언동으로 선을 보여줌)으로는 쌍벽을 이루는 선승이었다. 두 선승은 몰년(沒年)도 2년 차이(덕산 782-865년, 임제 867년) 밖에 나지 않는다. ‘임제할’과 ‘덕산방’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할’이 이길까? ‘방’이 이길까? 〈임제록〉에는 ‘방’과 ‘할’이 한바탕 맞붙은 법거량 장면이 나온다.

“임제가 덕산화상을 모시고 서 있었다. 덕산화상이 말했다. ‘오늘은 피곤하군’ 임제가 말했다. ‘이 노장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소.’ 덕산이 곧바로 방망이로 쳤다. 그러자 임제는 덕산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덕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師侍立德山次. 山云. 今日困.師云. 這老漢寐語作什 . 山便打. 師倒繩床. 山便休).”

이 장면은 덕산이 법문을 하기 위하여 법당에 올라갔고 마침 임제가 대중들과 함께 그를 모시고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참이었다. 그런데 “사(임제) 시립덕산차(師侍立德山次, 임제가 덕산을 모시고 서서 법문을 듣다)”를 본다면 임제보다는 덕산이 10세 이상은 위였다고 보여 진다. 덕산은 83세를 살았다.

그런데 난 데 없이 덕산이 오늘은 피곤해서 법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와일드한 임제는 거침없이 “이 노장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하고 큰 소리 치자, 덕산은 그 유명한 ‘방’을 한방 휘둘렀다. 피곤하다는 덕산이 갑자기 방망이를 휘둘렀으니 본색(즉 底意저의)은 드러난 것이다. 임제가 그 때 바로 ‘할’을 했더라면 기막히는 장면이 연출되었을 텐데, 의자를 넘어뜨렸으니, 기대보다는 좀 싱겁게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덕산방’과 ‘임제할’이 맞붙었다면 각각 ‘방과 할’이 3-4회 정도는 오갔어야 드라마틱한데, 겨우 한 번 정도, 우리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단하천연, 목불을 쪼개서 불을 피우다

세 번 째로 ‘반권위 허상 타파 운동’에 나선 선승은 ‘단하소불(丹霞燒佛, 단하선사가 목불을 태우다)’로 유명한 단하천연(丹霞天然, 739-824)이다. 그의 이름은 멋있다. ‘붉은 저녁 놀/노을)[丹霞].’ 석두희천의 제자로 백장회해와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승이다. 그 계통들이 조동종이다.

그가 어느 날 운수행각(만행)을 하다가 낙양에 있는 혜림사(慧林寺) 객실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당시 낙양은 장안과 함께 양경(兩京, 수도가 두 개) 체제의 당나라 도읍이었다. 아마도 동안거 해제를 하자마자 만행을 떠났던 모양이다. 추운 겨울, 객실은 차가운 냉골이었다. 그는 대웅전에 올라가서 금색 목불(木佛)을 들어다가 도끼로 쪼개서 불을 피웠다. 불꽃이 한창 좋을 때 쯤 원주스님이 맨발로 쫓아 나왔다.

임제이어 덕산 · 단하 등장
덕산, 임제보다 수위 높아
단하, 불상 뗄감으로 태워
관념의 벽 부수기 위한 방편

“이봐요, 객승! 불상을 쪼개서 불을 피우다니 미쳤소?”

이때 단하선사가 막대기로 재를 뒤지면서 말했다.

“목불을 다비(화장)해서 사리를 얻고자 해서입니다.”

원주스님이 다시 노발대발 말했다.

“정신이 나갔소. 목불인데 어떻게 사리가 나올 수 있겠소?”

“사리가 없다면 나무토막이지 어찌 부처라고 할 수 있겠소? 원주스님, 좌우 두 보처불(補處佛)도 마저 불 때 버립시다.”

그가 혜림사로 가서 목불을 쪼개서 불 피운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당시 낙양 일대는 많은 불교 종파와 사찰이 집중해 있었는데, 일년 내내 수륙제, 천도재 등 각종 행사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단하소불은 이에 대한 경종(警鐘)을 울려 주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었다. 선불교가 율종 사찰로부터 독립하여 시주 단련을 하지 않고 울력으로 자급자족을 하고자 했던 이유도 당시 낙양 사찰들의 모습에 기인한다.

단하천연이 목불을 쪼개서 불을 땔 수 있는 행동의 사상적 바탕은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 그 사상적 정신적 뒷받침은 〈금강경〉, 〈화엄경〉, 〈유마경〉 등 대승경전에 바탕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적 뒷받침은 ‘중국문명의 자부심’ 즉 ‘중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단하소불(丹霞燒佛)’ 공안은 소설가 김동리의 ‘등신불’을 통해서 일찍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문학작품이기도 하다. 필자는 15세 때 어느 스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두근거린 적이 있어서 잊지 못한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간시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참구하고 있는 화두 가운데 ‘간시궐,’ ‘마삼근’ ‘정전백수자’가 있다. 이를 보면 ‘반권위 허상 타파 주의’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납자가 운문선사(864-949)에게 여쭈었다.

“선사, 무엇이 부처입니까(如何是佛)”

운문선사가 답했다.

“간시궐(乾屎橛 · 똥 치우는 마른 막대기).”

또 어떤 납자가 동산수초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如何是佛)”

동산이 대답했다.

“마삼근(麻三斤 · 삼 세근)”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정전백수자(마당 앞의 잣나무)”

여기서 부처는 박살나 버렸다.

‘간시궐(乾屎橛)’이란 ‘똥 치우는 마른 막대기’인데, 구체적으로는 선원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난 다음 1차적으로 닦아 내는 과도(果刀) 칼처럼 생긴 대나무 조각이다. 그것을 측주(厠籌) · 측궐(厠橛)이라고 한다. 사용 후 세척해서 말린 것을 ‘정주(淨籌)’ 또는 ‘간시궐(乾屎橛)’이라고 하고 사용한 것을 ‘촉주(觸籌)’라고 한다. 이걸로 1차 닦아 낸 뒤에 물로 세척한다.

조사선의 정신을 상징하는 ‘살불살조(殺佛殺祖,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가불매조(呵佛罵祖, 부처도 꾸짖고 조사도 꾸짖는다).’ ‘초불월조(超佛越祖, 부처도 뛰어 넘고 조사도 뛰어넘는다),’ 그리고 ‘단하소불’ 등은 모두 ‘부처라고 하는 속박[佛縛],’ ‘법이라고 하는 속박[法縛]’ 등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난 절대자유의 경지를 말한다.

그리고 간시궐, 마삼근, 정전백수자는 부처는 성스럽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본래면목을 직시하기 위한 것이다. 장막에 가려서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환상을 갖고 있는 한 속박될 수밖에 없다. 먼 발치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날부터 상사병에 걸린다. 그런데 이따금씩 간혹 마주친다. 눈을 감아도 그 여인이 아른거려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공부도 싫고 돈도 싫다. 음식 맛도 없다. 그것이 미인의 속박[美縛]이다. 돈에 억매이면 돈박[金縛]이고, 명예에 사로잡히면 명박(名縛)이다.

살불살조, 간시궐 등 파격적인 선어들은 모두 다 부처나 조사에 대한 속박과 권위 부정을 통해서 절대적인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방편적인 언어들이다. 불(佛)과 조사에 대한 우상의 벽, 관념의 벽을 부수기 위한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방법일 뿐,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 뱉은 말이 아님을 절대 독자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즉심시불(卽心是佛, 마음이 곧 부처)’라든가,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있지 않다(心外無佛)’라든가, 또는 ‘지위 없는 참사람(無位眞人)’,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등도 모두 권위나 고정관념을 타파시키기 위한 방편적인 언어에 불과하다. 거기에 무슨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과대 망상증에 걸리면 삼천포다.

謹賀新年

사단법인 해동불교약사종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전법도생과 자비공생을 함께 하실 제방의 인연을 모십니다

宗 상구보리(上求菩提)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하고
旨 하화중생(下化衆生)은 전법도생(傳法度生) 자비공생(慈悲共生)한다.

선교겸수(禪敎兼修) 수행하면서
약사경을 소의경전으로 수지 독송하고
투철한 약사신앙을 실천하는 불교
그 맥을 정립하여

절(寺)에 오고 가는 뭇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고통이 사라지고 심중소구 원만하며
스님을 친견하면 희망을 담아가는 곳.

유구(悠久)한 전법도생 가람으로 만들면서
우리 서로 화합하여 종단으로 맺어지면
안락하고 여유롭고 서로 돕는 자비공생의 사회

이것이 불국정토 아니겠는가!

❶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전법도생하고 구도자로서 수행하며 자비공생하는 호국불교, 천년의 맥을 이어갈 약사종 종도를 기다립니다.
❷ 한번쯤 출가를 생각 하셨던 분. 또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원만하지 못하고 막연하신 분. 알맞은 길, 큰 길로 인도합니다.
❸ 종파(宗派) 신분(身分)을 초월하여 본 종단의 종지와 사업에 관심있게 일조할 강호제현 인사를 특별자문위원으로 모십니다.

◆ 1차 구비서류
❶ 주민등록 등본 1통 / ❷ 이력서 1통 / ❸ 사진 2매

◆ 종단 사업
❶ 삼보호지 약사신앙 등 불교홍포사업
❷ 불교교학 연수 등 교육사업
❸ 사원 및 포교원설치 관리사업
❹ 교재편찬 기관지 및 출판사업
❺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❻ 승려 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❼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사)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합장

총무원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4-2270 / 팩스 031)584-2269 / 총무원장 010-8981-7908

꿈꾸는 이들에게 하는 부처님의 당부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⑥ 합리적이며 올바른 행위 경

앙굿따라니까야 (A4:61)

〈증일아함〉은 담마난제와 승가제바가 번역했으나 현재는 승가제바의 번역만 남아있다. 51권 52품이 있고, 〈앙굿따라니까야〉는 2,198 혹은 7,231 또는 2,344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1부터 11까지 법수(法數)로 분류하였고 시간이 지날 때 마다 더 추가되어 증일(增一)이라 부른다. 즉, 4가 들어가는 사성제, 사념처, 4가지의 짐, 4종류의 사람, 등으로 사성제를 설명하기 위해 넓고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독립된 이야기들이 숫자대로 분류되어져 있다. 법문자료로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자료다. 그 중에 앙굿따라니까야에서 고른 〈합리적이며 올바른 행위 경〉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불자로 살아간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합리적이며 올바른 행위 경〉

급고독장자는 매일 아침 기원정사로 가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었다. 장자가 찾아와 인사하자 부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설법하신다.

"장자여, 4가지 법들이 있으니 그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바로 법답게 재물을 얻고, 친척과 스승들에게 명성을 얻고, 수명장수하고, 죽으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장자여, 이처럼 원하지만 이루기 어려운 법을 모두 성취하려면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믿음을 구족하고, 계행을 구족하고, 보시하려는 마음을 구족하고, 지혜(통찰지)를 구족하는 것이다." 믿음, 계행, 보시, 지혜의 4가지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첫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바로 여래의 깨달음에 대한 흔들림없는 믿음(信)을 지녀야 한다.

둘째는 계행을 구족한다는 것은 오계를 지키는 것이다. 생명을 죽이지 않으며, 훔치지 말며, 삿된 음행을 멀리여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과 중독성 있는 물질을 끊는 것이다.

셋째는 보시의 마음을 구족한다는 것은 베푸는 삶이다.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주고 난 뒤에는 잊어버리며, 항상 주는 것을 즐겨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지혜를 구족한다는 것은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지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쌓아온 명성과 행복이 한순간 사라진다. 본래 청정한 마음을 더럽히는 강력한 탐욕을 제거하고, 악의, 게으름, 들뜸과 후회, 의심하게 하는 마음의 오염 원인(五障)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재산과 명성과 장수와 극락의 삶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가자는 적법하게 벌어들인 재산으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행하며 합리적이며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한다.

첫째는 부양의무를 다하라.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들과 종업과, 친구, 친척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만족을 주어야 한다. 둘째는 재산을 보호하라. 물, 불, 왕, 도둑, 적과 나쁜 마음 가진 상속자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정당하게 소유한 재산을 낭비하거나 잘못된 투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셋째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라. 친지, 손님, 조상신, 국가에 내는 세금과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라.

넷째는 종교인을 후원하라.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수행자들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마라. 보시는 우리에게 고귀한 결말을 가져다주며 행복이 늘어나 극락에 태어난다고 한다.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이들이 만약 정당한 재산을 지녔다면 떳떳하게 모두에게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또, 수행자를 후원함으로 세상을 맑히고 있을 테니 그는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재물, 명성, 장수, 극락의 삶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무슨 생각이든 부처님께 바치면 된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⑤ 금강경 제 3분

내 마음 속에는 우주의 이치를 막연히 알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아 우리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천하의 공자님이나 아인슈타인이라도 미치치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마음 속에 누군가 낫다 혹은 누군가 못하다라고 비교 분석하는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쳐야 한다. 네가 나에게 묻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밝은 사람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선지식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거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매우 졸리면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각종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당연히 부처님께 바쳐라. 왜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칠 때 아니됨이 사라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모른다는 생각을 바칠 때 모를 것이 없어져 다 알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년 전 금강경 제 3분 대승정종분에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부처님께 바치면 다 된다, 다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3분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이 응당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나니 이른바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리라 하라.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이없이 많은 중생을 다 제도하였다 하더라도 실로 제도 받은 중생이 없느니라.'

부처님은 다 되는 방법 다 아는 방법, 즉 부처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전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였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은 물론 실천하여 부처님이 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자. 알로 까는 중생(若卵生)의 이면의 뜻은 배신하는 마음이요, 태로 낳는 중생(若胎生)의 이면은 의지하는 마음이었다. 불립문자라(不立文字)는 말씀이 있듯 〈금강경〉을 이처럼 문자가 아닌 그 이면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금강경〉 가르침은 이해가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밝은 이가 보면, 배신하는 마음을 연습한 결과 새나 뱀 등은 알로 까는 보를 받게 되는 것이며, 의지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태를 빌어나 낳는 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 '我皆令入無餘涅槃 而滅度之'는 '이런 모든 중생심을 부처님 만들겠다고 하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면 금강경 제 3분은 '그대들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들 중 가령 배반하는 마음, 배은망덕 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나 또 숨거나 피하고 싶은 생각(若濕生)이나, 잘난 척하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화생(化生) 등 이런 가지가지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모든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쳐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올라오는 가지가지의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칠 때 실무중생득멸도자(實無衆生得滅度者)가 된다 하셨는데 이는 무슨 뜻이냐? '실무중생 득멸도자'란 즉 한 중생도 제도받은 자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다. 한 중생도 제도 받은 자가 없다는 것은 수많은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치다보니 마음 밖에 존재하는 중생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된다는 뜻도 되고, 마음속의 중생, 즉 배신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숨는 마음 등(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등)의 분별심이 착각이요, 본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뜻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부처님께서는 무슨 생각이든지 그 생각을 가지지 말고 부처님께 바쳐라 하신 것이었다.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침으로 중생들 마음속의 각종 중생심이 착각이요 본래 없음을 알게 된다면 가짜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탕자로 살아 왔던 삶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일상에서 '이뭣고'를 굴려 써라

참 마음은 우리의 본원이고 생명의 원천이다. 즉 일체 만법이 모두 다 이 마음에 있다는 말이다. 한 법도 만들어 지기 이전의 본래 마음은 모양도 없고 방위와 처소도 없지만, 인연 따라 온갖 작용을 베푼다.

'미고삼계성(迷古三界城) 오고십방공(悟古十方空)'이라고 했다. 중생이 미(迷)하면 삼계가 성(城)이지만 깨치면 동서남북이 사라진 십방이 공(空)인 것이다. 상(相) 놀음에 젖어 있는 중생들은 이 말을 알아 듣기가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계합이 돼야지, 생각으로 헤아리면 즉시 어긋난다. 진여자성의 마음자리를 무심 또는 공성이라 하는데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범부의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마음은 뿌리요 법은 티끌이니 마치 거울에 묻어있을 때의 흔적과 같다. 이것이 제거돼야 비로소 생사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당당한 대도(大道)는 대단히 밝고 분명해 사람마다 본래 구족해 있고 원만히 이루어져 있지만, 다만 한 생각으로 인해 만 가지 모양을 나타낸다.

세간은 환화(幻化)이며 일체는 무상한 객진이다. 오직 태허공의 체만 있으니, 그 자리에는 형색과 소리를 두지 못하며 털끝만큼의 먼지도 세우지 못한다. 만약 부처님과 조사를 초월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한 생각마다 공적(空寂)해야 한다. 우리의 식심(識心)으로 구분하는 것은 모두 전도몽상이고 '이 뭣고'로 관조(觀照)해 보면 '있다' '없다'를 떠난 진여실상의 반야지혜 자리이다.

마음 떠난 일체의 상(相)은 생멸 있고 무상한 것
업식 벗어나면 마음과 부처와 모든 중생이 무차별

마음 떠난 일체의 상(相)은 무자성의 연생법이어서 생멸이 있고, 무상한 것이다. 우리의 몸뚱이도 자성이 없고 허망한 것이어서 인연이 다하면 놓고 가는 것이고, 죄(罪) 또한 무자성이라서 부처님 당시 99명을 죽인 앙굴리마라도 참회하고 부처님 제자가 됐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선재동자가 구도여행 중에 찾아가는 53선지식 중에 창녀 바수밀다도 선지식으로 나온다. 물론 중생의 욕망에 따라 몸을 나타내 제도한 보살의 화신이지만, 업식에서 벗어나면 마음과 부처와 모든 중생이 차별 없는 본래 부처인 것이다.

요견삼세제불마(要見三世諸佛)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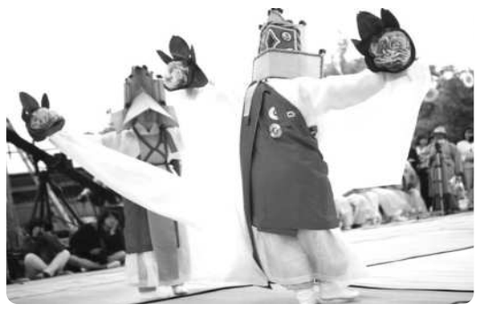
연하휘해갈(沿河休解渴) 파병막언기(把餠莫言饑)이라, 즉 "큰 강을 따라 내려가며 목마르다 하지 말고, 떡을 손에 쥐고 있으며 배고프다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모든 부처님이나 조사와 팔만사천 법문도 모두 반야바라밀을 의지해 밖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니, 이 반야를 믿고 '이 뭣고'로 쓰는 것이 불행이며 대신통인 것이며, 오직 모르고 모를 뿐인 당처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이 '이 뭣고'인 것이다.

또한 반야의 반대가 무명인데, 중생의 생각으로 구분하는 식심을 '이뭣고' 수행으로 반야지로 바꾸는 것을 망상을 여읜다고 한다. 우리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화날때 그 마음이 경계에 끌려가거나 따라 가지 말고 그 순간 알아차리고 바로 '이뭣고' 하면 홍로일점설(紅爐一点雪)이란 말처럼, 붉은 화로에 눈 한 송이가 떨어져 녹아 버리듯 내 안의 용광로가 분별망심을 다 녹여 주며, 빌지 않아도 만사형통은 자동으로 이루어져 업장소멸 된다.

'보리자성본래청정(菩提自性本來淸淨) 단용차심즉료성불(但用此心卽了成佛)'인 말처럼, 우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여의보주(如意寶珠)인 '이뭣고'를 생활속에서 굴려쓰면 그대로 부처인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 12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8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및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3월 13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수필로 읽는 금강경 나는 나다

섬휘 지음/불교시대사 펴냄/1만 6천원

알 듯 모를 듯한 〈금강경〉은 이해하기 힘든 부처님 말씀이다. 어느 정도 불교를 이해한다는 사람들도 막상 책을 집어 들면 정신이 몽롱해지며 독해하기 힘들어진다. 32분으로 되어 있는 〈금강경〉은 반야지혜를 설명한 말씀으로, 중생들의 삶을 좀 더 부처로 가는 길로 안내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공만 맴돌 뿐이다.

이 책은 그런 〈금강경〉을 조금이라도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읽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 수필 형식을 빌려 설명했다. 부처님 말씀처럼 경험을 하고 중생들을 이끄는 경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인간으로서 최상의 경지를 보여준 부처님 말씀에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만큼 진리만을 설했기 때문이다. 진리란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기에 많은 중생들이 따르고 부처로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금강경〉은 32 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분명한 것은 각 단원마다 정확한 길을 제시한 것이다. 법회를 여는 이유로 시작해서 육바라밀을 설명하고 중생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덕목들을 설했다. 중생이 지혜가 열리는 날이 부처를 이루는 날인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완성된 인간이 된 것이다.

〈금강경〉은 바로 그런 부처님의 경험과 체험을 설명한 경전이다. 모든 삶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존재의 근원에는 거대한 우주의 법칙이 작동한다.

김주일 기자

"수행에는 오직 '정성' 만이 필요"



미타행자의 염불수행 이야기

본연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바른 수행에 대한 글도 수행자도 많지만, 생계를 꾸려가며 가족을 돌봐야 하는 평범한 재가불자들이 따르기 쉬운 길은 찾기 쉽지 않다. 수행법 가운데 가장 쉽다고 불리는 것이 염불수행이지만, 자신이 바르게 하는지 확신을 갖기 어렵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정진하려고 해도 길이 환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 되지는 않았는지?" 등등 의심스럽고 걱정될 때도 있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도 많은데 이 따분한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보다 근원적인 회의가 들 때도 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함을 믿고 따르며 수행하는 이들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힘을 돋워줄 도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아함경〉에서 이르시길, "좋은 도반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고 수행의 전부"라고 하셨다.

염불선으로 근현대에 그 이름이 가장 드높은 청화 스님(1924~2003)의 상좌이자 출가할 때부터 염불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본연 스님이 친근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 곁에서 그 길을 일러준다. 스님은 제주시 항파두리 근처에 작은 수행도량을 세우고 수행하고 울력하며, 나날의 소회를 진솔하게 적어 우리에게 전한다. 멀리서 소식을 전하지만 누구보다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글은 앞서 길을 걸어간 도반이 내밀어주는 따뜻한 손길과 같다.

홀로 법당서 기도하고, 홀로 텃밭서 울력하고, 손수 공양을 지어 홀로 수저를 들지만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염불 올릴 수 있음에 환희하고 믹스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에 행복을 느끼는 청빈한 스님이 틈틈이 떠오르는 생각과 일상을 기록했다.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바른 염불수행인지?, 또한 수행이 익었음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참 행복은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왜 지금 당장 수행해야 하고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지? 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업장이 소멸되는지? 천도재는 왜 올려야 하는지? 일상에 바쁜 재가자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등등 재가불자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것들을 누구보다 진솔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이야기한다.

지금 일구는 무주선원서 올린 천일기도만 헤아려 보아도 이미 네 차례이다. 염불수행 이력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스님은 말한다. 진리는 단순하면서 평범하다고, 염불수행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또한 불교학 박사가 되려면 팔만대장경을 모두 읽고 분석해야 하지만, 마음을 닦으며 수행하면 '정성(精誠)' 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을 선택했으면 그 수행을 '정성스럽게' 이어나가라고 한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도중에 포기하거나 나태해지는 일뿐이니 조바심 내지 말고 그저 '정성스럽게' 수행을 이어나가면 된다며 우리를 토닥인다.

화려한 논리나 복잡한 이론보다 빛나며 강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한 실천이다. 스님은 우리 삶에서 깨우친 것을 전하며 말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해온 것은 지난 과거에 쌓은 업장을 녹이고, 다음 생에도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과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다" "이름 없는 고혼에게 올리는 작은 천도재조차 공덕이 되니 작은 일에서도 보리심을 잃지 말라" "하루 일과 속 앉고 서고 행하는 모든 일에 정성이 깃들게 하면 미물조차 감동시킬 수 있으며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진리는 생각이나 말 속에 있지 않고 몸에 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니다" 등등.

청화 스님 제자인 저자, 제주 도량서 정진 중
"좋은 도반은 수행의 절반이 아닌 전부다"
재가불자라면 궁금해할 것들 진솔히 소개

올곧고 청빈한 스님의 진심이 담긴 글은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솟는다. 책 곳곳에 은사인 청화 큰스님과의 일화와 월인 노스님 등 여러 스님들의 수행담을 전하며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열심히 수행할 것을 권한다. 조바심 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염불 한 번이라도 정성스럽게 지어가는 것, 그리고 보리심을 키우고 늘 보시를 실천하며 삼독심을 버리는 것. 스님이 전하는 올바른 수행의 길(道)이다.

저자 본연 스님은?

본연은 전남 곡성 태안사로 출가했을 때 평생을 하루같이 용맹정진하다 열반한 청화 큰스님(1923-2003)께서 스승과 제자 간의 인연을 맺으면서 내려주신 법명이다. 미타행자는 염불 수행하는 사제를 격려키 위해 사형스님이 지어준 별호(別號)이다. 승보종찰 송광사 강원서 4년간 경전 공부하고 비구계를 수지한 뒤 기도처와 선원을 오가며 정진하던 중, 큰스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2003년 서귀포 성산 자성원 주지를 자청해 4년간 기도하며 차 밭과 텃밭을 가꾸고 살면서 제주도와 인연이 시작됐다. 주지 소임을 놓은 뒤 다시 선원과 기도처를 찾아다니며 수행했으며, 2012년부터는 제주시 항파두리 근처 자그마한 수행도량 무주선원(無住禪苑)을 열어 수행과 울력으로 극락도량을 일구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부처의 모습



그대, 오직 그대의 행복을 바란다

정재권 지음
바람의독수리 펴냄
1만 5천원

故 스티브 잡스 등 해외 유명 인사들이 평소 명상을 즐겼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종교적 느낌이 강했던 명상은 이제 대중 속으로 깊이 자리 잡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 인터넷과 앱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은 일반인들도 쉽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다. 특히 이 가운데 블로그를 통해 쉽게 명상을 전파하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바람의 독수리'라는 필명으로 '사주 운명 그리고 禪으로의 초대' 블로그를 운영하는 정재권 작가다. 그의 블로그에는 명상 · 정화 · 동양철학 · 영성 분야의 내용을 다룬 6500여 개의 글들이 게재돼 있으며, 매일 5천~1만 여 명 정도가 그의 블로그를 방문한다.

저자는 최근 명상과 정화에 대한 내용을 다룬 〈그대, 오직 그대의 행복을 바란다〉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2010년부터 저자가 일상서 깨달은 삶의 통찰과 명상, 정화에 관한 글들을 묶은 것이다.

저자는 히말라야와 인도, 오쇼 센터 등서 다양한 수행과 명상을 하던 중 자연스런 존재의 흐름을 좇아 스리랑카로 갔고, 1995년 12월 스리랑카 산중사원에서 4개의 샘을 정화하는 체험을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모든 인간은 신(부처)을 닮았다. 그래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깨달으면 전지전능해 질 것이라고 상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신은 어떤 요구도 필요 없이 아이처럼 천진무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존재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불편하고 건강하지 않다면 신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그럼 복귀하면 된다. 우리 모두는 원래 신으로 태어났기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우리의 본 모습, 본래의 신, 행복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음을 비우는 '명상'과 몸을 치유하는 '정화'를 통해서다"라고 주장한다.

책 속에서 저자는 일상서 쉽게 할 수 있는 나름의 명상법을 소개한다. 항상 깨어 있는 '주시',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의 귀로 듣는 '언밀 수행', 존재의 흐름에 맡기는 '율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명상, 정화의 방편으로 지식호흡, 층층 · 소리명상, 걸음걸이 명상, 쿤달리니 명상 등을 QR코드로 직접 따라 할 수 있게 안내한다.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4개의 샘' 정화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다.

저자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그대로 육체에 남는다. 우리 몸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다가 억압과 불소통, 잘못된 음식의 소화나 습생, 잘못된 호흡습관 등에 의해 에너지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4개의 샘'이 막히게 된다"며 "모든 정화의 통로인 하트차크라와 4개의 샘을 정화하면 마음이 편안해 지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욕망과 사념으로 망가진 심신
명상 · 정화로 비워내면 행복해
명상과 정화법 QR코드에 담아

그렇다면 저자가 생각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욕망과 집착, 사념, 분별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낼 '명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개는 명상하는 방법만을 궁금해 한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명상과 함께 몸을 치유하는 '정화'의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며 "건강하고 내 자신이 행복한 삶.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191321-0001925

(사)범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종회의장 성보
총무원장 대명
교육원장 묘광
규정원장 보광
호법원장 태산
포교원장 도원
마산종무원장 법산



(사)범불교조계종과 불법홍포의
큰 뜻에 함께 동참하실
대덕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1통
- 반 명 함 판 사진 ·····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수여

(사)범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범성 대명
총본산 : 금오산 해인사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577)
해인사 055)351-3689 / 총무원장 010-3193-368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토와 편백

황토 편백 찜질침대 산사에 황토구들을 놓을 수는 없을까?
황토와 편백나무는 면역력 증강과 피부재생 및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잠이라도 푹 주무시고
참선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감기 없는 겨울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 현금 특별 판매가 : 135만원
구입처 010-7358-0380
배원호 합장

황토구들 침대



보물 제337호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복장물인 '백운화상 발원문'. 일반에 최초 공개됐다.

불교 타임캡슐 '불복장' 모든 것을 만나다

조계종 불교중앙博, 5월 31일까지 테마展

2월 6일 전시 개막식 개최
장곡사 약사여래상 복장물인
10m 발원문 일반 최초 공개
시대별 복장물 79점 전시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월세계(滿月世界)에는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매우 존귀하고 매우 신성하며 큰 원(願)과 큰 능력, 큰 자비와 큰 희사를 갖추신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이 동방만월세계의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서 가장 높고 신성하신 대약사유리광 부처님께 귀의한다."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발원문 中

'불복장(佛腹藏)'은 불상과 불화에 발원문·후령통·다라니·경전·직물 등을 봉안하는 의식이다. 이는 불상과 불화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당시 불상·불화 조성 상황과 풍습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불복장'을 '불교 타임캡슐'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복장의 형성과 시대별 변천 과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신년을 맞아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오심)은 2월 6일 신년 테마전 '붓다의 탄생- 불복장'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보물 5건, 지방유형문화재 4건을 포함해 총58건 79점의 다양한 복장유물이 전시된다.

눈길을 끄는 복장유물은 일반에 최초 공개되는 보물 제337호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복장물들이다. 장곡사 복장유물의 특징은 풍부한 명문을 통해 불상과 관련한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붉은 비단에 백운(白雲)이라는 스님이 쓴 10m 길이의 발원문(1,058×47.8cm)은 단연코 전시회의 백미(白眉)다. 불상의 조성경위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더불어 1007명의 시주자 명단은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인다.

또한 발원문 저자인 백운 스님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저자인 백운경한(1298~1374)으로 추정돼 그 의미를 더한다.

전시는 △복장의 의미:불복장이란 △불복장의 시작: 고려시대 △복장의 발전: 조선시대 △불화의 복장 등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무불상시대를 거쳐 불상이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며, 형성된 불복장의식 전반에 대해 다룬다. 2부에서는 고려 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성립된 불복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3부는 조선시대에 불복장의식이 완전히 안착돼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조선시대의 불복장은 신앙의 대상인 동시에 불상조성 당시와 중수 시기 사찰 내에서 불사를 이끌었던 소임자와 제작 화사(畵師)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4부에서는 불화의 공간적 한계로 복장의 핵심인 후령통으로 집중해 조성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오심 스님은 "불상은 복장의식을 통해 생명력을 갖는다. 복장물 자체로 신앙 대상이며, 경전을 포함한 여러 유물은 불상 조성 경위와 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전시는 복장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살펴봄으로서 복장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곡사. 복장낭



용문사 극락암 영산회상도



묵담 대종사(1896~1981)

난세에도 흔들림 없던 선지식, 묵담 대종사

다큐멘터리 '묵담 대종사, 그의 선·교·율'
BTN불교TV 설 특집, 2월 15일 오후 3시 방영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선지식, 묵담(1896~1981) 대종사의 생애를 만난다. BTN불교TV는 설 특집 프로그램으로 묵담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묵담 대종사, 그의 선·교·율'을 2월 15일(목) 오후 3시에 방영한다.

묵담 스님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선·교·율을 겸비한 대종사였으며, 조계종 5·6·7세 종정과 태고종 3·4세 종정을 지냈다. 또한 해동율맥의 9대 율사이자 전계대화상으로 모든 불사에 작법증명하는 증명법사로 널리 알려졌다. 동진출가해 선과 율의 공부에 일생 진력했으며, 불사의 례문에 있어서는 독보적이다. 즉 이사(理事)와 내외가 겸전한 당대의 선지식이다. 선교양종을 겸수하고 부처님의 청정계맥을 계승해 많은 계단서 대소승계를 전수했으며, 모든 불사에 참증하고 많은 재식과 기도의식을 여법히 지도하는 데 엄정했다.

격변의 시기에 태어난 묵담 스님은 열한 살 되던 해인 1906년 4월에 백양사에 입산하여 출가했다. 스님의 동진 출가 이유는 대부분의 동진출가와 달랐다. 묵담 스님은 열한 살 때 조모를 따라간 백양사에서 부처님의 세상을 보게 된다.

"도보로 백양사 입구에 당도하니 무성한 수엽은 일산처럼 하늘을 덮어 가리워지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온갖 새들은 내가 찾아온 것을 위안이라도 해 주는 것처럼 가지각색으로 노래하며 맞아 주는지라 3세에 부친을 잃고 8세에 모친마저 이별한 나로서는 일념심부절로 부모 생각뿐이었으나 이때는 부모 생각은커녕 이렇듯 자비로운 세상도 있구나 하는 즐거움뿐었습니다."

– <묵담대종사문집> 중 –

스님은 1907년 백양사 청류암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14년 내장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여 비구가 된다. 강원 수학 중이던 스님은 1918년 백양사 법계고시에서 대선법계를 받고 1920년 강원 이력을 성만한다. 그리고 1924년에 내장사 금강계단에서 금해 율사의 전계로 구족계를 받아 해동의 율맥을 잇는다. 금해 율사로부터 율맥을 전수받은 묵담 스님은 1930년에 대덕법계, 1931년에 종사법계를 받고 1932년에 대종사의 법계를 받는다. 그리고 여래의 안심입명처를 깨달아 오도송을 남긴다. 1981년 1월 13일 묵담 스님은 문도들에게 "부처님의 계를 스승 삼아 공부하되 스스로 등불을 밝혀 세상을 빛내라"고 당부하고 열반에 든다. 출가의 동기부터가 남달랐던 스님의 행장은 열반에 들 때까지 어느 한 시절도 비어있지 않았다.

2016년 가을의 담양 용화사 묵담유물관에서 시작되는 '묵담 대종사, 그의 선·교·율'은 BTN 제작진이 1년 6개월에 걸쳐 수집한 스님의 유물과 생전 인연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정혜 삼학에다가 삼장을 다 섭렵하시고, 부처님의 근본사상을 말하자면 확실하게 실천하신 분이 묵담 스님입니다."

암도, 도문, 수진 스님 등 30여 명의 인연들이 묵담 스님의 생애를 들려준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대종사, 묵담 스님의 사상과 삶을 통해 바른 불교정신과 오늘을 사는 사부대중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불일미술관 소장품 전시

'빛으로 바람으로' 展
2월 3일~2월 20일

봄기운을 기다리는 겨울의 끝에서 스님들의 수행의 기운과 젊은 작가들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법련사(주지·진경) 불일미술관은 2018년 신년을 맞이해 불일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한다. 선서화와 불상 등 오랜 기간 불일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귀한 작품 4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석정 스님의 '포대화상(92.5x51.4cm 수묵)'과 범주 스님의 '달마도(85x50cm 수묵)'를 비롯해 노재학, 윤지웅 등 2016년과 2017년 불일미술관이 신진작가 공모전을 통해 전시했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가려 다시 전시한다. 아울러 정월, 전도예 등 새롭게 선보이는 작가의 작품도 전시된다.

학예실장 여서 스님은 "제목 '빛으로 바람으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전시는 무명의 중생들에게 영원한 '빛'인 부처님의 가피가 신년을 맞은 대중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된 것이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박재완의 PhotoEssay



불사

소리 내지 않는 것들과
눕지 않는 것들이 있어
허망하다고 말하는 들판에도 여전히 뜻은 있고

그 시절을 바라보는 오늘과
그런 오늘이 올 것을 알았던 그 때가 있어
사라진 불사는 설법이 되어간다

화려한 단청과 우아한 창살들
법이라 믿었던 금빛의 목각들
그 의미와 이유를 들판에 묻어
있고 없음의 글자를 그렇게 적어
또 한 번 불사를 이루니
어찌 이곳을 폐사라고 부를까

공(空)으로 돌아가 설법이 되기까지
불사는 오늘과 내일을 따로 놓지 않았음을
들판을 걷는 석탑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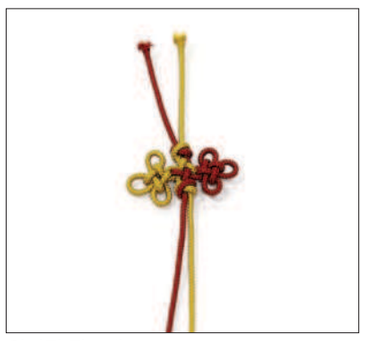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성낙윤의 불교매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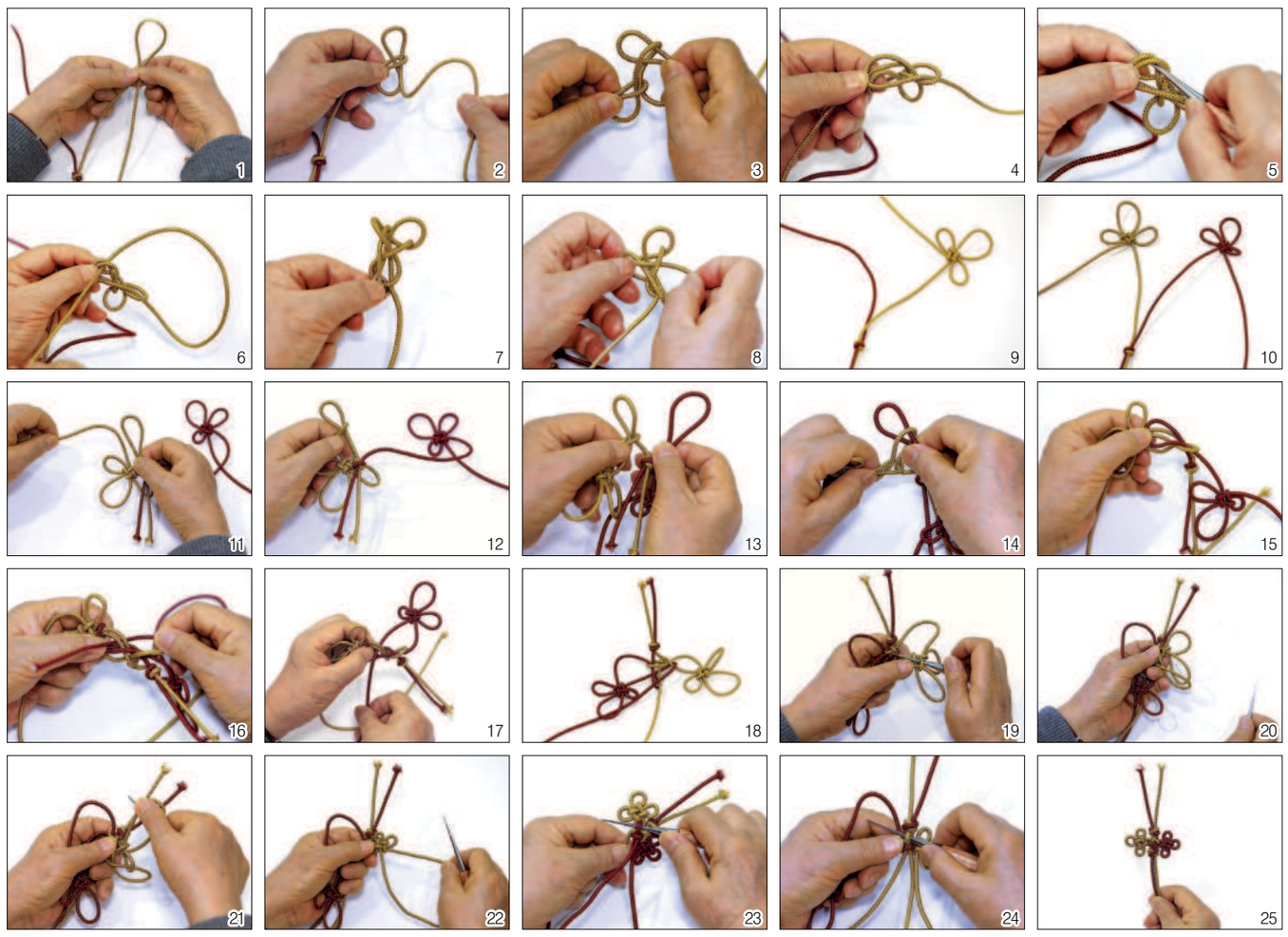
④ 장고매듭

인로왕번에도 쓰는 '장고매듭'



완성된 장고매듭

장고 매듭은 한국 무악(舞樂)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악기인 장고의 형태를 하고 있는 매듭으로 노리개, 벽걸이 등 여러 면으로 사용된다. 장고매듭의 형태는 양쪽에 생쪽매듭을 맺고, 맺어진 생쪽매듭을 잠자리매듭으로 연결하거나 생쪽매듭으로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물 '井' 자가 3개 나타나므로 남원과 대구지방에서는 삼정자(三井子)매듭이라고도 하며, 궁중에서는 이귀매듭이라고도 했다. 장고매듭은 대체로 매듭과 매듭사이에 쓰이는 매듭으로 주머니 끈이나 술을 달 때 많이 사용된다. 삼작노리개, 단작노리개, 귀주머니, 발, 월력, 선추, 당채, 화살집, 연, 인로왕번(引路王幡) 등에 이용되는 매듭이다.



장고매듭 만들기

1. 도래매듭에서 오른쪽 실 10cm 띠고 그 실 한 끝으로 토끼귀를 만들어
2. 쥐고 있는 안쪽실로 토끼귀 허리를 휘감아(생쪽(매듭)할 때처럼)
3. 왼손으로 쥐고 그 실 한끝으로 만들어 놓은 왼쪽 귀속으로 사진처럼 넣어
4. 왼쪽에 쥐고 있는 매듭위로 엎으면서 오른쪽 손 검지와 엄지로 밀어내고
5. 사진처럼 송곳으로 밑의 2가닥을 위롤 빼 올려서
6. 오른쪽 남아있는 실을 밖에서 원 안으로 넣어 잡아당긴다.
7. 방향을(매듭전체, 생쪽할 때처럼) 왼쪽으로 돌리면 사진처럼 된다.
8. 오른쪽에 조금 보이는 귀와 그 실 끝을 생쪽(매듭)할 때처럼 원 한 쪽은 검지와 엄지로 잡고, 밑의 실은 손바닥으로 잡고, 잘 보이지 않는 왼쪽도 검지와 엄지로 잡고 실 끝은 손바닥으로 잡아 오른쪽은 더 오른쪽으로, 왼쪽은 위로 잡아 빼면(중앙의 원은 그대로 놔두고)
9. 사진처럼 된다.
10. 왼쪽 실도 오른쪽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한다.
11. 양쪽에 똑같은 생쪽매듭이 생기고 중간에 10cm 띤 실로
12. 접어서 귀를 만들고 그 실 한 끝으로 귀 허리를 감아 왼쪽으로 옮겨쥐고
13–14. 오른쪽 안쪽의 실로 귀를 만들어 왼쪽 귀 안에서 밖으로 넣어
15. 왼쪽 허리감은 실 위로 엎어 검지와 엄지 손가락으로 밀면서
16. 밑의 허리감은 실 2가닥을 위로 빼 올려서
17. 그 원안으로 오른쪽 실 끝을 넣으면 사진처럼 된다.
18. 매듭방향을 왼쪽으로 돌리면 사진처럼 되면서 양쪽에 꽃잎 3개 씩과 중앙에 井자가 생긴다.
19. 오른쪽부터 송곳을 사진처럼 넣어 송곳 끝으로 잡아빼면서 도래매듭과 우물정자
20. 옆으로 바싹 붙인다.(커진 꽃을 줄이기. 방향제시)
21. 길어진 실을 송곳 끝으로 잡아 빼면서 꽃잎 크기를 줄여나가는데 방향은 항상 오른쪽이다.(꽃잎 크기를 줄일 때 송곳 끝을 '井' 자 사이에 넣거나 손가락으로 잡아 뺀다.)
22. 마지막 꽃잎도 줄인다.
23. 길어진 실은 '井' 자 안에 송곳을 넣어 잡아 빼서 줄인다.
24. 매듭을 뒤집어서 왼쪽 매듭을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먼저와 같이 줄인다. 꽃잎 크기는 똑같아야 한다.
25. 도래매듭으로 정리한다.

제4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교육과정 –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1년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바라, 화청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1년과정 이수 후 품수증, 법사증 수여(숙식제공가능)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1매
⇨ 예비소집 : 2018년 2월 27일(화요일, 오후 2시)
⇨ 입 교 식 : 2018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설법전)
⇨ 준 비 물 : 목탁, 요령(교재 – 입교식시 배부)
⇨ 문 의 : 교육원 강주(일관스님) 010-9361-5566
보경사 염불대학원 학생처장 010-4530-7444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입종안내

1 입종 구비 서류 (승가원 비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 1부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진 ····· 1매
□ 주민등록 등본 ····· 1통
□ 반명함판 사진 ····· 3매
□ 사찰 법당 내 · 외부 사진 ····· 각1매
□ 귀 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 1매

2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등록증
□ 주지 임명장

■ 문의 :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일 주 문



녹원 대종사 49재

웅산 김천 직지사 주지 스님은 2월 9일 직지사 만덕전서 조계종 前 총무원장 영허당 녹원 대종사 49재를 봉행했다.



나가노 금강사 주지에

법현 서울 열린선원장 스님은 4월 8일 열린선원 자매사찰인 일본 나가노 금강사 주지로 취임한다.



전국만해백일장 개최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은 3월 1일 오전 10시 동국대 중강당서 제39회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종단협 신임 사무처장에 진경 스님



종단협 신임 사무처장에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임 사무처장에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을 임명했다.

진경 스님은 현호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사미계)했다. 금정총림선원, 마곡사 태화선원, 조계총림 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윤호섭 기자**

진주불교회관 108인 후원회 발족



(사)진주불교회관은 1월 31일 포시즌 스카이라운지에서 제10·11대 이사장 이·취임식 및 제1차 108인 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선·철현·성각·지산·능륜·인법·수안·원명 스님, 이창희 진주시장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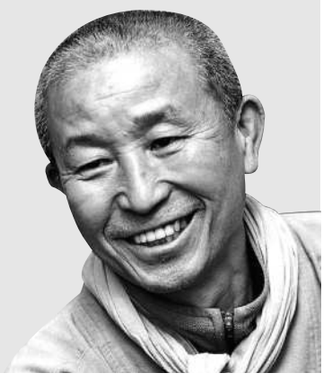
이날 취임한 홍수승 이사장은 "지역불교 발전과 열린 불법마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아울러 이가은 전임 이사장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소임을 수행할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고 이임사를 했다.

평안사 보선 스님은 "진주불교회관이 지역불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불교발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치사했다. 진주불교회관은 이와 함께 제1차 108인 후원회를 발족하고, 무료급식소 운영을 비롯한 자비나눔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1000만명 함께 모여 평화를 노래하자"

Interview

은빛순례단 불교대표 도법 스님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60세 이상 은빛순례단 출범
걷기보다 지역별 대화 초점
불자들 더욱 많이 참여해야

"힘으로 싸워 겨루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인내와 관용, 허용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은빛순례단은 각 지역을 방문해 대화의 장을 열고, 의미 있는 곳을 순례하며 부처님의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할 것입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한반도평화만들기 은빛순례단'에 나선다. 은빛순례단은 한반도를 핵무장과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서약한 60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은빛순례단에 불교계 대표로 나서는 도법 스님은 3월 1일 순례에 앞서 은빛순례의 키워드로 '평화 방식'과 '지역 대화'를 꼽았다.

도법 스님은 "이번 은빛순례는 단순히 오래 걷는 방식이 아닌, 지역 대중과 만나 연찬을 놓는 것이 핵심"이라며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빛순례야말로 가장 불교적인 운동이라고 강조한 도법 스님은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스님은 "은빛순례는 오로지 평화로 진행된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방식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불교계는 소극적이다. 종단 단위로 나서야 할 문제인데, 현재 은빛순례에 참여하는 스님은 나 혼자"라며 "사실 이번 순례는 걷기 수행이자 걷기 명상이기도 하고, 기도라면 평화를 발원하는 최고의 기도일 것이다. 스님뿐 아니라 일반 불자들이 함께해 평화운동을 주도하면 불교의 사회적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포교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고 불교계의 관심을 독려했다.

순례는 2019년 3월 1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20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 100년을 염두에 둔 것. 도법 스님은 "독립선언 당시 우리는 스스로 평화의 한반도 선언을 했다. 이처럼 우리도 1000만 명의 이름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은빛순례단의 여정을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평화의 한반도, 자유의 대한민국을 선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도법 스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은빛들이 아이들에게 줄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은빛의 걸음걸음이 저녁노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빛순례단은 60세 이상의 순례단과 60세 미만의 운영팀으로 구성된다. '은빛'은 하나의 도구인 셈. 결국 남녀노소 모두가 평화를 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은빛순례단의 여정은 '한반도 평화 만들기 서약운동'으로 시작, 전국에 걸쳐 한반도 생명평화를 위한 순례를 진행한다. 코리아둘레길과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한 국토순례가 기본이지만, 형편에 따라 원하는 만큼만 걸어도 된다. 걷는 게 힘들다면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연찬과 민회 대화의 장에만 참여할 수도 있다.

서약 또는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약은 다음카페 '한반도평화만들기 1000인 실버순례단'(cafe.daum.net/PeaceOnly1000)에서 가능하다.

"봉사 실천하는 법우회로 성장을"

함승현 제9대 서울교통공사 법우회장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는 지하철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이들에 의해 운영된다. 바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다. 2017년 서울 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합병했고, 이에 앞서 불자직원들의 신행모임인 메트로법우회와 도시철도공사법우회 또한 서울교통공사법우회로 통합을 선언했다.

1년이 지난 2월 12일, 서울교통공사법우회가 통합 후 첫 회장으로 함승현 서울교통공사 법우회장(관음행)〈사진〉을 배출했다. 함 회장은 현재 조계종 산하에 서울메트로 법우회가 속해 있어 메트로법우회 기준 9대 회장이다.

이날 취임법회를 시작으로 2년간 서울교통공사법우회를 이끌 함 회장은 "봉사와 나눔실천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다가가는 법우회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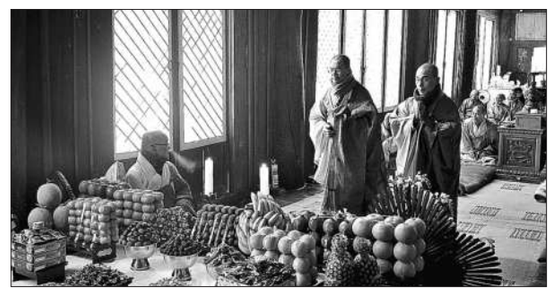
현재 양 법우회가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함 법우회장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상호 소통과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함 법우회장은 2009년 서울메트로 제1대 봉사단장을 맡는 등 공사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이끌어 왔다. 메트로법우회서도 포교실장을 맡아 봉사조직 관리로 역량을 회향해왔다.

함 회장은 "1991년부터 정기적으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통합 이후 라오스 성지순례의 호응이 높았다. 성지순례를 상하반기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진행해 왔던 서울역 노숙자 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통합과 화합의 밑거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 회장은 "둘째 주 화요일 진행되는 정기법회 외에도 일요법회를 신설하고, 명찰 템플스테이, 안전운행 기원제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통해 신심 증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봉사활동"이라며 "법우회가 앞장서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법향을 널리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고창 선운사, 운기 스님 추모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2월 4일 백양사, 대흥사, 불국사의 강주를 역임하고 화엄종주 설파, 백파, 설유, 영호의 교지를 계승한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인 운기당 성원 대종사 36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을 비롯해 학인스님들과 선운사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재에 동참한 스님들은 운기당 성원 대종사의 유지를 이어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림硏, 철원서 생태기행



한국사찰림연구소(이사장 종수)는 2월 3일 철원 도피안사 사찰림에서 개소 후 첫 생태기행을 실시했다. 이사장 종수 스님을 비롯해 부소장 박희준 박사 등 20여 회원들은 도피안사가 위치한 화개산 일대 사찰림을 살펴봤다. 또 이에 앞서 철원 승일교와 민통선 일대도 함께 탐방했다.

종수 스님은 "앞으로도 생태와 문화가 함께 하는 현장을 찾아 탐방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정읍 일광사, 사랑의 白米나눔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과 연꽃신도봉사회는 2월 2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에게 자비의 쌀 1,000kg(10kg 100포)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정읍시 관내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어르신들의 설 명절나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승천 스님은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어 어려운 이웃들의 고충이 매우 크다"며 "시민 모두가 훈훈한 설 명절을 맞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화불교

■ 전통한옥 철거, 매매 전문
■ 사찰 부동산 양도
■ 법당 개보수
■ 40평 법당 이익공, 팔작지붕, 상태 A급, 3월 철거예정, 급매
■ 40평 요사채용 재목(ㄱ형), 다그라스 재목(가공 상태). 저렴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 7층석탑(500~3,000만원) 다수 있습니다.
■ 수익형 기도처(서울 시내). 년 수익 보장. 부지 1,200평 21억(잔고 증명 필요)

010-3789-3327

탈종공고

• 법 명 : 혜원 (이금분)
• 승려번호 : 0177-083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제12기 송강(松江) 범음범패 전승회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學人)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0명
■ 개강일시 : 2018년 3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 수강자격 : 스님 및 불자
■ 교육내용 : ❶ 사물다루는 법
❷ 49재 의식, 천도재 위주
❸ 천수바라, 나비춤
❹ 극락무, 살풀이
■ 준 비 물 : 요령, 목탁, 태징, 바라, 북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3시(1년과정)
■ 비 용 : 입회비 이십만원, 수강료 무료

지도강사
• 범음범패 : 진효, 성우 스님
• 태 평 소 : 시우 스님
• 성명학 명리학 : 삼규, 해각 스님
• 살풀이 극락무 : 이채향 (여향)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길 봉운사
• 연 락 처 : 회장(대현) H·P 010-8725-3196
총무(도천) H·P 010-6266-8882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송강(松江)범음범패 전승회
회장 대현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교리만 배운다는 착각은 이제 그만!”

영남권 불교대학, 심리상담 · 무용 등 전공 확대 ‘눈길’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평소 사찰에서 신도들의 상담을 자주 해주는 A씨(58).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고 싶어도 대학원을 가기엔 부담스럽고 학비도 비싸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불교대학에서 불교상담학을 전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상담기술을 배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찰에서 꽃꽂이 봉사를 하는 B씨(36). 불단 장엄에 어울리는 전문 꽃꽂이를 불교대학에서 배워 봉사하는 내내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즐기고 있다.

불교대학을 흔히 불교교리를 배우러 가는 곳으로만 인식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이에 따라 불교대학도 단순 교리를 넘어 사회문화에 대한 전문 강의를 마련하면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부산과 경남에 위치한 불교대학은 불자들을 위한 불교문화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고 봄 학기를 준비 중이다.

범어사금정불교대학(학장 경선)은 금정불교상담대학을 운영한다. 금정불교상담대학은 불교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원봉사자 양성에 주력해왔다. 그동안 상담대학 학기를 이수하면 불교상담심리사 2급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 금정불교상담대학은 시대 흐름에 맞춘 전문상담가 양성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정불교상담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자살예방상담지도사, 명상전문지도사,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지도사, 가정상담지도사 등 더욱 체계화 된 전문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범어사 포교국장 효산 스님은 “불교는 신행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이 이뤄진다. 현재 사회문제 원인이 되는 인터넷 중독, 관계 단절, 핵가족화 등으로 감정조절 장애, 가정 파탄, 성폭력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스님들의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상담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불교상담대학은 불교 관점



영남권 불교대학들이 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를 신설 · 운영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지난해 금정불교상담대학에서 실시한 자살예방상담 교육 사진.

전문강의로 역량 키우고
자격증 응시 기회 부여
졸업 후 사회활동 연계도
신행과 취미 둘 다 만족

계해 상담봉사 역할을 확대하고 불교전문상담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뜻도 밝혔다.

전문 강사진으로는 김경일 교수(동국대), 자목 스님(동국대), 박재현 교수(동명대) 등이 참여하며, 더 많은 전문 교수진도 확보할 계획이다. 기본과정은 2학기 1년 과정(1학기당 4개월)으로 매주 월 · 화요일 오전 10시에 수업이 진행된다. 교과목은 △명상과 심리치료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전화상담 실습 △경전의 이해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유식상담 △초기불교와 상담 △학습심리학 △긍정심리학 △면접상담실습 등 불교심리치료와 상담을 바탕으로 심리학 및 상담심리학개론 수업을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3월 16일까지이며 범어사 종무소 및 원주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51)866-7277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무용학과를 새롭게 신설했다. 불교무용 전수와 이해를 돕고 근력, 지구력, 골다공증을 예방해 건강도 책임지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주부뿐 아니라 유아와 청소년도 참가 가능하다. 학생반은 전문 강의가 제공돼 예술계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도 배울 수 있다. 유아 및 초등부를 위한 수업은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4시이며, 중고등부 수업은 수 · 목 · 금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주부반은 화 · 목 오후 1시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풍수학과, 장례지도사학과, 수화과, 불교문화학과, 의식학과 등 재가자를 위한 다양한 과가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2017년에 신설된 불교문화학과는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증을 등록, 전문 불교문화포교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에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증 등록이 정식 결정 돼, 부산불교교육대학 불교문화학과를 수료하는 모든 수강생들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 응시 기회를 받는다. 또 장례지도사 국가공인자격증 응시 자격도 가능하다. 원서는 합동 입학식인 3월 8일까지 접수 받는다. (051)711-0700

울산불교교육대학(학장 혜원)도 새롭게 불교무용반을 신설한다. 불교 무용반은 3월 12일 월요일 개강하며 매주 월 · 금요일 오후 2시 주2회 진행된다. 강사는 현숙희 나무불교무용단장이 맡는다. 이와 함께 불교 꽃꽂이반도 운영한다. 불교 꽃꽂이반은 3월 12일 개강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강의한다. (052)266-3318

행복한 아이 만드는 예비부모 교육

동련 사무실 이전 개소… 3월 부부템플스테이 마련

동련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가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서 동련은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가정 세우기에 앞장서고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사단법인 동련 어린이불교연구소(이사장 신공)는 2월 7일 부산 동래구 지역에 새롭게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련은 “행복한 결혼과 올바른 가족 가치관 확립으로 건강한 가정 세우기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 프로그램으로 ‘삼천년생을 지나 우리가 만났습니다’ 템플스테이를 3월 3~4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흥법사에서 마련한다. 대상은 교제중인 미혼남녀와 예비부부, 신혼부부이며 선착순 20명(10쌍)이다.

프로그램은 자신과 상대 커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결혼관 및 결혼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결혼과 가족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 만들기 △의사소통 다루기 △부부갈등 대처법 △분노조절


이사장 신공 스님을 비롯한 동련 임직원들이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어린이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기 △사랑 만들어가기 등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최미선 사무국장은 “어린이 포교 사업을 주도하며 행복한 어린이를 위한 환경과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알았다”며 “행복한 가정, 즉 건강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바른 사고를 갖게 된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장 신공 스님은 “새로운 장소에서 불교계 대표 어린이 포교 단체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051)864-456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宗 · 民 · 官, 밀양 참사 희생자 넋 위로

밀양시 합동위령제… 밀양사암聯 추모의식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제가 엄수됐다.

밀양시는 2월 3일 합동분향소가 있는 밀양문화체육관에서 화재 참사 희생자 40명에 대한 합동 위령제를 개최했다. 위령제는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각 종교가 천도 및 추모의식을 진행했으며, 불교는 밀양사암연합회가 주관해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체육관에는 유가족, 시민 1천명이 참석했으며, 위령제가 엄수되는 동안 함께 애도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추도사에서 “불귀의 객이 되신 분들은 밀양시민이자 아버님, 어머님, 형제, 자매, 이웃이었다”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밀양과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킨 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도정 책임자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이 땅 위에 다시는 이런 황망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인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밀양 화재참사 합동위령제에서 밀양사암연합회 스님들이 추모의식을 올리고 있다.

유가족 대표로 나선 김성환 씨는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곁에 오래 머물면서 해드리고 싶은 것이 더 많았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스럽기 한량없다”며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밀양을 화합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세종병원 의료진 의사 민현식 씨, 간호사 김점자 씨 그리고 간호조무사 김라희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씨는 이어 “화재 현장에서 구조에 도움을 준 시민, 화재진압 ·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한 소방관들, 신속한 장례지원을 한 밀양시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불필요한 책임추궁은 지양해달라”고 부탁했다.

세종병원 화재 사고는 지난달 1월 26일 발생한 참사로 환자, 병원 의료진 등 40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밀양=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자비원 정인 스님 설 앞서 경로잔치

8000만원 후원물품 나눠

연꽃마을 자비원 정인 스님이 설 명절을 앞두고 홀몸 어르신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 150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2월 6일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열린 경로잔치에는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추천한 어르신들과 소담불교박물관장 법성 스님, 진안 연화사 법화스님, 수 한방병원 임선영 원장, 이창승 르윈호텔 회장, 덕진구청 복지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로잔치는 트로트 가수 오은주, 판소리 명창 안선희, 박영원, 아리랑 예술단의 문화공연에 이어 후원물품 전달식이 열렸다.

정인 스님은 “경로잔치를 위해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쓸쓸하게 명절을 맞아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쌀과 라면, 건강보조식품, 의료용품 등 8,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 묘 방 편 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역학·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관 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승진운,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 범패 교육도량

범음범패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정근북(양고장)
송주북 (각단 예불)
사찰 행사 문의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어렵고 힘들땐 배워야 산다

사찰,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과 법사님 필수조건
명리+귀장술+
원인사+조상찾는법
단기간에 책임지도
(지리산 현담)
010-4540-0061

토종하수오 진액 판매

(약사사)
010-9692-5775

PC유경험(봉사자 모집)

문서작성 및 홈페이지 관리
경험자 / 사찰홍보(블로그, 카페, 광고등) 경험자
* 나이,성별,지역 관계없음
(숙식가능)
051-529-2100
010-9085-0792
부산 진구 성지로 94번길 151-17
대원정사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 법고, 화청, 풍수, 명리, 육효, 주역, 작명 (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특 강

숫자로 보는 생활철학
- 수시모집 : 2018. 3월
- 개인지도(매주)
- 화,금 18:00 ~ 20:00(12주) 50만원
- 대구은행 010-3527-1037 서일영

영도기문철학
010-3527-1037
대구 남구 안골길21 안지랑역 3번출구 5분

寺 포교원 부전 명리 요양원

대출(2금융권)상담
서울 경기지역
010-5381-1419
경상도지역 광고 같이 할분 찾음
참신한 공양주 모십니다
010-8620-43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밀양)
011-803-2626
055-353-614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010-3525-9919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부부 환영)
010-8576-4450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거제)
010-5212-4533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도깨비 부리는 방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특수실전 강의 안내

천지운기 육입법. 백초귀장술.
파동에너지. 성명학. 주택풍수 2개월 과정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전가능
중요문화재 제 50호 특수작법 강의 안내
다게. 도량게. 사방요신. 법고무. 막바라. 화이재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를 지도하여 드립니다.
3개월이면 실전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 오전 10시부터 특수실전강의 -
도갑스님 010-2693-6585
- 오후 2시부터 특수작법강의 -
지원스님 010-7557-2568
행사에 필요한 살풀이 지전무. 극락무.
진혼무 일체. 민요 소리. 장단 가르쳐 드립니다
010-8575-6671 (상담)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1길 3 천명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사찰행사 전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맛 샘나 식물성 콩고기

최신 국내기술로 만든 식물성 조직 콩단백 효모와 항산화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소화흡수 충분한 고단백질 영양섭취
전립선,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
주문전화 1661-4288
농협 301-0222-880671 (주)샘나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역술 강좌안내

고려육임학회, 동양주역역술학회
한국신선기공천수원 공동
육임 · 사주명리 · 신선기공 강좌

개강 및 무료 강좌 일시
2018. 3. 5(월) 오전 10시 30분(사주명리)
2018. 4. 3(화) 오전 10시 30분(육임)

※ 각 강좌의 첫 수업은 무료 강좌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

과 목	기간	강의 주안점	교 수	수강료
사주명리 초급과정	3개월	사주명리 기초 이론 (신살오행사주론)암기법	동양주역 역술학회장 남륜 박사	월 13만원
육 임 초급과정	3개월	육임 기초력 정립	육임학의 대가 고려육임학회장 이우산 박사, 교수	월 13만원
신선도수행법 (연기법)		수업전후 20분간 수련 (사주, 육임 등록자 무료)	지도법사 원이 (20년간 수련지도)	무료

안내전화
육 임 010-7321-5539 (이우산교수)
명 리 010-9091-8259 (남륜)
신선기공 010-5096-0759 (원이)

강좌장소
안양역에서 도보 7분거리
안양여중고 사거리 옆
정형외과 건물 402호

2018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0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9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8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 ~ 9월 18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7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8년 3월 13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인천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이층 법당. 산신. 1층 요사채. 토지 1.200㎡
- 뒷편산 사찰. 위치 좋고 도심지 기도도량. 교통 편리함.
- 양도 : 20억원 (융자가능함. 상담요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수도권
◎ 대지 : 200평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요사 : 30평외 ◎ 요사 : 60평
◎ 매가 : 28억 ◎ 매가 : 26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안양 사찰 (급) 안내
- 산중 기도 사찰 • 토지 800㎡㎡
- 요사채 . 목조법당. 삼성각
- 지대조금높은 기도사찰. 역사있고 주변경관좋음
- 신도관리와 수행하기좋음
- 양도 : 30억 원 (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도심 속 작은 사찰 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울산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시장 옆
- 2층 50평
- 칠보삼존불, 천수천안, 호신불 615불, 등 320등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 신중단, 영단(시설최고)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60만 시설비 4,000만원

010-8424-004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교통 아주 좋음
- 대지 약 500평, 주변산 2천평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기타 아름답게 잘 정돈된 사찰
- 가액 : 8억 (방문 후 결정)

010-4537-538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5천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안동시길안면사무소와 청송읍사무소 중간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 근방)
- 사찰터로 좋은 전답 3필지 (약 1,800평)
- 가액 : 10,800만
- 분할가능 : 1필지(약 600평)5000만 2필지(1200평) 9,000만

010-2016-62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다대포 위치
- 60평
- 법당, 공양간, 요사 완비
- 주위 대형 병원, 아파트 밀집지역
- 현재 운영중

010-5267-4937
051-266-493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내 뒷산
- 경관좋음. 정원수 다량 조경된 아름다운 절
- 포교 최적지. • 대지 1200평
- 법당 26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16평(전체 목조. 단청완료됨) 창고. 저온창고
- 가액 : 8억(대출1억 안고) 전세가능

010-6603-1456

멋진2층 상가주택 토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대지 : 717평방
- 건평 : 1층 상가 149.99 2층 주택 81.75
- 가액 : 3억 2천만원 (4천만원 빼드림)
- 대출 : 1억포함(조정가능)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 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5백만원

010-8525-1959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보신 후 결정

010-6208-5555
055)747-98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 거리)
- 사찰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촌 집 안 내
- 위치: 진주시내 촌집.건물3동
- 위채 방 2칸,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 아래채 방 3칸 (창고 1칸, 방 1칸)
- 양도가 : 5,000만원 (절충가능, 스님상주)

010-7702-6296

포교원 안내
- 위치:부산시 사상구 덕포동(덕포역앞)
- 건물 : 55평(2층) 법당, 각단불상탱화일체, 종무소,
- 방1, 화장실, 쑥뜸방 (10명 동시 쑥뜸 좌욕 가능)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월세 1백 4만 5천원

010-4522-9772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중심 그린상가
- 건물 : 1, 2층 전체
- 대지 136.5평 건평 149평, 법당 75평
- 1층 요사채 겸 식당 주차장 완비
- 가액 : 평당 천오백

010-3752-2601

사찰 (급) 안내
- 위치: 전남 밀양시 청도면 요고 3안길 138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영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여래원. 함께 할 가족 모십니다
-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요고 3안길 138
- 2대주지스님 모십니다
- 명상센터 (명상지도스님이나 재가불자)
- 극락전.명부전(영가전을 이끌어가실 스님)
- 공양주 모심. 처사 모심(소액 지불)
- 본인소개서 지참 방문 상담

문의 : 010-3546-0398

사 찰 안 내
- 위치 : 구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50년된 암자, 재래시장, 정류장 10분거리)
- 총374평, 종교 용지, 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등기필)
- 특징: 테크노폴리스(과학도시)
- 가액 : 2억(답사후 절충가능)

010-3536-6333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 시내골목 신축아파트 도로변 이중담장 별장같은 단독주택
- 좋은인연 양도금 6천9백만원
- 가액 : 시설비 별도 5백만원 (스님몫)

월세도가능(5백에 월 40만원)
건물주 직접 :
010-8934-82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 평수 : 20평, 3층 건물
- 삼존불 조성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66-59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시내에서 5분 거리)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기도방 6칸, 친견실, 산신각, 창고, 일주문
- 가액: 5억 8천만(직통전화)

010-5920-5899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땅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 의료관광 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2억 1천) 안고

010-9906-3631

토지 및 건물 안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16-1
건평 약 30평(암자 및 절)
토지 약 2,000평(국유지)
양도가 4억 5천



충북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255-3
건평 40평 토지 1400평
양도가 18억 5천 (분할 판매가능)

연락처 : 010-8868-167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 대불교 현불샵

인도 최초·최대 규모 온라인 염불축제

아마라바티 불교 유산제 '성료'

인종·성별·종교 불문
모든 문화권 예술 보여줘
불교의 본질 소개하고자
'세계 평화' 궁극적 주제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세계 각국의 스님, 예술가들이 어우러진 아마라바티 축제현장.
사진출처=인디아 익스프레스



아마라바티 축제 현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 공연도 이어졌다. 사진출처=더힌두



각국의 스님들이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염불, 기도, 법문 등을 하기도 했다.
사진출처=힌두스탄타임스

세계 각국의 스님, 예술가 등 사부대중이 세계 평화를 위한 염불을 위해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아마라바티에 모였다. 2월 3~5일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염불을 보여주는 '글로벌 샨티: 아마라바티 불교 유산제(Global Shanti: Amaravati Buddhist Heritage Festival)'가 진행됐다.

2월 3일 '더 힌두' '인디아 타임스'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주요 언론지에서 앞 다퉈 '아마라바티 불교 유산제'에 대해 보도했다. 안드라프라데시 관광청이 주최한 염불축제였다. 이는 세계 최초·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스님, 플루티스트, 타악기 연주자, 가수 등 2천여 명의 참가로 이 축제는 2월 5일 막을 내렸다.

이 축제는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다. 많은 문화의 여러 종교·연령대의 참가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염불을 했다. 주최측은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불교 성지인 아마라바티에서 이 축제를 기획했다"며 "많은 종교인들의 노래, 명상, 공연, 전통문화 등을 보여줘 불교의 본질을 소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불교 유산을 보유중인만큼 이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3일간 지속된 이 축제는 염불뿐 아니라 토론, 법문, 문화 체험 등이 어우러졌다.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과 문화를 나누는 장이었다. 특히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플루티스트 하리프라사드 차우라시아의 플루트공연은 스님들의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인디아 타임스'는 "인도 불교 관광산업을 미국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런데 불교 관광산업에 관심이 없던 현지 스님들의 관심까지 끌었다. 결국 스님들이 관광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일조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넷을 통한 염불 참여도 가능했는데, 전 세계 4만50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를 외쳤다. '더힌두'는 이 축제를 온라인으로 시청한 사람의 수가 400만명이 넘는다고 추산했다.

아마라바티의 데비네니 우마헤스와라로 장관은 "아마라바티가 세계평화를 위해 완벽히 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 축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안드라브라데시가 불교유적의 '보물창고'라고 표현했다.

아마라바티는 이 축제를 통해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평화'임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현지의 불교 문화유산을 토대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세계경제인들 '마음챙김 투게더'

2018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세계 경제인들이 마음챙김을 배우기 위해 모였다.

프랑스 언론 'AFP통신'은 1월 26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경제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프스 산맥이 멀리 보이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의 연차총회 '다보스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 내부에서는 특이한 장면이 연출됐다. 명상지도자 자얀티 키르팔라니(Jayanti Kirpalani)의 조용한 목소리를 따라 수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었다. 아침명상은 이제 이들에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는 중요한 일과가 됐다.

총회에 참석한 프랑스 출신의 마티유 리카르(Matthieu Ricard)스님은 "10년 전엔 다보스 회의에서의 아침명상은 상상도 못했다"며 웃었다. 다보스 회의에 출석한 많은 대표단에게 회의의 안건인 '세계정세의 개선'은 사회적 번영이나 개인적 정의실현을 넘어서,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에서 시작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됐다. 특히 최근 들어 '마음의 건강'이 주제로 올라가는 일도 늘어났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수상이 이끄는 인도 대표단에는 두 사람의 요가 지도가가 포함되었다. 23일 연설에 나선 모디 수상은 "요가와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는 몸과 정신, 영혼의 건강 균형을 맞춰준다"고 조언했다.

실업계가 주목하는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마음챙김 훈련은 최근 실업계에서 크게 성황이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주어진 것에 집중하게 하는 마음챙김 훈련은 특히 업무능률을 올리는 데도 효과가 있다. 리카르 스님은 "명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탈진 증후군과 인간관계 악화라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E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전 세계에 3억 2천만 명을 웃돌고, 영국의 정책연구소 'Mindfulness Initiative'는 정신건강에 의한 질병발생이 매년 7천만 건을 넘어선다고 발표했다.

미국보건복지국과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다양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근간하여 마음챙김이 우울증을 방지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영의회는 2015년 보고서에 마음챙김을 직장에서 실시할 것을 장려했다. 그 결과 마음챙김을 실시한 기업과 연간추정 수십만 달러의 복지비용을 절감했다.

마음챙김과 세계의 발전

아침명상을 주관한 키르팔라니씨는 "명상은 현재 내가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세계에도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 스님은 "이 포럼에 모인 사람들은 각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매일 명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출가로 인생 2막, 일본불교계 은퇴출가 '열풍'



사회생활을 마치고, 출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정년세대가 늘고 있다.
사진출처=ATPRESS

오랜 세월의 사회생활 마치고, 출가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정년세대들이 늘고 있다고 2월 2일 일본 '교토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임제종의 대본산 묘신지(妙心寺)에선 2012년부터 정년세대를 대상으로 출가를 권하는 '제 2의 인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묘신지에는 일본 전지역의 3,300여 개소가 넘는 사찰이 등록되어 있으나 그 중 3분의 1은 상주하는 스님이 없는 공찰(空刹)이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정년을 맞이, 은퇴한 세대는 늘고 있다. 여기서 착안, 공찰에는 스님을 제공하고 은퇴자들에겐 다시금 활동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프로젝트의 취지이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450건의 상담이 있었다.

프로젝트를 발의한 묘신지 문도활성화 추진국의 고문 시바타 분케이(83) 스님은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모두 사회와 인생경험이 풍부해 신도들이 더 편하게 상담한다. 더욱이 이렇게 출가자가 늘면 사회에서 불교를 보는 시각도 바뀔 것이다"고 말했다. 묘신지의 프로젝트가 매스컴에 보도되고,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자 타 종단에서도 정년세대에 대한 출가체험, 출가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새로운 출가자들을 모으고 있다.

원래 묘신지에선 정식으로 승려가 되기 위해 최소 1년 출가본사에서 수행하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참가자에겐 연 2회의 안거와 기본교육과정 이수면 특별히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총 53명이 정식으로 출가했다. 공찰에 관리직으로 파견된 스님은 9명, 정식으로 주지로 취임한 스님은 아직 3명뿐이다. 남은 스님들은 각자의 출가본사에서 수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참가희망자들은 기본교육 이수중이다.

아이치(愛知)현의 테이린지(貞林寺) 관리직으로 파견된 코즈카 분테츠 스님(69)은 "원래는 지인의 회사에 재취직을 생각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곤 '이렇게 나이든 나라도 스님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바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출가본사에서 수행하던 중 인연이 된 테이린지는 10년간 스님이 없어 황폐해진 도량이었다. 마루는 내려앉고, 비가 샜다. 하지만 분테츠 스님이 새는 도랑을 매일 같이 청소하고 수리하니 절을 떠났던 주민들도 하나 둘 다시금 절에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다.

분테츠 스님은 신도를 따로 모으지 않고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한다. 아침저녁으로 예불과 참선, 사경으로 수행을 이어나가고, 부동산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주민들에게 무료로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해주며 지역사회와 소통한다.

박영빈 객원기자

교도소內 '불상 조각하기' 각광

태국 중범죄자들이 불상을 조각하며 자신의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보도가 화제다.

'더네이션 타일랜드포탈'은 2월 5일 '붓다프로젝트가 교도소 수감자들의 미래를 만든다(Buddha project shapes inmates' futures)'는 보도를 통해 교도소 수감자들의 갱생을 위해 불상을 조각하는 붓다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붓다프로젝트는 태국 공주 바즈라키티야바(Bajra Kitiyabha)의 계획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세 교도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도소 간수 나라베스는 "이 프로젝트의 첫 시도에서 14명의 참가자들이 감옥에서 석방된 후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중범죄로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 톰(43, 가명)은 붓다프로젝트에 열성을 다해 참여하고 있다. 톰은 "불상을 만들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침착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계속해서 불상을 깎고 스스로를 바라보다 보니 과거 내 잘못이 보였다. 이젠 진심으로 반성한다. 절대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재소자의 수는 30여 명. 이들에 의해 10개의 큰 불상이 만들어진다. 이들이 만든 큰 조각은 사찰이나 병원에 전달된다. 작은 개인 불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직접 만든 불상을 가족들에게 준다. 박진형 기자



마음-훈련

노먼 피셔(젠 프리스트)

〈6〉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율

타인은 골치 아픈 존재… 변화는 나부터



그동안 얘기한 수행의 요점들이 나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임을 주목하라. 우리는 가장 심오하고 거의 추상적인 수준에서 자비에 대해 고찰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경구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과 벌이는 더럽고 타락한 일상의 전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제 그것을 할 시간이다. 여섯 번째 요점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율'이다.

이 요점의 문구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멈칫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율이라고?

대체로 우리는 관계를 규율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규율이다.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지평을 넓히고 마음을 훈련하여 자비와 회복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운다. 이 과정은 시초에, 우리가 엄마로부터 말과 인간의 기본적 반응을 배우는 갓난아기일 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때 이래로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이 상호작용은 풍부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엄청난 도전이자 엄청난 기회다.

우리는 타인들을 너무나 필요로 하지만, 타인들만큼 골치 아픈 존재도 없다. 사르트르가 그의 희곡 〈닫힌 방(No Exit)〉에서 말한 것처럼 "지옥이란 바로 타인들이다" 부부관계에서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사람의 소통은 너무나 어렵고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껏 가해진 온갖 상처들, 온갖 오해와 혼란들을 안고 타인들과 더불어 지내기란 대단히 어려우며, 타인들을 더 많이 알수록,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그들과 더 많이 교류할수록 이는 더욱더 힘들어진다. 우리는 자신이 친절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타인들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혹은 우리가 그렇게 친절하고 합리적이지 않은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서 쩔쩔매는지도 모른다. 사실 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그들을 동시에 대하는 것은 정말로 벅찬 일이다.

그러나 타인과의 대면은 곧 타인과 대면하는 나 자신과의 대면이다. 나와 따로 떨어진 타인은 없으며, 타인과 따로 떨어진 나도 없다. 타인과의 문제는 자신과의 문제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인간관계의 규율을 훈련하는 것은 곧 타인과의 관계에서 익숙지 않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요점에 있는 경구들이 하는 일이다. 이는 자신을 규율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달리 하게끔 우리를 훈련시킨다. 자신이 달라질 때 타인들도 달라짐을 점차 배운다.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면서 타인들과 더불어 갈등과 싸움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지침과 경구와 제안이 필요하다. 이 요점에는 16개의 경구가 있으며, 그중 일부는 놀랍고도 매우 과감하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마음 훈련을 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를 다시 떠올려라. 이를 하고자 했던 결심의 굳건함을 상기하라. 오랜 기간 크나큰 헌신과 강도로 영적 수행을 해왔지만 인간관계의 불길에 그을리자마자 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만큼 흔한 존재는 없다. 인간관계만큼 산란하게 만드는 문제는 없다. 따라서 관계의 산란을 관계의 규율로, 관계의 영적 수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서약을 갱신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위선자가 되지 마라'

네가 네 삶을 변혁하고자 한다면 부디 변혁하라. 그러나 스스로에게 무슨 형식을 강요하지는 마라. 실제로 수행을 해나가면서 영적 과정이 이와 정확히 반대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평생 동안 스스로에게 어떤 형식을 강요해 왔으며 이를 나 자신으로 취급해 왔음을 깨닫는다. 마침내 그것을 관두고 느긋해질 수 있다. 아무에게도 감명을 줄 필요가 없다. 특히 자신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남의 잘못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이 경구의 전통적인 문구는 '다친 수족에 대해 말하지 마라'다. 이는 공격적으로, 어리석게 혹은 무능하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모두 팔다리가 다친 사람이라는 개념이다. 우리가 상처로 인식하고 그 때문에 오는 제약을 인지하지만 그런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내면에 상처 입은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다.

> 인간 됨됨이 만드는 상호작용
> 풍부한 가능성 가득 차 있지만
> 관계 속에서 다치고 실망한다
> 나의 문제 깨닫는 것이 순서

'남을 파악하려 들지 마라'

다른 사람의 동기나 욕구나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이를 중단하고 자신의 생각과 통찰이 터무니없이 빗나갔을 수 있음을 인식하라.

'가장 큰 문제부터 먼저 다루어라'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괴로운 나의 일부분에 지금 집중하고 그저 집중함으로써 이를 신뢰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조금씩 알게 될 것이다.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절망이나 무관심보다 낫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희망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마음 훈련이 내게 이런저런 일을 해주리라고 희망한다면, 자기가 나간 진도를 재보고 그 진도가 우리 희망이 투사한 이미지와 맞지 않을 때 의기소침해진다면, 희망은 역효과를 낼 것이다.

'독이 든 음식을 피하라'

자기집착이라는 독이 든 음식을 피하라. 지금 자기비판, 낙담, 오만에 빠졌음을 깨달았을 때 이 경구를 기억하라. 우리의 목표는 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너무 예측 가능해지지 마라'

이는 자신 및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초심자의 마음을 기를 것을 주문한다. 아마추어의 자아를 가져야 한다. 아마추어는 출세나 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좋아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프로페셔널은 예측 가능해야 하지만 아마추어는 그럴 수가 없다.

'남을 헐뜯지 마라'

그저 전 세계 모든 시대와 문화에 공통된 건전한 상식이며, 언젠가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들은 적이 있는 말이기도 하다.

'매복하여 기다리지 마라'

원한을 품지 말라는 뜻이다. 누가 내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이를 마음에 담아 놓고는 언젠가 덤불에서 뛰쳐나가 그를 공격할 순간을 기다리며 기회를 노리지 마라. 덤불에 도사리고 있는 시간 내내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나 자신을, 나의 수행을, 내 고통과 상처로부터 배우고 마음을 열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만사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진짜 고통과 진짜 문제를 집어내려고 노력하라. 불평을 덧붙이거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증식시켜 이를 너무 세세히 부풀리지 마라.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남에게 짐을 떠넘기지 마라'

이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 고통의 사연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서로 유대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러므로 이 경구는 입을 꾹 다물고 슬픔을 혼자서 삭이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업 혹은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 모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경구다.

'너무 빨리 가지 마라'

조급함을, 완벽한 성취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을 깨달으라는 권유다. 그리고 이를 깨달았을 때 자기 자신을 크게 비웃고 이를 던져 버리라는 권유다. 말 그대로 멈추어 숨 한번 쉰 다음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영악해지지 마라'

이 경구의 뜻은 편안하고 솔직한 눈으로 자신을 보고 내 자연스러운 약점들을 기꺼이 용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후회나 자기비난 없이 항상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신을 악마로 만들지 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과 타인들에 대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다. 완벽해지려고 할 때, 아니 그저 선해지려고만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는 실패한다. 이에 대해 불평하며, 내가 얼마나 잘해왔고 내 상황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깨닫지 못하곤 한다. 우리 눈에는 문제점만 보인다.

'남의 고통에 기뻐하지 마라'

원수에게 나쁜 일이 닥치기를 바라지 마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어진 나쁜 일에 즐거워하지 마라. 누가 죽어서 돈을 상속받을 수 있기를 바라지 마라. 원수의 행위를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의 불행을 기원하거나 그에게 나쁜 일이 닥쳤을 때 박수 칠 필요는 없다. 진정한 자비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 글은 〈마음-훈련 미친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기 위한 59가지 매뉴얼〉(도서출판 팡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천왕 대형 난로
(고압노즐 회전분식형 소각 기능)

소형난로	폭 600mm × 길이 1,000mm × 높이 1,500mm × 두께 9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700~800℃
중형난로	폭 800mm × 길이 1,300mm × 높이 1,650mm × 두께 12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600~700℃
대형난로	폭 1,000mm × 길이 2,000mm × 높이 2,150mm × 두께 12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500 ~ 600℃
공양초집	폭 800mm × 길이 1,600mm × 높이 2,030mm 재질 STS 304


소형난로


중형난로 / 대형난로

난로 할부판매 가능합니다


공양 초집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근본 마음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심성의 활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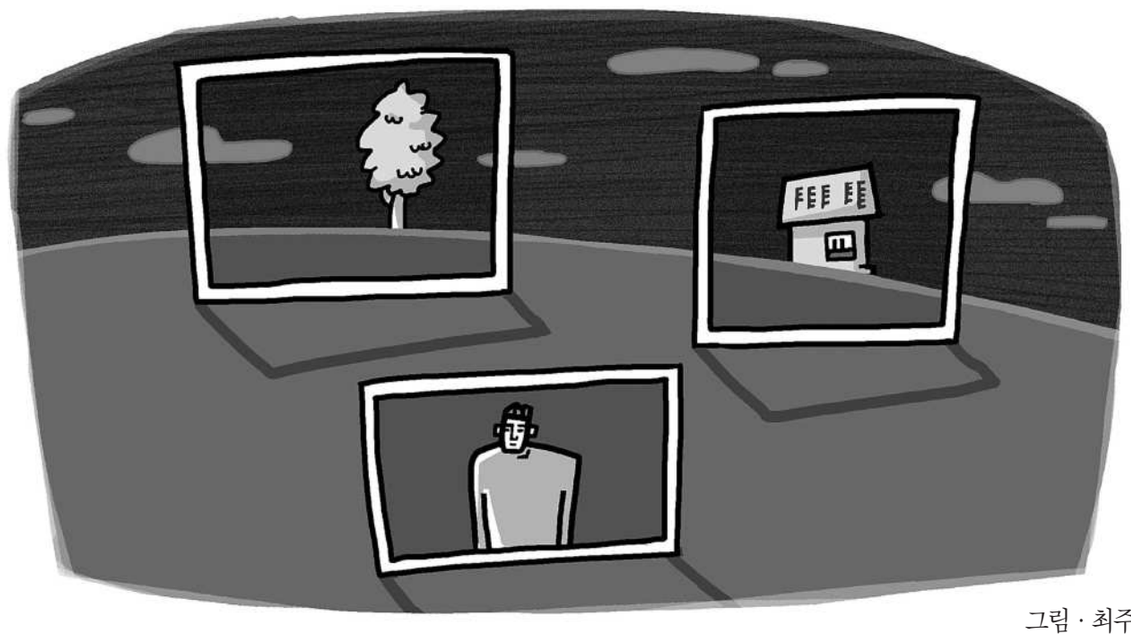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고 음미하고, 마음 도리를 연구하는 데에 몰두하는 도반으로서 만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중반기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우리 개별적인 의의는 낳을 수 있을지언정 포괄적인 의의는 낳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중반기에 들어서서 세계와 더불어, 우주와 더불어 같이 포괄적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대인이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일이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가 다 그렇게 대인이 되었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조금도 쉬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연구할 단계가 못 돼서 개별적으로 연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과학이라는 것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니,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과 어디로 돌아서 회전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 마음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심성의 활용이 있듯이, 절대적으로 마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문제도 광대무변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포괄적인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광대무변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이 진리가 툭 터져서 지구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고 우주 전체를 보는 것 없이 보고, 듣는 것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가끔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복적인 신앙을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의 강대국에서 또는 약소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 한계가 있다. 어디로 인해서 이렇게 빠져야 되느냐? 유전과 무전, 즉 말하자면 유(有)와 무(無), 유개체와 무개체, 무생(無生)과 유생(有生), 이 모두가 어떻게 해야 회전을 할 수 있으며, 광대무변한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젭니다.

그런 데에 도달해 있느니만큼,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탐지기나 컴퓨터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고, 여섯 가지 중에 책정기가 누진통이라고 했죠. 그것은 이름으로써 얘기했을 뿐인데 활용하고 빛을 내고 여여하게 회전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은 화광주니 야광주니 하는 구슬로 말했습니다. 걸림 없이 굴리는 데에 아주 여여하다는 뜻으로서의 빛광주 또는 원광주, 해광주를 금강주에서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섯 가지를 책정기, 즉 누진통이 그렇게 다룬다는 것만 얘기했지, 금강주라는 것은 그 다섯 가지 구슬을 굴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활용입니다, 활용! 활용을 하는 데는 그 구슬을 얻지 못하고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용(龍)이 줄을 타고 오를 때에 구슬이 없으면 오르지 못한다 이겁니다.

인간도 무의 법, 유의 법을 회전하는데 법망에 걸리지 않고 걸림이 없을 때에 비로소 다섯 가지 구슬을 얻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굴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름해서 금강주입니다. 이것을 대충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나는 무슨 책을 봐서 이런 얘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허허허.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강주 하면은 이름해서 육바라밀에 속합니다. 보살행으로서 들어가는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또 '금강주에서 그렇게 굴릴 줄 알고 여여하고 걸림이 없다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칠보가 가득 차 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주인공의 뜻을 알아서 굴릴 수 있다면 바로 칠보라는 것입니다. 칠보! 전체가 둘이 아닌 칠보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모습 없는 모습들, 생명체가 전부 움죽거리고 있는 자체는 바로 진화력도 되지만 생존의 경쟁도 되고 생존의 부활도 되고 생존의 개발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음미해 본다면은 아주 묘한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지금 시공이 없이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약한 생각 또는 미신의 생각으로서 아주 차원이 낮은 그런 행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생각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주 얕은 생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어야만 하나!' 이런 겁니다. 칠보가 가득 차 있으면은 거기에서 다지혜가 나올 텐데 말입니다. 요거는 내 의견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잘 파악해서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잘하려면은,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떼어 놓은 거는 없어지고 한 발이 또 되듯이, 우리가 지금 칠보 하면은 벌써 육바라밀은 칠보가 집어먹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포함해서 있으니까. 포괄적인 칠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여하고 보배로운 자가발전소에서, 물론 가설이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자가발전소는 본래 내 안에 있으니까, 스위치만 누르면은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본래 들어오게 돼 있는데 모르니깐 그걸 발견을 못해서 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요렇게 아주 쉴 사이 없이 다가오는 그 나툼을 우리가 작게 생각을 하면 나툼이라고도 하고 윤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투어서 역력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음미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바로 그것이 그 안에 들어서 무수히 돌아가고 있으니, 이 돌아가고 있는 나툼을, 무(無)와 유(有)를 한데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 사유(四無四有)를 한데 합치면 팔(八)입니다. 시방세계에 무와 유를 한데 합치니까 팔이 된다. 팔이 되니까 이게 여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칠보가 거기 또 팔에 포함된 겁니다. 팔정도(八正道)에 포함이 된 겁니다,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그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팔정도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팔정도로 돌아가는 데에는 언제나 포함해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심성입니다. 그래서 그 심성을 포함해서 구정토(九淨土), 즉 말하자면 구경계(究竟界), 구경계로 하여금 시방세계에 두루 회전이 될 때 불이(不二), 불이법(不二法)이 거기에서 조성됨으로써 십이인연법을 넘어선 단계로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기보다도 여러분이 연구를 해 보면은, 말은 조금 다를지언정 뜻은 똑같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사람 사는 이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변천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린 계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사람이 살 양으로만, 먹고 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로써 우린 계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계발입니다.

지난번에 경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모르면 경쟁이고, 넘어서면 계발입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밀치려고 해서 밀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힘이 부족하면 스스로 밀리는 거죠. 누가 나쁘게 만들려고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환경에 따라서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 본래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이 소립니다. 환경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이 자기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한생각이 자기에게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 한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조 시대 어느 때라고 봅니다. 이조 시대 때 스님네들이 탄압을 받고 그러니까는 삿갓을 쓰고 결국은 머리를 기르고선, 어느 산골에다 토굴을 파고 도반들과 거지처럼 얻어먹어 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들 있는데, 항상 탁발을 하러 나가면서도, 한 고비를 넘기고 산을 넘고 이러다 보면은…, 이걸 잘 음미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금 연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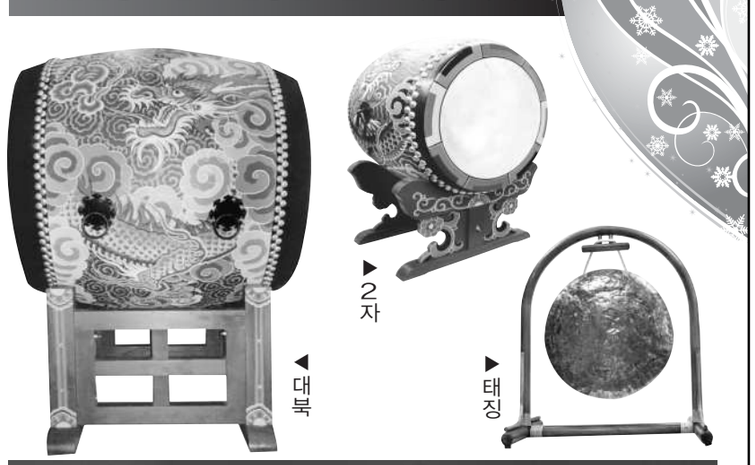
산을 넘고 가다 보면은 아주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사람도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뱀도 그 웅덩이에 빠지기만 하면 나오지 못해, 캄캄한 암흑 같은 곳이니까. 그래 가는 데마다 발을 옮겨 놓는 대로 살려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가다가 또 건져 주고 "얘야! 너희들을 건져 주면 나중에 또 나를 못살게 굴지는 않겠는가?" "절대…. 생명의 은인이신데, 날 건져 줬는데 어떻게 해하리까?" 그래서 건져 주고 건져 주고…. 그런데 다 건져 주고 나니까 전부 자기의 부하가 된 겁니다. 사람도 마지막에 건져 주고, 사자도 건지고, 호랑이도 건지고, 뱀도 건지고 원숭이도 건지고, 다 건진다 말이야. 그렇게 건지다 보니깐 전부 자기 군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사람이 있는데 구덩이에서 아우성을 치는 걸 건지려고 하니까 뱀이 있다 하는 소리가, 사자도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도대체 남의 은공을

☞ A22면으로 계속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대북

▶ 2자

▶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여러분이 모르면 경쟁이고, 넘어서면 계발입니다!

☞ A21면에서 계속

몰라. 그러니 저렇게 빠질 때는 다 어떠한 죄상으로 빠진 거다." 이러는 거야. "우리도 그렇지마는 사람은 나오기만 하면 꼭 당신에게 해를 줄 겁니다." 이러거든. "그렇지만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는가, 인간으로서." 하면서 하는 말이 "언제적의 죄로서 나를 해할까 봐 무서워서 건져 주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만약에 저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저 모습이나 내 모습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건져 주고 가야 하지 않느냐?" 하고 말을 하면서 "너도 예전에 그러했지 않느냐?" 하고서 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고선 참 울었답니다.

그렇게 건져 주고 나서 휘적휘적 바가지에 조금 얻어 가지고 왔죠. 어느 날 또 얻으러 나갔는데 한 집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자기 은사를 찾아다니며 기도를 드리고 불공드리던 대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그 많은 식구들을 얻어서 연명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대감네 집을 찾아가니까 그 집에서 패물을 줬습니다. 그 패물을 가지고 가서 지금으로 치면 금세공 집에 가서 팔겠다 했겠죠. 그런데 마침 가 보니까 그 세공하는 아버지가 바로 언젠가 건져 준 적이 있는 그 집이에요. 그러나 그런 얘길 해도 그 아들은 들은 둥 만 둥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을 보니까 눈이 휘번덕거려졌죠. "내가 물어봐서 이거 살 사람을 구해서 팔아 주겠소." 해 놓고는 바로 원님한테 찾아갔어요. 원님한테 찾아가서 고자질을 했죠.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나라에서나 나오는 건데, 묘(墓) 도둑질한 건지 모르니까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서 뭐, 상금이나 받을 줄 알고 그랬죠. 그랬더니 원님이 너는 요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상금을 내리겠다 하고선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고선 그 스님은 붙잡아다 가둬 놓고 원님은 그 패물을 들고 한양엘 왔습니다. 임금한테 와서 이러한 얘기를 다 하니까 노발대발했습니다. "이것은 대궐에나 있던 패물인데 어째서 그 사람 손에 들어갔느냐. 필시에 이건 도둑놈이 아니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데려다가 감옥에 가뒀죠. 이제 참(斬)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스님인 줄 모릅니다. 머리도 기른 데다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형편이 어려워 살 수가 없어서, 상놈인데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는 줄 알겠죠. 그래 인제 들어가서 있으려니깐 아, 밥을 주는데 입맛이 없어서 영 먹을 수가 없는데 거기 사람들이 죄 굶어 죽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단 말입니다. 입맛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아서 목이 메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워 올 텐데 밥이나 배불리 먹어둬!" 하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뜬 겁니다. '어떡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하고선 생각을 하던 중 뱀 생각이 났습니다. "야, 뱀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즉시 달려와서는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 만저만하여 꼬빡없이 이거는 묘 도둑놈으로 몰려서 죽게 됐어. 참한다고 한다. 그러니 어떡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벌써 스님이 날 알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뱀은 뱀으로 살던 습이 있어. 독이 있고. 그 습이 있어서 능수능란합니다 이거야. "그러니 걱정 마시고 나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들어가서 대비마마를 꽉 물어뜯어서 독이 올라서 정신 상태가 흐려지고 살이 전부 시퍼렇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대비마마 눈에만 내가 뱀으로 보일 거고 방방곡곡에서 고치려고 해도 아무도 못 고칠 겁니다. 그때 당신이 들어가서 이마에다가 손만 얹는다면은 그 독이 전부 다 빠질 테니 그 후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거든.

한생각이 자기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한생각이 자기에게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 한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뱀은 쏜살같이 대비전으로 들어갔어요. 대비 눈에만 보였지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얼른 물고선 달아나갔죠. 달아나가나 마나죠. 알고 본다면 달아나갈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는, 그 모습 없는 모습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누군가? 바로 그 스님이란 말입니다, 둘이 아니기에. 급한 거를 면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음미해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기가 그렇게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옥 안에 들어 있으니까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여기서 쑤석쑤석 저기서 쑤석쑤석 야단났고, 온 방방곡곡의 의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뭐, 까딱없거든요. 그래서 울고불고, 참하고 말고 그거는 뒷전이고, 하여튼 야단이 났어요. 그때쯤 임금한테 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고쳐 볼 수는 없겠는지요?" 하고 청하니까 "그러면 들여와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재판도 해 보지 않고 남의 소리만 듣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러면 목욕을 시켜 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그 방엘 들여보내졌죠. 들어가서 손을 대비마마의 이마에 짚으니까 아, 얼마 안 있어서 깨어나거든요. 깨어나면서 그 시퍼렇던 게 차차차차 위서부터 아래로 다 삭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임금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전국에서 한다 하는 의사가 다 들어와서 봐도 영 가망도 없더니 이렇게 나을 줄이야. 참,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보물 얻은 그 사유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그 사유를 주욱 얘길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금세공 아버지가 덫에 걸려서 있는 거를 살려 주었다는 얘기도 했지마는 그거는 아랑곳없죠, 그걸 모르니까. 그랬는데 스님이란 소리는 안 하고 그 대감님이 그렇게 주셨다 하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취해 봤겠죠? 보니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도둑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자질한 그 금세공 하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옥에 가두라고 하고, 그 스님을 임금이 아주 믿고, 국가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 버렸죠, 너무 믿으니까. 그러자 이분은 그때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방도 튼튼해야 하고 국가의 재정도 그렇고 모든 문제, 지금이나 그때나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임금은 다 듣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빨리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뱀 얘기 했죠? 그 얘기처럼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국방에, 나라에 대책을 세우는 데도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우리는 이 물질적인, 어떠한 수효의 사람들만 채워 놓는 게 보통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도 사람 아닌 사람이 더 많단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군인 한 명에 다가 군인 마음의 그 마음 근본을 넣어 준다면은, 즉 말하자면 잠재해 있던 의식 자체를, 유명한 사람들을 다 넣어 준다면은 열 배나 위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마음을 휘어잡지 않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고, 마음을 휘어잡아서 이겨야지, 마음을 휘어잡지 않고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 채 그 마음을 회전하지 못하고야 어찌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죽이기만 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듯이 앞으로 이러한 도리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점 살기가 어려운 세태가 다가온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국민이라든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나 또는 경제를 위해서라든가 공업을 위해서라든가 국방을 위해서라든가, 그 모두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모체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먹어 보고 맛을 알지 못하는 이상, 내가 말로 해서 확확 나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생각이 그렇게 귀중하다. 한생각이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낼 수 있는 회전의 근본 원력이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 최초의 나 자신의 태초를 모르니 어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최초에 생길 때에, 사람으로 그냥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있는가? 내 배 속에 내 태초의 모습이 있지. 보세요, 없나? 그걸 역력히 보세요. 우리는 그것이 모여서 인간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게 커져서 자꾸 진화되고, 그것이 자꾸자꾸 늘어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커졌습니까? 인간으로서, 고등 동물로서. 그리고 또 시대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개발이 됐습니까? 전자엔 먹을 게 없어서 쩔쩔매고 인종이 그렇게 드문드문 있더니 지금은 보세요. 얼마나 많고, 또 전자에 내 모습으로 살았던 짐승들을 보라고요. 짐승들이 사람이 되고 기어 다니다가 서서 다니고 이런 거지, 꼭 처음부터 이렇게 서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만큼 진화되고 이렇게 발전이 된 것도 그 중세계에 우리는, 이런 중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불국토를 이룬다 할 때는, 회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생각을 해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대인이 됐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불국토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앞으로는 점점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뭡니까? 남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남을 때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화를 입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無)의 세계의 어떠한 문제를 연구한다고 그러고, 계발한다고 그러고 과학적으로 하다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둘로 보지 않고 언제나 선의적으로 우리가 계발을 한다면은, 그것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을 악하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선신으로서 잘 나와서 자기의 길을 인도합니다. 자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로 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르고서, 그쪽의 능력도 모르고서 뚜껑을 열었다가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건 뭐냐.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이건 깨지는 겁니다. 한 모퉁이가 깨질 수도 있고, 물론 그냥 '꽝' 칠 수도 있고, 불로 다 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마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하는 식입니다. 몇 수억 천년을 살아온, 모습 없는 모습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닙니다마는 모습 없는 모습이 온 누리에 아니 다니는 데가 없이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허공에도 살고 있고, 또 혹성에도 살고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연구한다고 거기까지 파헤쳤을 때는, 다는 파헤치지 못하고 한 부분만 파헤쳤을 때는 그때는 참 위험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를 해서 만약에 과학자들이 위험 지경에까지 도달했을 때는 탁 이렇게 안아서 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그렇게 이끌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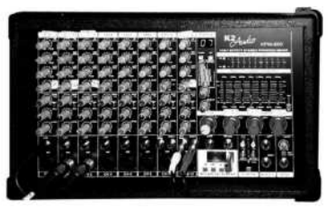
여러분, 이거를 잘 음미해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때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죠, 이 안에서. 몸이 피곤하면 '아휴!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해?' 하고 알게 해 주죠. 또 피곤하면 '아, 조금 쉬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즐겁게 해 줍니까? 그렇게 '내가 피곤하지.' 그러면 벌써 알게끔 해서, '좀 쉬어야지.' 하고 쉬게끔 마음이 들게 하고, '아휴, 좀 개운한데.' 하게끔 만들고, 그러고서 또 피곤하면 '목욕을 좀 해야지.' 요런 마음이 들게 하고. 일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건건(件件)이 자기를 생각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입니다. 참자기 주인공인데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붙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자연의 섭리로서 그렇다면은 누구한테나 마음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 내는 건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응? 마음은 하나야. 그러나 마음 내는 거는 수억, 우주 삼라대천세계에 꽉 찰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뱀도 내가 될 수 있고, 개구리도 내가 될 수 있고, 새도 내가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내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하다, 위대치 않다' 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7년 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법당의 엠프설비를 "UBS 내장형" 최신형,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 셋트로
160만원에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2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 CD기기 (5개 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 현불 논단 |

동계올림픽과 스포츠 포교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월정사 등 강원불교 활동 '눈길'

스노보드 발전엔 불교 역할 커
달마배 대회서 양성한 6명 선수
이번 올림픽서 국가대표로 참여

이제 불교도 스포츠 포교 관심을
특히 생활체육 분야에 주목해야
관련 연구 · 인력 양성부터 나서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히는 성화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올림픽은 월정사 등 다수의 사찰과 스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원 지역에서 열리게 되어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다가온다. 올림픽은 세계 각국의 최강의 선수들이 다양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되어 참여하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최상의 스포츠 대회임에 틀림이 없다. 때문에 세계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스노보드 분야의 경기는 현 수국사 주지인 호산 스님의 기여도가 크게 돋보인다. 호산 스님은 스노보드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15년 전부터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많은 선수들을 양성하고 지원했다. 그 결과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달마배 대회를 통해 양성한 6명의 선수들이 참여함으로써 메달의 색깔을 떠나서 이미 큰 결실을 거두었다고 본다.

불교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평창 올림픽은 불교문화의 정수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강원지역 주요 사찰을 통해 각종 명상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템플스테이를 통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전국의 사찰들은 적극적으로 올림픽 참가자와 관람객을 지원하고 사찰에 머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하고 동시에 불자들은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사회는 급속한 변화가 나타났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자동차가 보편화되었으며,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다. 스포츠는 엘리트 중심에서 대중화의 길을 걸었고, 문화 영역에서는 웰빙과 힐링을 추구하는 체험욕구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02년 월드컵 대회 이후 템플스테이가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창올림픽 이후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동계 스포츠 종목이 대중화되고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될 것이며,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평창을 비롯한 강원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동해안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새로 개통됨으로써 접근성도 더욱 용이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이제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은 생활스포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다. 건강, 체험, 치유를 위해 스포츠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불교의 전통문화인 선무도는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사찰의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스포츠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동물적 근성을 승화시키고 협동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 중 다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명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불교의 참선 프로그램들을 생활수행방법으로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면 불교명상법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현대인들 중에는 우울, 분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스포츠는 현대인의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스포츠 포교 분야에 대한 적극적은 투자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社說

불교 민간자격증 활용처 모색해야

최근 불교계가 민간자격 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1월 29일 불교명상 분야에 종단 공인 자격과정을 도입한 것이다. 민간자격증은 수강생들의 동기부여에서 큰 효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자격증 난립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자격증은 2만8000여개로 매년 1000개가 넘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민간자격증 관리 감독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종단 인증 민간자격증은 다양한 민간자격증 시장에서 종교계 공인이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민간자격증 취득시 활용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 관련 민간자격증은 2013년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상담심리사'를 등록한데 이어 '불교심리상담사', '찬불가 지도사' '불교명상지도사', '불교문화포교사' 등 다양하다. 여기에 더 나아가 '방과후학교명상지도사' '자비명상지도자' '차명상지도사' '청소년 마음명상지도사' 등 불교와 접목 가능한 분야까지 진출하고 잇다.

늘어가는 민간자격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대하는 자리 또한 불교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자격증만 취득하고, 사용할 곳조차 없다면 자격증 장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배움을 미래의 삶과 연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교계 교육과정을 듣는 이들이 많다. 불교의 가르침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론에도 적절히 활용 가능한 부분이다.

불교계 민간자격증 시장이 형성된다면, 사회와 접목되는 다양한 민간자격증 개발도 이어질 것이다. 21세기 포교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로 불교포교 저변 넓히자

불교교리를 배우는 불교대학이 변모하고 있다. 바로 불교문화 강좌로 저변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무용학과를 새롭게 신설했다. 그동안 부산불교교육대학은 풍수학과, 장례지도사학과, 수화과, 불교문화학과, 의식학과 등 재가자를 위한 다양한 과가 있어 호평을 받았다. 특히 2017년에 신설된 불교문화학과는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증을 등록, 전문 불교문화포교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울산불교교육대학도 불교무용반을 신설할 계획이다.

불교포교의 본질은 대중들이 함께 해 탈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대중들은 새로운 종교를 접할 때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인다. 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신심이 싹트는 것이다.

최근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불교문화를 접하고 불교 가르침을 이해, 결국 신심까지 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시도되는 문화강좌 또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는 한반도에서 2000년의 전통을 이어왔다. 이웃종교계는 그동안 문화를 활용한 선교 등으로 발 빠르게 교세를 늘려왔다. 이제는 불교가 사회문화에 맞는 접근을 통해 다시금 교세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요익중생이다. 사찰 또한 이미지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문화의 시대다. 이에 걸맞게 현대인의 삶과 문화에 가깝게 다가가는 포교전략이 더욱 절실하다. 불교문화 강좌 속에 불교의 미래가 있다.



신년 수상
문윤정 작가

겨울 이겨낸 새싹들을 기다리며

어느 해보다 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한파경보, 한파특보가 발효하는 날이 많았다. 한파와 동반한 폭설은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추위가 주춤한 날, 산책을 나섰다. 눈 덮인 호숫가를 걸었다. 두텁게 얼어붙은 호수 위로 켜켜이 쌓인 눈에 마음을 주었다. 연지(蓮池)도 꽁꽁 얼어붙었다. 동안거에 든 수련을 보면 지난날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두터운 얼음이 풀리면 수련도 기지개를 켤까. 이런 의문이 슬며시 올라온다.

하얀 눈밭 위에 의연하게 서 있는 소나무의 푸른 빛이 더욱 빛을 발한다. 하얀 수피의 자작나무에게서는 고결함이 느껴진다.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나무와 자작나무가 돋보인다. 우리에겐 나무들이 의연하고 고결하게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겨울을 견딘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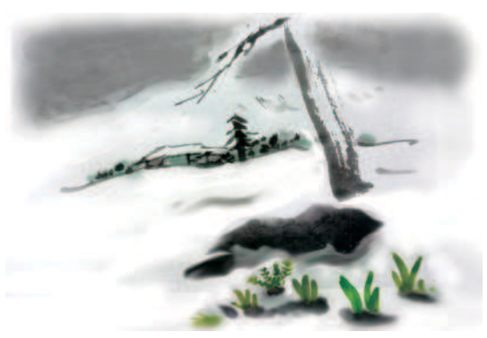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눈밭에서 숨죽이고 있는 연약한 들풀들의 안위(安位)가 궁금하다. 한파와 폭설을 어떻게 이겨낼까. 꽃들에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리라. 꽃들은 알고 있다. 겨울이 오래도록 계속될 것 같지만 기어코 봄은 오고야 만다는 것을. 꽃들의 이름을 호명해본다. 노란 꽃을 피우는 복수초, 주황색 꽃을 피우는 원추리, 자줏빛 꽃을 피워 올리는 맥문동, 보랏빛 꽃을 피우는 쑥부쟁이 등. 호명하는 내 마음에도 환한 등불이 켜지는 것 같다. 꽃을 피우는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고난을 견디는 꽃들에게 희망을 배운다.

오늘은 나무와 꽃들에게 인내와 강인함을 배운다. 방거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도 제자리를 찾아 떨어진다고 했다. 제자리를 찾아 떨어지는 눈처럼 나무와 꽃들에게도 자신의 본분이 있다. 본분을 지키면서 봄을 기다리는 것이 자신을 다독이는 일임을 자연은 알고 있다.

곧 설날이다. 설날 아침엔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고 덕담을 주고받는다.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덕담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취업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조카에게, 높은 인건비 때문에 가게운영이 어렵다는 동생에게 인내의 미덕을 전할 것이다.

나무의 의연함을 배우자고, 꽃들의 강인함을 배우자고 말하고 싶다. 오늘을 잘 견디면 내일을 견딜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잊지 말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8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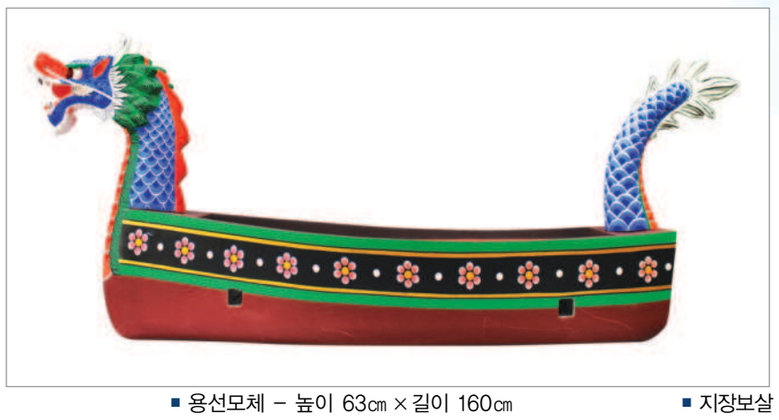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

부처님 가르침 전하는 최상의 보시
현대불교 법보시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법보시 동참명단

강갑순 강길전 강덕순 강도분(2) 강명옥 강무전 강미남 강미지자 강민경 강선효 강수옥 강순희 강영내 강이석 강정숙 강정훈 강태희 강혜전 강황진 경연혜 고경민 고경옥 고삼주 고순호 고승연 고양사 고옥인 고은주(2) 고한순 고화경 고희숙 공주학림사 공평근 곽순정 곽중호 곽춘자 곽한영(2) 관음사 구본국 구청길 국계숙 권갑남 권경숙 권귀분 권규열 권규태 권나래 권두상 권민경 권순령 권순자 권영길 권영주 권옥희 권익중 권정화 권태리 권혜림 권효심 금강사 기원정사 김경운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계봉 김광호(2) 김궁자 김규순 김규연 김기석 김기홍 김길봉 김나영 김나은 김다은 김대근 김만순 김명란 김명숙 김무재 김문식 김문윤 김미래 김미리 김미숙 김미연 김미원 김미지 김미현 김민경 김병호 김병희 김복남 김상곤 김상덕 김상분 김상일 김석순(2) 김선아 김선엽(2) 김선옥 김선회 김성기 김성수 김성숙 김성희 김소희 김손희 김수안 김수옥(2) 김수현 김숙자 김숙희(2) 김순남 김순복 김순희 김승만 김승재 김승훈(2) 김시라 김신숙 김신태 김양자 김양희 김연득 김연수(2) 김연옥(2) 김영규 김영래 김영봉 김영식 김영애(4) 김영옥(2) 김영율 김영자(2) 김영팔 김영해 김예지 김옥선(3) 김옥수 김옥자 김용만 김용순 김용호 김원수 김원순 김원심 김원자 김윤관 김윤성 김윤순 김윤자 김윤지 김은하 김의식 김의정 김인순 김인태 김장원 김재방 김재철 김재희 김점례 김정단 김정덕 김정렬 김정미 김정석 김정숙(2) 김정애(2) 김정화 김정환 김제성 김종길 김종숙 김종영 김종학 김종훈 김종희 김주연 김준 김준모 김준부 김준우 김준호 김중철 김진금 김진섭 김진영 김찬수 김창수 김철수 김철종 김철희 김춘녀 김춘희(2) 김태수 김태윤(2) 김판개 김평수 김학수 김해숙 김향숙 김현국 김현숙 김현신 김현화 김형곤 김형조 김형철 김혜석 김혜숙 김호영 김화일 김효상 김효성 김희자 김희진 나귀례 나양균 나용종사 나정수 나홍열 남선자 남은영 남정현 남주희 노경자 노성희 노실호 노영신 노영애 노우현 논술문화 단영숙 대각사 대광사 대산스님 대산스님(손재찬) 대원사 대한불교대덕종 대한불교조계종청룡사 대한불교총화종 덕암스님 덕진스님 도경민 도공주지스님 도법문주 도선스님 도성스님 도암지엄스님 도예린 도우스님 도원스님 도이환 도주양 도찬욱 도현우 동안스님 동은스님 동주주지스님 류매리 류지혜 류진훈 만연사 명인스님 묘길상 묘심사전영순 무애사 무원주지스님 무척사 무해법왕스님 문경숙 문계배 문선희 문수사 문수홍 문숙희 문임숙 문점숙(2) 문정희 미륵종 보덕암 민경애 민미자 민정원 박강숙 박경란 박경숙 박경순 박경희(2) 박계수행 박공임 박광순 박기남 박기임 박기준 박나리(2) 박남순 박말이야 박명희 박무주행 박문선 박미선 박미자 박미희 박보리수 박봉균 박봉영 박상섭 박석란 박성수 박성희 박숙자(2) 박숙희 박순기 박순옥스님 박순자 박순정 박승목 박연신 박영숙(2) 박영춘 박옥경 박옥남 박옥순 박옥정 박용수 박은미 박은주 박을선 박장미 박재석 박재필 박재훈 박정노 박정부 박정숙(2) 박정자 박종구 박종림 박종임 박주호 박준영 박지연 박지혜 박지후 박진우 박차선 박찬(2) 박철순 박철홍 박춘봉 박춘자 박해일 박향옥 박현동 박형숙 박형채 박혜경(2) 박혜란 박혜선 박흥국 방명극 방명섭 방명호 방순자 방장수 방태균 배강숙 배광자 배수진 배숙자 배영숙 배은주 배정민 배정임 배춘식 백광기획 백련사 백미현 백상례 백진구 법광스님 법민스님 법안스님 법열스님 법주스님 변영희 변융태 보광석재 보덕스님 보월스님 보혜스님 불교TV 사단법인열린법당 상현스님 서광사 서미옥 서민자 서병옥 서분임 서석순 서송자 서순례 서순희 서암스님 서영호 서예숙 서의숙 서재현 서정복 서정온 서정완 서정우 서호준 석오스님 선덕스님 선송훈 설정수 성거사주지스님 성동민 성민자 성불사주지스님 성산스님 성선영 소순흥 소충호 손문철 손영하 손정숙 손종헌 송동호 송몽스님 송상용 송숙자 송연희 송용관 송은경 송정구 송종화 송현헌 수덕사 신경자 신남선 신덕근 신동배 신상균 신선희 신수영 신수호 신영찬 신영희 신용례 신우호 신재근 신주호 신진환 신진희 신창순 신철순 신태순 심경우 심길현 심영애(2) 심영자(2) 심원식(2) 심인봉국사 심춘자 심현보 아차경 안무희 안미숙 안승원 안영수 안영옥 안영우 안정은 안중희 안창순 안현미 약사사 약사암 양도근 양세욱 양연희 양영모 양영순(2) 양인구 양재윤 양재인 양정욱 양현임 양현주 양흥용 엄재욱(2) 엄태영 여래사 연영자 염종희(2) 예태순 오경주 오경환 오길준 오삼순 오세윤 오승훈 오신재 오영희 오용근 오재영 오정애 옥영식 용운사 우림사 우병선 우수연 우순옥 우지예 우춘자 운봉스님 원동처사 원법스님 원정숙 위영란 유경자 유동열 유미 유상재 유재기 유정숙 육성희 윤경희 윤기자 윤기홍 윤미나 윤미희 윤병덕(2) 윤본숙 윤상민 윤석범 윤석승 윤수영 윤순이 윤애순 윤연수 윤월스님 윤정숙 윤정연 윤정일 윤채남 윤향숙 윤현숙 윤희원 이강만 이강민 이강희 이건우 이경애(2) 이광수 이광훈 이군자 이귀연 이규달 이근기 이근혜 이금옥 이기덕 이기영 이낙영 이다금 이대섭 이동건 이동숙 이동진(2) 이명수 이명숙(2) 이명순 이명자(2) 이명호 이명희 이미숙(2) 이미애 이미옥 이미자 이미화 이민서 이병일 이복성 이복희 이상동 이상숙 이상순 이상조 이상진 이상태 이석호 이선자(2) 이성수 이소주 이수영 이수예 이숙경 이순자 이순희 이승남 이승룡 이양우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연재 이영득 이영숙 이영순 이영애 이영자 이영희(2) 이옥수 이옥희 이왕구 이용로 이용법 이우순 이우윤 이우환 이원상 이원석 이원호 이원희 이유순 이윤호 이윤희 이은숙 이은지 이은희 이의열 이익수 이인숙 이일봉 이장희 이재숙 이정남 이정안 이정옥 이정자(2) 이정재 이정조 이종섭 이종옥(2) 이종의 이종협 이종화 이중기 이지현(2) 이진선 이진영 이진주 이창홍 이철우 이철헌 이춘근 이춘자 이충선 이태홍(2) 이해송 이향림 이향순 이현희 이형신 이혜산 이화자 이희숙 이희정 일지스님 일진성 임경희 임명성 임미림 임미순(2) 임선희 임옥빈(2) 임윤미 임재철 임점순 임종구 임지숙 임채민 임채식 임춘희 자명스님 자인스님 장규석 장미숙 장미순 장미자 장성윤 장순함 장양경 장영길 장재원 장준영 장준호 장현만 장형하 장혜선 장희숙 재단법인선학원 재단법인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전계영 전대기 전명국 전미자 전병수 전성진 전소윤 전순재 전영경 전일소행 전재호 전행자 정갑임 정경남 정경선 정귀복 정금란 정길동 정동하 정륜스님 정말생 정명스님 정명자 정무웅 정미자 정복남 정석조 정숙점 정안스님 정영수 정영숙 정영순 정영신 정옥화 정용래 정우스님 정은영 정은주(2) 정의진 정인숙(2) 정인순 정일극 정일배 정재평 정정매 정정애 정종윤 정진환 정창남 정태순 정하석 정학진 정해림 정현정 정혜숙 정흥교 조계종백련사 조공옥 조귀임 조동조 조명순 조미영 조민규 조성준 조영숙 조욱현 조욱형 조의연 조재규 조정해 조정희 조준석 조창희 조한주 조항석 조현근 조현정 주미숙 주정숙 주현순 지공스님 지혜경 진동석 진말련 진일스님 진종호 채광희 천갑순 천병길 천수만 천영기 천우사 천은사 천지현심 청량사 청룡사 청무스님 최갑식 최경수 최대석 최매화 최미령 최백 최병락 최복순 최순옥 최순이 최순자 최영숙 최웅재 최윤희 최은정 최재순(2) 최점순(3) 최점자 최정기 최정미 최정선 최종대 최종숙 최종열 최종원 최주선 최춘섭 최춘웅 최치영 최현창 최혜숙 최희숙 취산스님 하미희 하재수 하재한 하정암 한경호 한광호 한국불교태고종 한귀동 한기준 한마음법무사 한마음선원 강릉지원 한마음선원공주지원 한마음선원광명선원 한마음선원광주지원 한마음선원대구지원 한마음선원목포지원 한마음선원문경지원 한마음선원부산지원 한마음선원안양본원 한마음선원울산지원 한마음선원제주지원 한마음선원중부경남지원 한마음선원진주지원 한마음선원청주지원 한마음선원통영지원 한마음선원포항지원 한방근 한보광스님 한부성 한성호 한영찬 한예리 한윤진 한은섭 한인식 한정석 한정숙(2) 한창훈 해인사 행운자원 행허스님 허경순 허복영 허선경 허수자 허애령(2) 허점둘 허추자 허태환 현웅스님 혜륜스님 혜용스님 호정은 홍민자 홍선사 홍순 홍순아 홍순혁 홍승덕 홍승운 홍월자 홍인호 화장사 황경숙 황금영 황논철 황선영 황용남 황용숙 황인욱 황지영 황태경 황태숙 효심밥상 (주)한진흥업 (재)옥련선원 (주)동국산업 (주)우영기술단건축사무소 각원사주지스님

〈가나다 순〉

법보시 발송처

구 분	발 송 처	부 수
경 찰	경찰서 (130)	134
교화기관	감별소 (2)	4
〃	교도소 (45)	262
〃	구치소, 감호소 (16)	81
〃	소년원 (9)	27
군 부 대	군법당 (199)	271
〃	군병원 (7)	7
병 원	법당 (2)	15
복지단체	기업복지재단 (2)	2
〃	노인복지 (18)	19
〃	복지관련대학 (19)	19
〃	복지단체 (25)	26
〃	복지협의회 (1)	1
〃	부랑인복지 (1)	1
〃	아동복지 (20)	20
〃	의료기관 (92)	92
〃	장애인복지 (10)	10
〃	지역복지 (17)	17
〃	청소년복지 (4)	4
합 계	619	1012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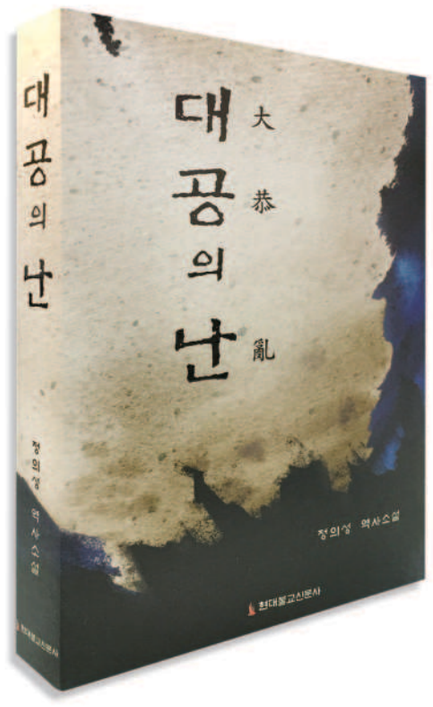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대표이사 서성우

설

오늘은 좋은 날, 우리 설날

참 좋은 날이다.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 똑같이 넉넉하고 즐거운 날이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조상님을 뵙고, 고운 차림으로 부모님께 새해 첫 절 올리는, 오늘은 설날. 서로 다하지 못한 마음이 미안하고, 그 마음 서로 알아 줘서 고마워지는 날. 그 미안하고 고마운 얼굴 한 번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날. 멀었던 고향길 한 걸음 되고, 아쉬웠던 마음은 보살의 마음 된다.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따로 없이, 잘나고 못난 것도 따로 없이 힘겨웠던 지난 해 서로 털어 주고, 복 많은 올 한 해 서로 빌어 주는, 오늘은 좋은 날, 우리 설날. 함께 해서 좋은 '설'을 찾아가 본다.

글 · 박재완 기자 /사진제공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B2 설 新 트렌드
명절 대세된 사찰 합동차례
B3 Stop! 명절 갈등
존중과 배려를 우선으로
B5 불교와 설차례
불교식 상차림 특징은
B6 Templestay
마음챙김 산사로
B7 전시 · 공연
예술 향연으로 '힐링'

사찰서 차례 지내GO





템플스테이 참여하GO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가족이 모두 불자인 A(41)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사찰 합동 차례에 참여했다. 형제들이 황금연휴로 인해 해외여행을 떠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었지만, 참여하고 보니 생각보다 깔끔하고 편리했다. 부모님, 자녀와 함께 사찰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도 특이한 경험이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트렌드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명절 3박 4일 이상의 장기 체류 비율은 감소하고, 당일 · 1박2일 단기체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명절 기간에 역귀성하거나 여행을 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연휴 귀성객들의 통행 특성 변화를 10년 전(2004)과 비교 ·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박2일 체류 비율이 25.1%에서 32.2%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명절기간 내 여행은 0.7%에서 2.3%로 늘어났다. 반면, 10년간 3박 4일 이상 길게 고향에 머무는 비율은 40.3%에서 25.5%로 감소했다.

추석 연휴 기간 내 수도권 안에서 움직인 가구의 비율도 18.3%에서 23.2%로 4.9% 증가했다. 수도권 거주자 중 4명중 1명은 추석에 고향을 가지 않게 된 것이다.

대세가 된 사찰 합동차례

하지만 차례 풍습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갤럽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차례를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전통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만나면서 생겨난 새로운 트렌드가 '사찰 합동차례'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심 사찰들은 최근 늘어난 합동차례 인파로 명절 당일에도 북새통을 이룬다.

서울 조계사의 경우 합동차례 동참 가정이 2013년 846가구에서 2014년 905가구, 2015년 955가구로 증가했다. 매년 7%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 합동차례를 3부제로 전환한지 오래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10여 년 전만 해도 명절에 합동차례를 지내려고 사찰에 오는 경우는 전무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찰 종무원들도 다수 출근을 해야 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고 밝혔다.

서울 봉은사의 합동차례는 2013년 1055가구에서 2014년 1145가구, 2015년 1172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내 5개 전각서 진행되는 단독 차례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는 즉시 마감돼 자리가 없을 정도다. 올해에도 38건의 차례가 순식간에 마감됐다.

주성하 봉은사 접수팀장은 "지난 10년간 합동차례 참여 인원은 분명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독 차례도 문의가 많지만 자리가 없다"면서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거나 혼자 살게 돼 차례를 모시기 어려운 사람들이 합동차례에 많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제2의 도시이자 불도(佛都)인 부산 지역 사찰들도 명절 때면 합동차례객들로 붐빈다. 천태종 삼광사는 합동차례에 5000여 명의 가족들이 참석한다. 모시고 있는 영가 신위만 3000여 명이다. 삼광사 관계자는 "매년 100여 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위패 모신 가정이 많지만 명절만 참여하는 일반 영가도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흥법사는 매 명절마다 2500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차례가 진행된다. 백년위패를 모신 가족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동참 인원도 명절마다 40여 명씩 증가하는 중이다.

금정총림 범어사의 명절 합동차례도 명절마다 평균 1000여 명이 참석하며, 신도 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위패를 원찰에 모셔서 젊은 세대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범어사 원주 석경 스님은 "스님들의 염불 독경 소리는 영가에겐 법문이다. 명절에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사찰에서 차례를 올리고, 가족 간에 추억을 만드는 시간으로 연휴를 사용하는 추세"라며 "손자, 자녀 모든 가족들이 차례를 지낸 후 여유롭게 경내를 거니는 모습이 이제는 흔한 사찰 명절 풍경이 됐다"고 밝혔다.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한 사찰 합동차례도 새로운 명절 트렌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의 국제선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명절마다 합동차례를 진행 중이며 동참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강석훈 국제선센터 계장은 "불교의 대사회 활동과 자비행 실천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합동차례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데일리 템플스테이를 매년 명절과 봉축을 맞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차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쌀 10kg 한 포대를 드리고 있다.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중이 정성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휴엔 당연히 템플스테이

명절에 귀향과 여행을 연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설과 추석맞이 템플스테이들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평시보다 명절 연휴가 집중돼 있는 시기의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급증한다.

해남 미황사의 경우 명절 시기에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가 30% 정도 증가한다. 고향을 찾았다가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가족 · 단독 참가자도 있지만, 한국 명절을 보내기 어려운 외국인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다.

주지 금강 스님은 "단군 이래 최대 연휴가 있었던 지난해 추석에는 역대 최대 참가자가 미황사를 찾았다"면서 "최근에는 달마고도 트래킹 길이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동팔경 중 한 곳인 낙산사의 템플스테이도 명절 템플스테이 특수를 누리는 곳 중 하나이다.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묘향 스님은 "명절 템플스테이는 기본적으로 휴식형으로 운영한다"며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단위 참가자도 많지만, 최근에는 20~30대 여성들이 혼자 참가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트렌드를 포교의 기회로

사찰 합동차례의 증가는 사회 변화로 인한 새로운 현상이다. 이를 단순한 편의 증대를 넘어서 불교를 알리고 포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트렌드에 대해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주임교수는 "사찰 합동차례는 핵가족화와 효 사상의 쇠락으로 인해 현 세대가 조상 선양의 의무를 사찰에 위임하고 있는 형식"이라며 "현 합동차례 유행은 사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전통 제사 · 차례를 불교식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 파생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재 사찰 합동차례 트렌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지장전과 같은 전각을 제사 · 차례를 모시고 조상들을 선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강 스님은 합동차례와 템플스테이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을 제언했다. 스님은 "일본 고야산에 가면 사찰에서 숙방(宿房)하며 조상을 성묘하고 사찰 문화를 체험하기도 한다"면서 "사찰에 영가 위패를 모시고 합동차례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연계한 문화 체험 ·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합동차례 진행 주요 사찰

서울	조계사	오전 8시, 11시, 오후 1시 영가 6위 10만원	(02)768-8600
	봉은사	오전 8시, 10시 영가 1위 당 2만원	(02)3218-4800
	국제선센터	오전 10시 10만원(영구 위패 동참자 5만원)	(02)2650-2200
	진관사	오전 5시, 7시, 10시	(02)359-8410
경기	한마음선원	16~18일(3일간), 오전 11시	(031)470-3100
예산	수덕사	오전 5시, 10시 10만원	(041)330-7700
부산	범어사	오전 9시 30분 5만원	(051)508-3122
	흥법사	오전 10시 영가 위패 5만원	(051)508-0345
	삼광사	오후 2시 일반 영가 7만원	(051)808-7111

사찰 합동차례 뚜렷한 성장세
단독 차례는 접수 동시에 마감
명절 사찰 합동차례 新 풍속도

설 · 추석 템플스테이 참여 증가
"20~30대 여성 참가자 늘어나"

차례 대행으로 머물러선 안돼
가족 포교 프로그램 연계 필요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우리 가족이 부처님”… 존중 · 배려의 마음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그림 · 박구원

무술년 설 명절이 다가왔다. 부푼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야겠지만, 달갑지 않을 경우도 많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명절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서다.

실제,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및 취업준비생 28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77.5%가 ‘명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다. 이 중에 절반은 “‘명절 우울증’을 겪은 바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2018년 설 명절을 맞아 종교와 성 역할, 세대에 벌어질 수 있는 갈등 유형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제사 못해 VS 전통 중요

 # 불교 집안에서 자란 A씨는 아내와 종교적 이유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하게 됐다. 개신교 집안에서 자란 아내는 결혼 전에는 제사와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 자신과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차례와 제사에 참여하게 됐지만 아이 낳으면서 아내의 입장은 달라졌다. 자신의 아이가 제사와 차례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남편에게도 “나와 살라면 개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빈번해졌고, 결국 부부는 이혼하게 됐다.

 # B씨 집안의 종교는 요즘 말로 ‘버라이어티’하다. 큰아버지는 가톨릭, 작은 아버지는 개신교, 본인의 아버지는 불교. 이들 가족의 종교 갈등이 시작된 것은 B씨가 중학교 시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터다. 아버지 형제들은 제사 방식을 놓고 갈등했고, 결국 서로 등을 돌리게 됐다. 그 이후 B씨의 가족들은 10여 년이 넘게 왕래 없이 각각 차례 ·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B씨에게 가족이 모두 모인 북적북적한 명절은 남의 이야기다.

> 차례 · 제사로 인한 종교 갈등
> 가족 불화 원인, 이혼 사례도
> 이해 바탕한 가족 의식 필요
>
> 가사 노동은 남녀 공동 책임
> 함께 일하고 즐기는 명절을
> 걱정하는 어른 마음은 알지만
> 수직적 충고는 도움 안돼요

가족 간 종교 갈등은 사실상 제사와 차례를 지내는 방식에서 불거진다. 이 같은 갈등은 서구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며 불거진 일들이다. 실제, 1920년 제사 문제로 한 여인이 목숨을 끊었다. 경북 영주의 주부 박 씨는 시어머니가 죽자 예법에 따라 혼실에 상식을 받들었다. 그러나 개신교 신자인 남편이 이를 중지시켰고, 이에 분개한 박 씨는 죽음으로써 시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갚겠다고 냇물에 투신자살했다. 이 사건은 사회 문제화됐고, 당시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제사는 선조의 영혼을 위로하고 사모하는 예(禮)인데, 예수교도 영혼의 존재를 믿는 이상 그 영혼 앞에서 절하는 것이 왜 미신이며, 우상숭배인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있어왔던 뿌리 깊은 갈등이 현대 사회에서도 쉽게 사라질 일은 없다. 다만, 변화하는 생활 방식에 맞춰 명절 문화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 문제의 경우 첨예한 사안이어서 상호간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제사와 벌초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가족의 행복 추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라는 것이다.

14년째 서울 가정법원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업 스님(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은 “설과 추석 등 명절 이후 이혼 소송들이 평소보다 2~3배 증가한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종교 갈등으로 인한 이혼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가족 간 종교 일치율이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제사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님은 명절 문화를 전통 · 관습 · 종교보다는 ‘가족 행복’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선업 스님은 “가족들이 모여 간소하되 정성스러운 차례를 준비하고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가족캠프를 떠나는 것이 좋다. 또한 의례 준비는 함께 하되 참가 여부를 본인 선택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가장 중요한 점은 가족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즐겁게 모일 수 있는 명절 자리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은 여자만 VS 도와주고 있잖아

“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와 한바탕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만 시댁에 안 간다고 했고,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았죠. 완벽한 명절이었어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B급 며느리’에 나오는 대사 중 일부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명절에는 여전히 약자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4~2017년 명절 연휴에 접수된 가정 폭력 신고는 3만 1157건이다. 이는 연휴 하루 평균 974건의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평소 발생하는 평균 신고 건수인 676건보다 40%이상 많은 것이다.

명절 갈등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설과 추석 전후 10일간 접수된 이혼 신청은 하루 평균 577건이다. 평시 하루 평균 이혼신청이 298건임을 감안하면 두 배가량 되는 수치다.

이 같은 갈등은 명절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평소 쌓였던 부부 갈등이 명절 때 폭발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이어질 때가 많다”고 진단한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은 “성 역할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히 고부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가족 내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 “요즘 남편들이 명절 가사 노동을 돕는다고 하는 데 애초 가사는 돕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 소장은 부처님이 설한 남편의 의무를 설명했다. 부처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고 경멸하지 말 것을 설했다. 옥 소장은 “부처님은 아내를 존중하기 위해 호칭을 잘 가려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아내를 노예나 하인 대하듯 경멸하지 말라고도 했다”며 “이는 부부가 역할을 떠나 평등한 관계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에 마지못해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습관을 갖는다면 명절 갈등이 발생한 요지는 줄어든다. 현재 가사 분담 문화와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명절 증후군 이기는 ‘S.T.R.E.S.S’ 운동

- **S**mile 웃으며 즐겨요
  - 모두 모이는 명절, 감사의 마음을
  - 상호 배려하고 즐거운 마음 갖기
- **T**ogether 가족이 함께 해요
  - 가족이 함께 일하고, 즐기고, 쉬기
  - 장보기와 음식 장만 모두 함께 하기
- **R**espect 서로 존중하세요
  -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은 금물
  - 종교 · 가치관 등 상호 존중하기
- **E**vent 가족 이벤트 만드세요
  - 가족 함께 하는 이벤트로 스트레스 해소
  - 명절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하기
- **S**peak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 남편은 아내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 아내는 남편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 **S**lowly 천천히 안전 운전을
  - 명절에는 당연히 막혀요. 서두르지 말아요
  - 여유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명절 만드세요.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진심으로 걱정 VS 잔소리 그만

명절이 불편한 사람들 중에는 취준생이나 솔로 직장인들이 많다. 지난해 취업 전문 포털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의 48.3%는 명절 친지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참 이유 1위는 ‘취업준비(55.8% · 복수응답)’였다. 취준생들은 또 ‘현재 상황이 자랑스럽지 못해서(47%)’, ‘친지들과의 만남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33.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취업 전문 포털 인쿠르트의 지난해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조사 참여 남녀 대학생 · 취준생 중 24%가량은 가족 · 친인척과의 갈등을 명절이 힘든 이유로 꼽았다. 위계 ·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충고와 걱정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이거나 오지랖 넓은 충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노량진에서 고시생들을 위한 힐링상담센터 마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마가 스님은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문제로 요즘 젊은이들은 명절 연휴를 마냥 반길 수 없다”면서 “이 점을 이해한다면 취업 · 학업 · 결혼 문제 등을 인사로 꺼내지 않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배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에 있어 세대 간 갈등은 늘 존재한다”면서 “본인은 걱정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방의 지나친 간섭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질문하기보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TOYLAND
사랑스러운 인형과 선물이 가득한 곳 토이랜드

사랑스런 인형과 선물이 가득한 곳!
토 이 랜 드

대표 황정성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87
전화 : 031)424-2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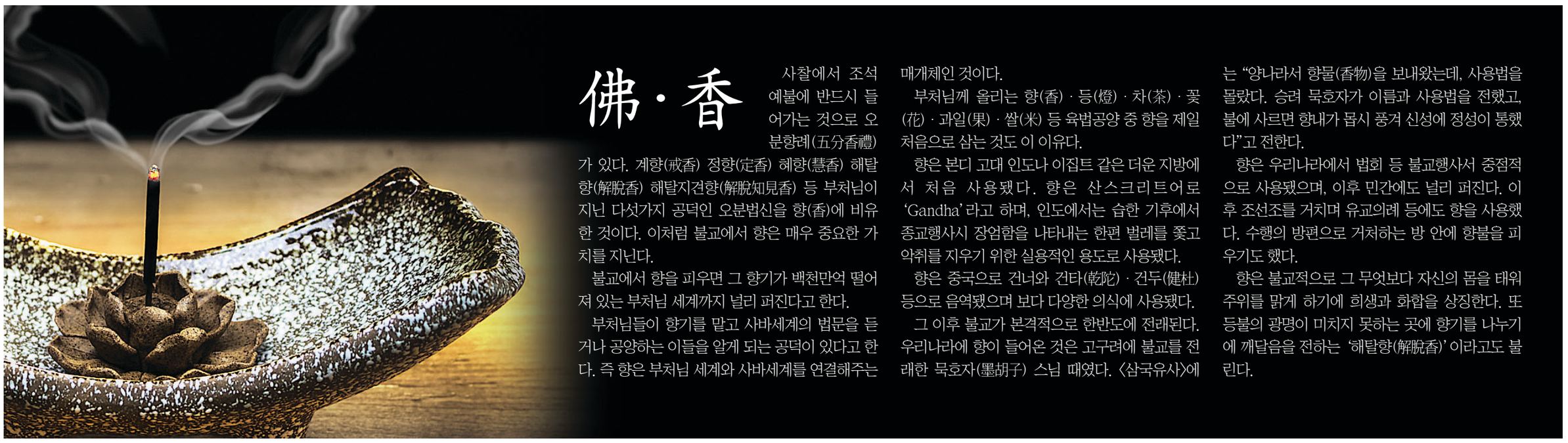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ini girl

차례상 속 불교문화, 유레카!

유교문화로만 여겨져 왔던 설 차례상 속에도 불교에서 전래된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무심코 지내 온 차례, 불자로서 공양의 마음을 가지고 올리는 것은 어떨까. 노덕현 기자



佛·香

사찰에서 조석 예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으로 오분향례(五分香禮)가 있다.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등 부처님이 지닌 다섯가지 공덕인 오분법신을 향(香)에 비유한 것이다. 이처럼 불교에서 향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불교에서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백천만억 떨어져 있는 부처님 세계까지 널리 퍼진다고 한다.

부처님들이 향기를 맡고 사바세계의 법문을 듣거나 공양하는 이들을 알게 되는 공덕이 있다고 한다. 즉 향은 부처님 세계와 사바세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것이다.

부처님께 올리는 향(香) · 등(燈) · 차(茶) · 꽃(花) · 과일(果) · 쌀(米) 등 육법공양 중 향을 제일 처음으로 삼는 것도 이 이유다.

향은 본디 고대 인도나 이집트 같은 더운 지방에서 처음 사용됐다. 향은 산스크리트어로 'Gandha'라고 하며, 인도에서는 습한 기후에서 종교행사시 장엄함을 나타내는 한편 벌레를 쫓고 악취를 지우기 위한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향은 중국으로 건너와 건타(乾陀) · 건두(健杜) 등으로 음역됐으며 보다 다양한 의식에 사용됐다.

그 이후 불교가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전래된다. 우리나라에 향이 들어온 것은 고구려에 불교를 전래한 묵호자(墨胡子) 스님 때였다. 〈삼국유사〉에는 "양나라서 향물(香物)을 보내왔는데, 사용법을 몰랐다. 승려 묵호자가 이름과 사용법을 전했고, 불에 사르면 향내가 몹시 풍겨 신성에 정성이 통했다"고 전한다.

향은 우리나라에서 법회 등 불교행사서 중점적으로 사용됐으며, 이후 민간에도 널리 퍼진다. 이후 조선조를 거치며 유교의례 등에도 향을 사용했다. 수행의 방편으로 거처하는 방 안에 향불을 피우기도 했다.

향은 불교적으로 그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태워 주위를 맑게 하기에 희생과 화합을 상징한다. 또 등불의 광명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향기를 나누기에 깨달음을 전하는 '해탈향(解脫香)'이라고도 불린다.

佛·茶

설 차례에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식 술을 올리는 문화가 자리했지만 우리 전통에는 예로부터 차가 올랐다.

신라 경덕왕 때 충담(忠談) 스님은 매년 양기 충만한 3월 3일과 9월 9일에 다구(茶具)를 들고 남산에 올라 미륵세존께 차를 올렸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전한다. 신라의 불상과 탑 · 부도에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듯이, 차는 불교와 불가분의 관계다. 차의 특성과 정신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의 특성을 연관 짓지 않더라도 음주가 금지된 스님들은 차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차는 본디 우리나라의 고유의 식물은 아니었다. 차는 삼국 말에 중국 땅에서 전래되었다. 한국에 차가 전래된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나, 삼한시대에 백산차라고 불리는 차가 있었음을 보아 삼한시대부터 우리의 토착 차(茶)문화가 싹트게 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차는 본래 중국의 특산품으로 다른 문화와 함께 신라에 유입하여 재배하게 된 것이다.

차를 공양하는 다공(茶供) 의식에는 중국 백장선사(百丈禪師)의 '백장청규(百丈淸規)'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을 막론하고 다례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화엄경〉에서도 차가 향화(香花)와 더불어 중요한 불공 수단 중 하나로 본다. 조선시대 불교의 식을 적은 문헌에서는 다게(茶偈)가 많이 나타나지만 막상 다례란 단어가 나타나기는 조선 중기 때이다.

조선초에 술과 차를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한 과도기를 거쳐 점차 '헌다'라는 용어는 그대로 두면서 물을 쓰게 된 것이다. 술보다 차는 당시 고급기호품으로 일반 백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차를 불교 산물로 여겼던 이유와 함께 제사의 보편성에서 술문화가 발달된 것이다. 올해 설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맑게 해주는 효능을 지닌 차를 올리는 것이 어떨까.





佛·拜

인류의 역사와 제사문화는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이중 자신을 낮추는 절 문화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달했다. 동맹(東盟)이라는 제천 행사를 치렀던 고구려의 벽화를 보면 남녀가 한복을 입고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온다. 특히 만주의 집안 우산리 고구려 고분 벽화 중 장천 1호 벽화에는 부처님을 향해 절하는 불교의식이 표현돼 있다.

본래 불교에서는 부처님 뜻에 따라 제식주의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인도문화에서 공경의 문화로 불교 속 예배문화가 자리하게 됐다.

불교에서 예배는 경건한 보리심을 증진하는 신행의 기본이다. 절은 삼보(三寶)에 대한 예경과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하심의 수행방법 중 하나다. 절 자체로도 하나의 훌륭한 수행법이다.

조계종 신도교재 〈불교입문〉에는 "예부터 절을 많이 하면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남들에게서 신뢰와 호감을 얻으며, 스스로 두려움이 없어지고,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해주시며, 훌륭한 위엄을 갖추게 되고, 죽어서 극락에 태어나며, 마침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서 절이 가져다주는 공덕을 설명한다.

절은 반배와 오체투지, 고두례 순으로 올린다. 오체투지를 하기 전과 마친 뒤에 하는 반배는 법당 앞에서 불탑에 절할 때, 절 입구에서 법당을 향하여 절할 때, 길에서 스님이나 법우를 만났을 때, 법당에 들어가거나 나오기 전에도 한다.

화두참선과 위빠사나는 다른 게 아니다!
'알아차림'과 '이뭣꼬'의 조화!

이뭣꼬



수행의 기초부터 깊은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수행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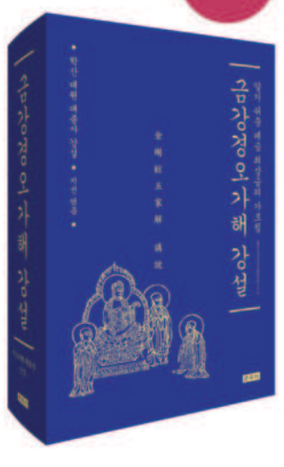
오랜 실참 경험과 경론에서의 근거, 현대과학을 통한 실증 등, 수행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가르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수행 참고서! 수백 장의 사진과 도표를 통해 '읽으면서 보고, 보면서 읽는' 편한 책으로 편집!

법산 편저/신국판 양장/544쪽/값 28,000원

금강경 이해의 길잡이, 금강경 해설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금강경오가해』!

금강경 오가해 강설

2쇄



학림사 오등선원의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

-경의 요처마다 선적, 교학적 안목과 현대적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여 바른 안목으로 이끌어준다.

『금강경오가해』는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명안 조사의 금강경 주석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 해동의 함허득통 스님이 설의를 붙이고, 학산 대원 스님이 강설을 덧붙였다.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신국판 양장/912쪽/값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식 상차림 특징은… 간소함, 계율존중



불교식 상차림과 다례법

최근 명절 문화는 변화하고 있다. 보다 간소한 차례상을 올리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사찰에서는 그동안 제철과일과 채식 위주의 젯상을 올려왔다. 집집마다 차례를 올리는 풍습은 다르지만, 보다 간소한 불교식 차례로 지내보는 것은 어떨까.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펴낸 '불교 상제례 안내'에 따르면 불교식 제사에서 설과 같은 명절 제사는 기제사에 따라 행한다. 다만 명절제사에서는 기제사를 지내는 2대 조상을 모두 모셔야 하고, 합설로 한번에 지낸다. 설에는 밥과 국 대신 떡국을 올릴 수 있으며, 세찬이나 명절 음식을 함께 올리도록 하고 있다.

상차림은 간소하게 준비하며 특히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 계율에 따라 육류와 생선은 제외한다. 먼저 육법공양물에 해당하는 향, 초, 꽃, 차, 과실, 밥을 올리고 기본 상차림으로 국, 3색 나물, 3색 과실을 갖춘다.

나물과 과실은 계절에 적합한 것을 올리고, 형편에 따라 떡과 전, 과자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또 고인이 생전에 좋아한 음식이나 집안 전통에 따라 융통성 있게 차려도 무방하다. 일반 제사에서는 꽃을 올리지 않지만 불교에서는 육법공양을 완성하는 의미에서 꽃을 갖추기도 한다.

특히 술 대신 차를 올리되 술을 올리는 전통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에 따라도 무방하다.

유교에서는 먼저 향을 피워 혼을 부르고, 모사 그릇에 술을 부어 땅으로 돌아간 백을 불러 혼백을 모신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청혼 의식물을 염송해 영가를 모실 수 있다고 하여 따로 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① 영가모시기(거불, 청혼)
② 제수권하기(헌다, 헌식)
③ 불법전하기(경전 독송)
④ 축원올리기(축원)
⑤ 편지올리기(편지 읽기)
⑥ 영가보내기(봉송)
⑦ 제수나누기(음복)

불교식 다례는 먼저 영가를 모시는 단계, 제수를 권하는 단계, 불법을 전하는 단계, 축원을 올리는 단계, 영가에게 편지를 보내는 단계, 제수를 나누는 단계로 구분된다.

①영가모시기 영가를 모시는 단계에서는 삼보를 칭명해 가피를 구하는 거불을 올린뒤 삼보의 위신력으로 영가를 청해 모시는 청혼을 한다. 불교에서는 제단 앞에서 영가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참석자들이 합장하면 제주가 삼보를 불러 모신다. 그때마다 다함께 합장반배로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승'을 칭명한다. 거불이 끝나면 제주가 모두 꿇어앉도록 안내 후 의식문을 염송한다. 청혼이 끝나면 모두 일어나 큰절 3배를 올린다.

②제수권하기 영단에 좌정한 영가에 공양할 것을 권하는 단계로 차와 음식을 올리고 공양을 권한 뒤 영가의 극락왕생과 깨달음을 기원한다. 일반 제사의 초헌, 아헌, 종헌, 유식에 해당한다.

③불법전하기 공양을 마치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인 법문을 영가에게 들려 드리는 순서로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10분 내로 마치는 것이 적당하며 모두 합장하고 앉아 경전을 염송하며 부처님 말씀 속에서 조상과 자신이 하나됨을 느껴본다.

④축원올리기 제사를 마치기 전에 영가의 극락왕생과 해탈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린다.모두 합장한 상태서 제주가 축원문을 염송하며 영가 시식을 올린 공덕으로 중생이 함께 성불하기를 기원한다.

⑤편지올리기 가족이 영가에 쓴 편지를 읽는 시간을 갖는다. 기일이 다가오면 누가 편지를 쓸 것인지를 미리 정해 진솔한 마음을 담아 쓴다. 고인에게 고할 특별한 사연이 있는 가족 등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는 생략해도 무방하지만 형식적으로 흐르기 쉬운 차례와 제사를 의미있는 시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⑥영가보내기 영가를 보내는 단계에서 봉송으로 하직인사를 올리고, 3배를 한다. 상을 물리고 헌식 한 뒤 위패를 사른다.

⑦제수나누기 제사를 마치고 나면 가족들이 둘러 앉아 음복한다. 불교서는 불보살의 가피가 내린 제수는 영가를 비롯한 모든 중생을 이끄는 감로법을 상징한다. 불교 제수의 음복은 조상과의 교감 뿐만 아니라 불보살 가르침을 나눈다는 뜻을 지닌다.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에게 듣는 '남은 음식 조리법'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불이사상에 바탕합니다. 세상엔 수 많은 생명들이 존재합니다. 사람, 동물, 식물, 곤충 등등 그 생명들은 또 유정과 무정으로 나뉘지요. 불가에서는 유정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채식을 했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 또한 그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연에 해를 주지 않는 재료와 조리법으로 남은 음식을 활용하는 것 또한 불자의 참된 자세가 아닐까요? 남은 음식재료와 음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몇가지 음식 조리법을 추천해드립니다.

두부장



두부, 간장

1. 기름에 지진 두부에 간장을 부어 놓는다.

두부우거지찌개

언두부, 무청, 간장, 고춧가루, 조청

1. 무청은 삶아 손질해서 간장 고춧가루 조청을 넣고 무쳐놓는다.
2. 냄비에 우거지를 깔고 언두부를 얹어 조린다.

나물찌개

김치, 두부, 남은나물(고사리. 도라지, 시금치등등), 다시마물, 된장

1. 김치와 두부는 한입 크기로 썬다.
2. 냄비에 김치를 깔고 나물을 얹고 두부를 올리고 다시마물을 붓고 끓인다
3. 한소끔 끓인 찌개에 된장으로 간을 맞춘다.(된장으로 간을 하면 느끼한 맛이 없어진다)

나물만두

남은나물(고사리, 도라지, 시금치등등) 두부, 김치, 깨소금, 만두피

1. 나물은 쫑쫑 썬다.
2. 두부는 으깨어 물기를 짜서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놓는다.
3. 김치도 쫑쫑 썰어 국물을 자 놓는다.
4. 볼에 나물 두부 김치를 넣고 무친 다음 만두를 빚는다.
5. 냄비에 물을 올려 끓으면 만두를 넣어 삶아 찬물에 헹궈 준다.(쪄도 된다)



녹두빈대떡전골

녹두빈대떡, 새송이버섯, 김치, 콩나물, 느타리버섯, 다시마물, 간장

1. 새송이버섯은 송송 썰어 김치 썬 것과 조물조물 무쳐 놓는다.
2. 콩나물은 씻어 건져 놓고 느타리버섯은 찢어 놓는다
3. 녹두빈대떡은 한입 크기로 썰어 놓는다.
4. 전골냄비에 김치무친 것을 깔고 콩나물과 느타리버섯을 돌려담고 다시마물을 넣어 끓이다 간장으로 간을 하고 먹기 전에 녹두빈대떡을 넣어 한소끔 끓여 먹는다





복작복작한 명절 '집밖'으로 탈출 마음 챙길 山寺로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설렘 가득' 설맞이 템플스테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운동하기, 금연과 금주, 독서, 저축…. 불과 얼마 전, 수평선 위로 고개를 빼꼼 내민 빨간 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졌던 새해 목표들. 우리는 잘 지키고 있을까? "역시 할 수 없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등등 지키지 못한 다짐에 대한 반성과 합리화로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을까? 다가오는 설 명절, 음력 1월 1일이야말로 진짜 새해라며 "다시 시작해보자" 고 마음이라도 먹으면 다행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난관은 바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에게 들어야할 잔소리와 쓸데없는 오지랖. 아아, 고향 없는 이야 없겠지만 고향 가기 싫은 이는 많아진다. 어디 이뿐인가. 큰집이라는 이유로 옴짝달싹 못하는 이들에겐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명절후유증으로 한 3일 앓아누우면 되는 걸까?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그만 끊어내자. 명절에 지친 당신에게 제안한다. "절로 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명절 연휴기간, 전국 39개 사찰서 설맞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기분 좋은, 설렘을 함께 맞이해보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기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이도 저도 귀찮은 이들을 위한 휴식형 템플스테이까지 제공되니 취향 따라 즐겨보자. 어쩌면 인생의 고향은 아니지만 사찰이 나의 불성(佛性)을 싹 틔운 고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명절후유증도 두렵지 않아"

양주 육지장사 · 경주 골굴사

건강은 그 어떤 가치를 막론하고 삶에 있어 최우선순위다. 잔소리와 집안일로 심신이 무너져 내릴까 걱정된다면 육지장사로 향하자. 게르마늄스파체험부터 디톡스 체험까지, 체험형과 단식형 템플스테이로 당신의 건강을 책임진다. 쑥과 옥 온구체험과 보행명상, 108배를 기본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단식 신청자에겐 선차와 체지방측정이 제공된다. 2월 15~18일/(031)871-0101

경주 골굴사는 이미 선무도 도량으로 굳건한 입지를 다졌다. 국궁과 선무도 수련, 전통문화예술 공연관람, 좌선 등 정적 · 동적 수련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명절에 맞춰 만두 만들기와 합동차례, 민속놀이까지 1석2조로 맛볼 수 있다. 2월 15~18일/(054)775-1689

온 가족이 웃고 즐기려면…

용인 법륜사 · 부안 내소사

용인 법륜사는 문수산 기슭에 있는 관음성지 발원기도 도량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어린이법회와 산사수련회로 훨씬 더 유명하다. 이 때문에 설맞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주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비구니 수행도량인 법륜사를 한 바퀴 돌아본 뒤 △걱정 인형으로 내 걱정 날려버리기 △설 해맞이 △다식 만들기 △합동 다례 △가족 대항 신나는 윷놀이 △복조리 만들고 복 주워 담기 △불교 공예품 만들기 △꿈 먹고 맘먹고 차담 등 누구나 쉽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월 15~17일/(031)332-5703

부안 내소사는 사시사철 눈길을 사로잡는 천혜의 풍광이 자랑이다. 무엇보다 수백 그루의 곧은 전나무가 만들어낸 울창한 전나무 터널이 압권이다. 그래서 설맞이 템플스테이도 트레킹이 중심이다. 변산반도를 둘러싼 서해바다를 거닐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보내고, 타종 체험 · 암자순례 등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월 16~18일/(063)583-3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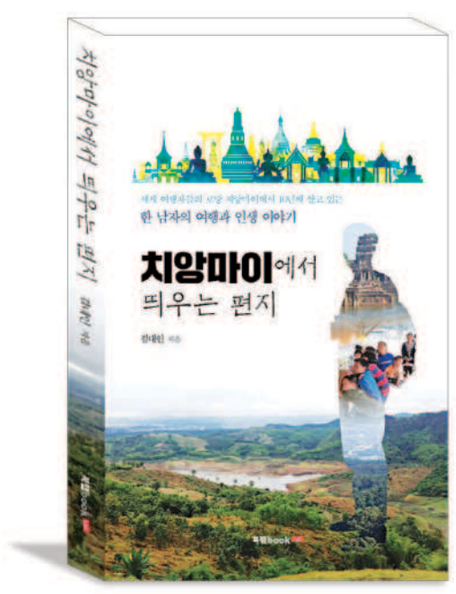
"잠시라도 날 내버려둬!"

속초 신흥사 · 충주 석종사

설악산 품에 안긴 속초 신흥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준비했다. 그것도 1박부터 4박까지 말이다. 원한다면 1~2가지 문화체험은 가능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만사 귀찮아 단 하루, 아니면 며칠만이라도 조용히 지내고 싶은 이를 위한 최적의 휴식형 템플스테이다. 2월 14~18일/(033)636-8001

충주 석종사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한 해 밑그림을 그려보는' 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구색 맞추기 부제일지 아니면 밑그림을 그리는 어떤 숨겨진 프로그램이 있을지, 선택은 당신 몫이다. 2월 15~17일/(043)854-4505

지역	사찰명	연락처	일정
서울	금선사	(02)395-9955	2.14~18
	화계사	(02)900-4326	2.17~18
	진관사	(02)388-7999	(상동)
	국제선센터	(02)2650-2213	2.15~16
	봉은사	(02)3218-4826	2.17~18
인천	연등국제선원	(032)937-7033	2.16~17
	전등사	(032)937-0152	2.15~18
경기	용주사	(031)235-6886	2.15~17
	흥국사(고양)	(02)381-7980	2.17~18
	백련사(가평)	(031)585-3853	2.15~18
	화운사	(031)337-2576	2.15~16
강원	월정사	(033)339-6606	2.15~18
	백담사	(033)462-5565	2.15~16
충북	법주사	(043)544-5656	2.14~17
	용화사(청주)	(043)275-0516	2.17~18
충남	마곡사	(041)841-6226	2.15~17
	영평사	(044)854-1854	2.14~18
	갑사	(041)857-8921	2.15~17
	수덕사	(041)330-7789	2.15~16
전북	선운사	010-5231-1375	2.15~18
	금산사	(063)542-0048	2.15~18
	실상사	(063)636-3191	2.15~16
전남	신흥사(완도)	(061)554-2202	2.15~18
	대흥사	(061)535-5775	2.15~17
	미황사	(061)533-3521	(상동)
	화엄사	(061)782-7600	(상동)
	백양사	(061)392-0434	2.15~18
경북	축서사	(054)673-9962	(상동)
	심원사(성주)	(054)931-6887	(상동)
경남	대원사(산청)	(055)974-1112	2.15~18
	문수암	(055)973-5820	(상동)
대구	동화사	010-3534-8079	2.15~18
부산	홍법사	(051)508-0345	2.15~18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보내 줄 만한 책이 없을 때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 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醫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 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 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 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냄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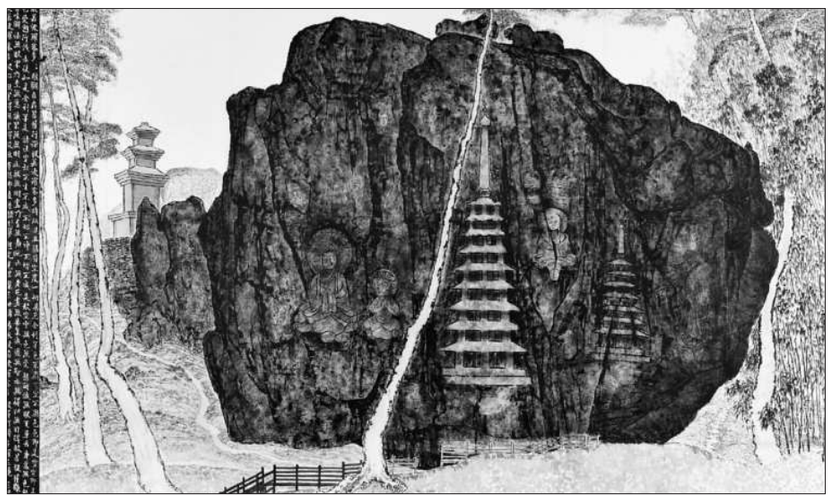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설에도 쉬지 않는 예술 잔치로 '힐링'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018년 새해가 이미 밝았지만 우리 민족이 마음으로 여는 새해 첫 날은 따로 있다. 설이다. 그래서 이 날은 모두 새로운 한 해에 거는 기대와 희망으로 마음이 부풀고 여러 가지 준비로 손발이 분주한 날이다.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보자.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박대성 作, 부처바위(옥룡암) 271×503cm

설날 어울리는 전시들

박대성 개인전
'수묵에서 모더니즘을 찾다'
인사아트센터 2월 7일~3월 4일까지

수묵화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일궈온 박대성 화백의 개인전 '수묵에서 모더니즘을 찾았다'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2월 7일(수)부터 3월 4일(일)까지 열린다.

시(詩)·서(書)·화(畵)의 일치를 근간으로 하는 문인화적 사상과는 달리, 박대성은 '서'를 '글'이라기보다는 사물의 형태와 의미를 나타내는 '디자인'으로서 접근한다. 따라서 그는 '서'의 '선'에 주목하여 사물을 최대한 절제해 표현하는 반추상적인 표현방법을 작품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 풍경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는 한 화면에서 공간을 재구성하고 왜곡함으로써 성격이나 의미를 전달하고 사물의 본질을 찾는데 주력한 작업들을 볼 수 있다.

폭이 5m에 이르는 대작들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긴장감과 힘찬 기운을 쏟아내는데, 이는 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운생동이 활약하는 현대적 수묵화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에서는 박대성의 서예작품과 함께 경주 불국사 시리즈 등 신작 100여점이 선보이며, 작가의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한국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애정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대성 화백은…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한국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수묵을 현대화 한다는 점에서, 겸재에서 소정과 청전으로 이어지는 실경산수의 계보를 잇고 있다. 한국화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시키며 1979년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동양화단에서 이변을 일으켰다.

예술의 전당
'동아시아 필묵의 힘'
서예박물관 2층전관 2월 9일~4월 1일

예술의전당은 2월 9일(금)부터 4월 1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념 한중일 서예전 '동아시아 필묵의 힘 East Asia Stroke'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의전당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공통 언어인 서(書)를 키워드로 한 한중일 작가 75명의 엄선된 작품을 통해 동아시아 문예의 정체성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리이다. 특히 21세기 동아시아 글씨의 횡단면을 그 어느 전시 때보다 다양하게 보여줌으로써 한중일 최고 수준의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 개막식과 포럼이 2월 12일 오후 3시 서울서예박물관 2층에서 개최되며 한중일 서예관계자 3인(권창륜, 가야하라 스스무, 쩡라이더)이 전시의 의의와 방향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입장권을 제시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복을 기원하는 달력 展
롯데갤러리 안양점 2월 8일~3월 4일

롯데백화점은 2018년 무술년 설날을 맞아 '복을 기원하는 달력-골드, 리트리버' 展을 2월 8일부터 3월 4일까지 롯데갤러리 안양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8년 황금 개띠, 무술년의 의미를 담아 제작된 디자인 달력 전시로, '오늘을 디자인하다 1일 1D'라는 테마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부터 앞으로 가능성이 기대되는 신진 디자이너들까지 개성 있는 작업을 선보이는 12팀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영동군 황간역
'설맞이 전통혼례한복 작품전'
2월 1일~28일

충북 황간역은 2월 28일까지 전통 한복을 주제로 한 결혼 의상과 소품을 소개하는 '설맞이 전통혼례한복 작품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옷 작가 박지원 씨가 만든 전통 웨딩한복과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퓨전 결혼용 한복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황간역에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 철도 여행객에게 사라져가는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함께 고향의 포근한 정취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의 소리 공연들

국립국악원 – '한판놀개'
예악당 16일~17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은 무술년을 맞아 설 당일인 16일(금)과 17일(토) 오후 3시부터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설맞이 대공연 '한판놀개'를 개최한다.

소리꾼 김용우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을 비롯해 한국 대중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와 2017년 제6회 국악동요부르기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리꽃심중창단'이 함께 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희망찬 새해를 여는 모듬북 합주와 새해에는 좋은 기운만 가득하길 바라는 액맥이타령으로 문을 연다. 이어서 소리꾼 김용우와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완벽한 화음과 샌드아트가 어우러지며, 아카펠라로 듣고, 샌드아트로 보는 우리 민요의 환상적인 무대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판굿 공연 장면

이번 공연은 무술년 개띠 해를 맞아 개띠 관람객과 한복 착용 관객, 3대가 함께하는 관객들에겐 입장료 할인 등 '천원의 행복'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공연 전에는 국립국악원 마당에서 떡메치기, 투호, 제기차기와 같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도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공연 후엔 관람객들에게 한과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통음악의 집 락궁의 '울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2월 17일(토) 오후 3시

전통음악의 집 락궁은 2월 17일(토)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울림'이라는 주제로 창작곡과 중주곡 국악실내악 공연을 선보인다.

국립민속박물관이 2월 토요 상설공연으로 마련한 '우리민속한마당'의 하나인 공연은 우리 국악기로 편성된 국악실내악단으로 신명나는 곡과 잔잔한 곡으로 구성하여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를 선보인다. 첫무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요 뱃노래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신뱃놀이'로 시작한다. 이어서 양방언의 FRONTIER, 가야금 2중주 '궁타령의 멋' 대금 독주 곡 'morning' 등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들과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 메들리 등 관객들이 함께 하면서 국악의 참 멋을 느낄 수 있는 곡들도 선보인다.

국립극장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국립극장 하늘극장 2월 18일까지

이번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당놀이다.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2월 18일까지 공연되는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이다.

SNS 중독 심봉사, 할말은 다 하는 당찬 심청, 풍자의 여왕 뺑덕, 국립극장의 명품 마당놀이로 불리며, 국립극장 마당놀이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심청이 온다'가 3년 만에 돌아왔다. 하늘극장 원형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더욱 가까워진 무대로 배우들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으며, 마당놀이 특유의 재미와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

77일간 63회 예정으로 지난 2017년 12월 8일부터 시작된 공연은 이번 연휴 동안이 마지막 일정이다.

박재완 기자

설, 체험 한마당

4대 고궁·종묘 등
무료개방·체험 마당

문화재청은 설 연휴 동안 경복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 등 4대 고궁과 종묘·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창덕궁 후원은 제외) 또한 '평창 여행의 달'인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4대 고궁과 종묘의 관람료를 50% 할인한다.

이번 4대궁·종묘의 관람료 할인과 설 연휴 무료개방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의 성공을 기원하고, 아울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민속촌 진행 '지신밟기'

더불어 문화재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고궁에서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설맞이 문화행사도 마련했다.

경복궁 집경당에서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각 아궁이에 불을 피워 온돌을 체험하며 어르신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는 '온돌방 체험과 세배 드리기 행사'가 열린다. 또한 덕수궁과 영릉(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기도 여주시, 2.15.~18.), 현충사(충청남도 아산시, 2.15.~17.), 칠백의총(충청남도 금산군, 2.15.~17.)을 방문하면 윷놀이·투호 등의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설명절 문화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관리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경복궁관리소(02-3700-3914) △덕수궁관리소(02-751-0740) △세종대왕유적관리소(031-885-3123 △현충사관리소(041-539-4603) △칠백의총관리소(041-753-8702)

한국민속촌-- '설맞이 복잔치'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은 2월 10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설맞이 복잔치'를 진행한다.

대나무, 생솔가지 등을 쌓아올린 달집을 불태우며 제액초복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민속촌 농악단의 농악놀이와 함께 진행되는 '지신밟기', 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집안에 복조리를 달았던 풍습을 놀이로 체험하는 스탬프 투어 '복조리를 찾아라', 액운을 막기 위한 세화 그리기,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 마당이 진행된다. 또한 명절을 맞아 아이들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도 풍성하다. 윷놀이, 투호, 칠교 등이 관아 앞 광장에서 매일 진행된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제주에서 왕후를 만나다', '복을 기원하는 연 만들기', '캘리그라피 덕담 써주기', '추억의 사진 콘테스트', '궁중한복전시' 등이 펼쳐지는 '2018년 설 민속한마당'을 개최한다.

△전남 고흥분청박물관은 설 연휴 특별개관을 하고 '소원나무 빌기', '복주머니 만들기', '전통 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풍물놀이가 진행되는 '설맞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2018 설맞이 우리문화 한마당'을 진행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만사형통을 염원하는 '십이지신문양 찍기' 등 '설맞이 민속문화 한마당'을 펼친다. 야외 마당에서는 굴렁쇠 굴리기 등 민속놀이 체험도 진행된다.

박재완 기자





촛불재는 새해를 맞이하여

나를 형성시킨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자손들이 밝아지기를 함께 기원하는 뜻 깊은 시간입니다.

촛불을 밝히는 모든 분들이 자기 근본을 통해 진화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